제대로 오오지 전통 수제 작설차만을 고집하는
지리산 茶天地
지리산 야생차로 만듭니다
• 농림수산부지정 한국전통식품개발 시범제 •
• 우리 차문화의 계승확대를 위해 생산가 보급(생산자 소비자 직거래) •
0595)83-9665 / 83-3478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평생
빅맨평생통장
복리저축 노후준비 조준금리로 내집마련 만점금리로!
■ 교육자금 주택자금 장조사자금 노후생활자금 등 다양한 여유서비스 제공
예금주명 380-023-4000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9월 6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주의 법구

상에 집착하지 않는 보시의 공덕은 한량없이 크다.
〈금강경〉

법회 안내

정종선원 (02)573-8506
금강법회 매주 월 오전10시30분
교고법회 매주 수 오후1시
무진장스님 초청법회 9월 29일 오전10시30분

보현사 (02)939-3307
정기지장법회 9월15일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3시

시흥 영각사 (0345)498-7700
초하부법회 매월 1일(음)
보왕인등법회 매월 15일(음)
일요가족법회 일 오전10시30분
어린이법회 일 오전10시30분

인천 불광사 (032)583-5238
초하부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통도사 부산포교원 816-2241
녹야원법회 첫째주 토 오후7시
거사림법회 둘·셋째주 화 오후7시
가족법회 셋째주 일 오전10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등부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홍국사 (0346)65-8010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약사기도일 108참회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30분
거사림법회 매월 둘째주 일 오전10시30분

남원 실상사 (0671)34-3031
청년부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중학생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진각종 위덕대

정보화 사회 인재 양성

손제석씨 총장 내정…9개학과 4백명 모집

내년 3월개교 '박차'

동국대에 이어 두번째 종립 4년제 정규대학이 내년 3월 그 장대한 위용을 드러낸다. 위덕대학이 개교를 앞두고 마무리 불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리탐구 인격도야 이타자리'를 건학이념으로 한 위덕대는 손제석 회당학원 이사장(전 문교부장관)을 초대 총장으로 내정하고 지난 5월 인문사회계열·공학계열·교양학부 등 총 30명의 교수를 임용해 놓는 등 개교를 목표로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손제석 이사장과 진각종 통리원 진산총무부장, 류권열 교학과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달 25일 경주군 감동면의 학교공사 현장을 답사 공사 진척상황을 둘러보았다. 손이사장을 비롯 회당학원및 진각종 관계자들은 10월까지 건립공사 마무리 등 학교제반 시설완비와 위덕대의 장기발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했다.


◇ 손제석씨

이날 중점 논의된 사항은 △철단기술연구소등을 개설, 정보통신·전자공학과계열을 특성화하여 정보화사회의 주역으로 양성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개발대학원을 비롯 지방자치연구소 신라문화연구소 등을 개설,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산업발전에 기여할 전문인력을 집중 양성한다는 것.

이날 손제석 이사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역점을 두어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덕대학을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총 30여만평 부지에 7개 단과대, 30여 학과로 증설하고 2005년에는 대학병원 실내체육관 박물관뿐 아니라 5개 특수대학원을 갖춘 종합대학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위덕대는 개교 첫해인 내년 인문사회계열의 불교학과 법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각각 40명 이공계열 제어계측학과 통신학과 전자재료공학과 각각 40명 전자계산학과 전자공학과 각각 60명 등 총 9개학과 4백명을 모집해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21세기의 지성인을 키워내게 된다.

위덕대는 특히 밀교계열인 진각종립대학인 만큼 밀교학을 본격 연구하는 중심센터로서와 불교학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최고의 불교학과로 역점 육성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경주=김종근·이윤호 기자〉


◇ 경북 경주군 감동면 유금리에 위치한 진각종립 위덕대학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社告
현대불교와 함께 일할
신문 판촉사원을 찾습니다

현대불교는 불자들이 복잡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실 수 있도록 전 지면을 신행위주로 제작해 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불자님들 가정에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를 보급하는 일에 지회와 함께 동참할 '일선 전법사'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구 분	모집인원	시 기	지 격	구비 서류	대 우
신문 판촉 요원	00 명	상 시	제한없음 (고객활동 경력자, 가정주부 환영)	자필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소정의 활동비 및 보상금 지급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화(02)737-8881 판매담당자에 문의 바람.

현대불교신문사

재가회의 대토론회 열린다

교육·윤리·통일 등 5개 주제…실천강령도 채택

한국불교 재가회의(상임의장 서돈각) 대토론회가 오는 16·17일 양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재가회의는 지난달 28일 진흥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분과별 토론회 주제로 △사회인을 위한 불교교육 △청소년 포교의 활성화 △환경과 사회윤리의 재문제 △사회복지활동의 강화 △정치 경제 및 통일의 문제 등 5개항을 확정했다.

'재가회의, 무엇을 할것인가'라는 대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분과토론에 앞서 이기영박사(한국불교교육원장)와 권기종교수(동국대)가 각각 '재가불자 신행의 기틀'과 '수행의 덕목'을 발표한다.

재가회의는 그동안 분과별 모임을 갖고 '재가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의를 통해 1백여개의 안건을 내놓았다. 이가운데 실천 가능한 것과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토의 주제가 선정됐다.

한편 재가회의는 대토론회를 통해 한국불교 재가회의 실천강령을 채택할 예정이다.

118차 중앙종회 조계종 19일부터

조계종 제118차 임시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가 오는 19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이번 종회는 △동국학원 이사후보 동의 △법인관리법 제정 사면법 개정 등 종법 제·개정 △96년도 예산권성을 위한 재정실사위원회 구성 △중앙승가대 소쩍새 마을 인수 등 교계의 예민한 현안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목어

마음을 데워줄 마음

"스무살 시절, 내가 흑석동 산꼭대기집에 살 때에도 큰 물난리가 있었다. 비는 억수로 왔고 간혹 그쳤다가 또 억수로 퍼붓기를 1주일이었다."

어느 일간지에 실린 김한길씨의 '꼭대기집의 홍수추억'이 목어자의 시선을 끈 이유는 흑석동 산꼭대기집 때문이었다. 아래 윗집은 아니었지만 같은 동네에 살았으므로 무슨 추억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뭇 관심있게 읽었다.

"창가에 서면 빗발 사이로 성난 한강이 내려다 보였다. 텔레비전에서는 한강다리가 넘친다고 걱정들이었고 가재도구며 소 돼지까지도 떠내려오는 판이었다. 그렇지만 산이 막혀 차안에서 몇시간을 갇혀 지낸 것 말고는 별 피해를 보지 않았고 재해와 싸우기 위해 삽 한삽 더하지 않은 것이다. …밀려있는 원고도 덮어두고 …나는 방송이 끝날 때까지 텔레비전을 끄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을 잃은 이들의 얼굴, 재산을 물에 빼앗기고 길에 나앉은 사람들, …농부들의 망연자실한 표정…, 이제는 내가 산꼭대기집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이런 말을 하는게 아니다. 피해를 피한 우리는 감사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데워줄 한마디 진심어린 위로의 말이나마 먼저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추석명절을 눈앞에 둔 수재민 이웃들을 위해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 돌아보고 바로 '마음을 데워줄 마음'을 내자. 자원봉사단도 발족되었고, 절마다 예수재 입재식을 갖고 있는데 8월 31일 현재 교계의 수재민 돕기는 너무 뜸했다.

매월 워크샵 개최 발전안 모색

교육개혁추진위, 지도위원장 지관스님

승가교육의 체계적 확립과 각 교육기관의 균형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발족한 조계종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총무원 청사 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결성식을 가졌다.

총무원장 월주스님 교육원장 원산스님, 지도위원 5명 추진위원 14명과 총무원 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 지도위원장에 지관스님(해인사 주지) 추진위원장에 도법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이 각각 추대됐다.

종단 교육관계 대표자들이 총망라된 승가교육개혁추진위는 이달부터 매월 한차례 워크샵을 통해 승가교육구조, 체계를 재조정하고 각 교육주체들의 상호조화된 개혁안을 성안, 심의 추진해 나간다.

승가교육개혁추진위는 총무원장 교육원장 직속기구로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수해지역 돕기 동참

조계·천태종 성금 전달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과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스님)은 지난 31일자로 각 교구본사 및 사암에 공문을 보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지역 이재민 돕기에 적극 나서줄 것을 독려했다.

조계종은 이와함께 지난 1일 수해이재민 돕기 성금 1천만원을 KBS에 기탁했으며 천태종도 지난달 31일 한국일보사에 이재민 돕기 성금 1천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원효종 안양암(주지 규현스님)도 1천만원의 성금을 조선일보사에 전달했다.

교계 첫 '선학사전' 출간 12면
'한국 화랑단' 창립 준비 14면



사 설

'大圓' 정신 대중속에 꽃피워야

(재)대한불교 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어언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여법한 기념식을 한다고 발표했다. 벌써 성년이 되었다니 진흥원이 그동안 벌여온 활동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1975년 7월 7일 (주)동국제강의 창업주인 大圓 장경호거사는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재 30억6천만원을 불교중흥을 위해 써 준다면 더 없는 영광이란 내용이었다.

당시 불교계는 해방이후 지속된 비구와 대처의 분쟁으로 혼란속에 빠져 있었으며, 교단에 대한 통솔도 구심점도 없었다. 가장 큰 사회문제의 하나가 비구와 대처의 처절한 대립이었다.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장경호거사는 이런 상황을 더없이 안타깝게 생각했음은 물론이다. 종파나 주의주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의 참화와 불안의 공포에 떨고 있고 인간성을 상실하여 정신적 갈등에 빠져 있으며, 불순한 사상으로 사회가 혼란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이 시대에서 불교가 짊어지고 가야 할 역할이라고 보았다.

이런 장경호거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75년 8월 16일 문화공보부에 재단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 진흥원은 설립 이래 군포교지원을 비롯 각종 불교단체에 대한 행사 및 운영비 지원, 각종 세미나 및 교육·연수 지원, 불교문화센터 및 다보법회의 운영, 불서의 발행 및 보급, 수련원 건설, 불교방송 지원 등 숱한 일을 해왔다. 이 중에서도 군포교활성화 지원과 불교방송 지원은 진흥원이 아니었다면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었으리라 본다. 특히 불교방송의 경우 설립과정에서 이후 재정적 지원까지 진흥원의 역할이 지중했으며, 그것은 고 장경호거사의 원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찬탄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흥원이 그동안 순탄한 항진을 했던 것만은 아니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진흥원의 행보가 일부에 편중되어 있고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운영도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심지어는 진흥원이 조계종의 재산이며, 마땅히 종단 산하에 귀속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강경론자도 있었다. 모두 지나친 감이 있으나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야 하리라 본다.

이제 성년이 된 진흥원을 보면서 몇가지 고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우선 진흥원은 초종파적 입장에서 한국불교가 중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기계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의 활동이 소극적이었다면 현실타개를 위한 적극적 실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하여 예상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그에 대한 포교전략개발, 그리고 체계적인 불교운동전개 내지 불교운동가의 관리와 양성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흥원 전반에 대한 개방과 조직적 활동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거듭나기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진흥원이 어느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고 모든 불자의 재산이란 점을 인식하고 진흥원의 사업에 적극 후원 내지 동참하는 것이 양식있는 불자들의 의무라는 점도 강조하고자 한다.

20년전 장경호거사는 불자가 된 것을 가장 행복한 일 중의 하나로 여겼으며, 그렇기 때문에 '산중 중심의 의식과 기복에 치우친 소극적 관념적 무사안일주의'에서 벗어나, 정신적 갈등에서 헤매는 현대인의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자 했다. 정녕 행복하고 멋진 사나이였음에 분명하다.

이제는 그분의 정신이 꽃피도록 하는 점에서도 향후 진흥원의 활동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열 린 마 당

전사법 개정



법 등 스님

"사찰재산처분 관리강화로 삼보정재 유실 막아야"

종단에서는 민족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불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이고 유실이 안되게 관리·보존하자는 취지에서 전사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불교재산처분 종단승인' 조항은 주지의 사찰재산 임의 처분을 막자는 것이다. 과거 불재법에서는 매 회계년도 예산 및 결산서·재산증감에 대해 정부에 신고 종단대표 및 신임주지등록 등 자주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폐기되었다. 전사법 개정이 불재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현 전사법 규정에 경내지밖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처분시 소속종단대표의 승인을 얻도록 해 종단대표의 승인을 문체부 장관과 동등하게 했다. 추진중인 전사법 개정에는 분규사찰의 재산 관리인 임명조항 폐지,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사사지복원 등 중요안이 들어있다. 전통사찰위원회 설치는 전통사찰 지정 및 각종 처분을 문체부 장관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종단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그 결의에 따라 허가를 내리는 것으로 전통사찰관련 행정 전반에 대한 위원회를 제도화 시키는 장치이다.

또한 현재의 농지법으로는 실질적으로 절대 농지로서의 구실을 상실한 곳을 문화재 보호와 사찰 경관 보존 차원상 매입하려고 해도 취득할 수 없다. 농지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곳은 사찰 경내지 보호 차원에서 취득할 수 있게 농지취득법개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조계종 현안문제해결대책위 위원〉



청 화 스님

"정치적 예속 벗어나 자율적 감시제도 마련"

종단현안문제해결대책위의 전통사찰보존법 개정논의는 한마디로 과거 '불교재산관리법'으로 돌아가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물론 '불재법'이 종단 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일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미 '불교재산관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전통사찰보존법'으로 종단 재산을 관리·운영해 왔다. 종단재산의 관리·운영권을 권력에 위임하고서라도 종단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고육지책으로 이해될 수 있는 면도 있다. 이는 오늘의 한국불교가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딜레마중의 하나다. 이번에 특히 논점이 되고 있는 '사찰 경외지'마저 문체부장관에 처분권이 맡겨질 경우 불교계는 정치적 예속은 물론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표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불교자주화의 시각에서 전사법 문제를 다뤄야 한다. 법적 구속력과 정부권력에 의지해서 전사법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지 말고 불교계 내부의 감시와 통제를 통한 자율적 제도장치속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재산문제와 관련해 말사 주지가 잘못했을 경우 본사 주지까지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고려해볼만 하다.

서로가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제도적 장치와 불교자주화의 밑거름이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종단의 백년지계를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실천불교승가회 공동의장〉

경외지 재산처분 종단대표승인 명문화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시안 내용

조계종 현안문제해결대책위원회(위원장 정휴스님)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사찰 보존법(전사법)과 시행령의 주요 개정범위는 △사찰의 재산보호 및 종단의 자율성 강화 △전통사찰위원회 설치 △사사지 복원 △전통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행위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중 교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찬반 양론을 격화시키고 있는 조항이 제6조. 현 조항은 경내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의 재산처분에 대해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개정시안은 경내지밖의 동산 및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처분시 소속 종단대표자의 승인을 얻게 국가법으로 명문화 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사찰위원회' 설치도 신설조항으로 제기하고 있다. 전통사찰의 보존과 관리, 지정, 각 행위에 대한 불·허가, 사찰복원 사사지의 지정 및 사찰 복원 허가 등을 조사·심의하고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건의, 의결하는 기구를 제도화 하자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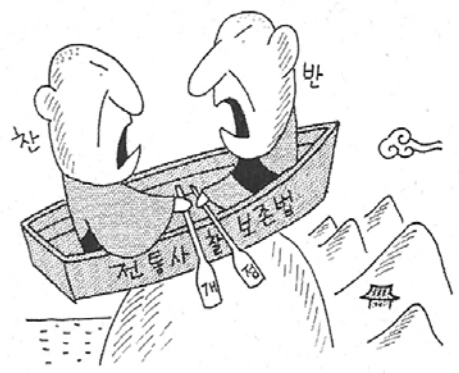
그리고 불재법 폐지때 삭제되지 못한 분규사찰의 재산관리인 임명 규정을 폐지 한다는 안과 사사지 지정·복원 등도 중요 개정시안으로 들어 있다.

불재법은 87년 11월 폐지될 때까지 수입지출·재산 증감과 인사행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감독과 개입을 받아야 해 대표적 악법으로 지탄받았다. 그러나 불재법은 당시 정화라는 혼란기에서 불교계 스스로 자초한 입법이며 이것 때문에 불교재산이 이나마 남아있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현안대책위는 보다 합리적이고 불교계의 이익을 위한 전사법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어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상정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숙〉

현대만평

박구원



양보가 없는 한…

시 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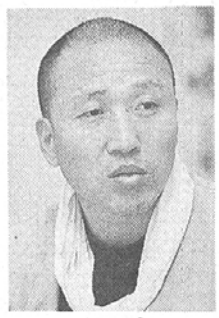
'空約'으로 끝낼 것인가

우선 나는 정치인들이 선거 때마다 내세우는 공약이란 것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화려한 수식어로 늘어 놓는 공약이란 지키기 위한 약속이라기보다는 우선 유권자를 현혹하여 표를 얻고 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김영삼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다.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기독교 편향성 때문에 우리 불자들은 그동안 여러번 분노같은 것을 느끼기도 했었다.

오죽했으면 그가 집권하고부터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대형사고들이 청와대 안에 모셔져 있는 불상을 없앴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형편이 이런 정도이니 김영삼대통령이 불교계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다. 현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족할만한 불교정책을 세워주고 추진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 불교계에도 문제는 있다. 앞으로도 여러 선거가 계속해서 있을 것이고, 선거가 있으면 정치인의 공약도 나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우리 불교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우선 불교발전과 민족문화로서의 불교문화 창달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치권이 올바른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불교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려 주어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효 림

〈파주 보광사 주지〉

자기주장이 뚜렷해야 그것을 관철시키는 힘이 나오는 것이다. 아니할 말로 김영삼대통령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불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 아닌가. 불교계의 주장이 뚜렷하고 통일된 힘으로 뭉쳐 있을 때 말이다.

민족문화창달 정책수립

지난 대선때 김영삼씨의 불교계 공약은 대충 일곱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불교방송 지방망(부산, 대구, 광주, 대전 또는 청주, 강릉 또는 춘천) 설립 허가, 둘째 불교종합병원설립 지원, 셋째 사찰의 종토세와 토초세 면제, 넷째 전통사찰보존법 등 불교관계법 개정, 다섯째 중앙승가대 정규 4년제 승격인가, 여섯째 역경사업 지원, 일곱째 경부고속전철 동국대 경주분교 통과 노선 변경 등이 그것이다.

김영삼씨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이 같은 공약을 꼭 지키겠다는 확답을 대선을 치르기 바로 직전 조계종 총무원으로 보내 왔었다. 그러나 김대통령 집권 절반을 넘긴 현재 불교방송 지방망 허가건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공약도 불자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본다. 물론 이렇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그 공약을 수행하기 위한 불교계 자체의 준비부족 같은 것도 지적할 수 있다. 불교종합병원은 불교계의 준비도 전무하고 정부의 지원도 전무한 상태다.

민족문화와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 또는 민족자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찰토지는 영구보존되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에 종토세 토초세를 매기고 있다. 이것은 위헌사항이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한데 사찰의 종토세 토초세 면세 공약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다.

교계 여건조성 선행돼야

생각해 보라. 불국사나 해인사가 토함산이나 가야산에 있다고 그 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내서야 되겠는가. 반드시 내야 한다면 그것은 사찰에서보다 우리 국민전체가 내야 할 것이다.

얼마전 전사법 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자고 해 총무원에 갔었다. 많은 스님들이 모였는데 개정을 하자는 의견과 하지말자는 의견 등이 팽팽했다. 물론 이날 회의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회의였지만 전사법 개정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차제에 보다 완벽을 기하는 쪽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것도 불교의 자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차례 세미나나 공청회를 열어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기만을 앉아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불교계가 집단이기주의나 불교자체의 이익에만 급급하여 정치권에 불교정책을 요구하기 보다는 보다 큰 안목으로 불교가 민족사에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정책을 실시해 주기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김영삼대통령은 집권후반기를 맞는 지난 달 25일 "오늘부터 2년 6개월의 임기를 새로 취임하는 각오로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국가와 민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운 다짐을 보였다.

불교가 현재 민족문화의 살아있는 마지막 보루라는 점을 김영삼대통령이 깊이 인식했으면 한다. 따라서 이 민족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중차대한 사명감으로 공약이행을 비롯한 불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 요구한다. 그렇게 불교와 관련된 정책은 중요함을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청정수 태부족…지구촌 물파동 극심

지하수 오염 ㊦

부처님의 지구 사랑

전 재 성 ㉓

이스라엘 하수 70% 재처리 농업용수로
오염방지법 제정 생태계 연계 정화 시급

물의 오염은 물 자체만의 정화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다른 생태계들과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부처님은 기세경(起世經)에서 물의 대신(大神)이 "물의 세계 안에는 땅, 불, 바람의 세계가 없다"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부처님은 그를 질책하여, "대신이여, 이제 그와같은 나쁜 생각을 일으키지 말라. 왜냐하면, 이 땅의 세계안에는 모든 땅, 불, 바람의 세계가 갖추어 있으며 다만 그 안에 물의 세계가 많을 뿐이다"라고 지적하셨다.

물의 오염은 다른 땅, 물, 불, 바람의 생태계의 오염에 영향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체나 자동차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줄여나가야 하고, 또한 각종 폐기물에 의한 토양오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나 핵무기에 의한 열오염이나 방사능오염도 봉쇄되어야 하며, 직접적으로는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의 소비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소비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한다. 부처님은 "물을 향락하는 자는 괴로움을 향락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물의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물부족의 조짐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하수면의 하강, 호수의 크기가 줄어들고 습지가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사용되는 물의 오염 정도에 따라 물의 정화능력도 떨어지고 있다.

물의 사용이 늘어나면, 저수지, 수도, 펌프장, 상수도관, 하수구, 하수처리장 등의 설치와 유지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 게다가 상수와 하수를 모으고 처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화학약품이 사용되어,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된다. 더구나 하수도 시설의 확대는 비가오면 자연스럽게 지하생태계로 스며들던 빗물을 하수도를 통해 직접 강이나 바다로 흘려 보냄으로써, 지하수면을 하강시켜 토양을 사막화 한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는 포장도로를 통해 하수도 속으로 빗물이 대부분 유실됨으로써 더욱 심각하게 된다. 도시의 토양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빗물이 직접 토양속에 스며들도록 도로포장을 개량해야 한다.

물의 오염과 물부족 현상을 타개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물의 재활용을 추진하는 것이다. 물 사용의 2/3는 농업용 관개수이다. 논밭에 물의 공급방식이나 관개기술의 개발을 통해 물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농부들은 질소, 인, 칼륨 등의 영양분을 농작물에 공급하기 위해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도시의 생활하수에 이러한 영양분이 충분하므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해야 한다.

이 방법은 강과 호수의 오염을 막고 농작물 생산을 증대시키고 물소비를 막는 삼중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는 하수의 70%를 재처리하여 농업용 관개수로 공급하고 있다.

그밖에 산업국가에서는 전체 물소비의 50~80%가 공업용수로 소비된다. 따라서 공장폐수에 의한 환경오염은 엄청난 것이다. 그러나 공업용수의 재활용을 추진하면 예를들어, 철강 1톤 생산에 들던 280톤의 물을 14톤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오염기준치의 수질을 방류할 수 있어 환경을 보존할 수 있게된다. 공업용수의 재활용을 추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강력한 오염방지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한국불교대 교수〉



◇물의 소비량은 날로 늘고 있으나 깨끗한 물은 줄고있다. 물도 이젠 아껴써야 할 때가 된 것이다.

'95 신행 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오는 9일은 우리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秋夕)이다.

음력 8월15일인 추석은 한가위·중추절(仲秋節)이라고도 한다. 즉 가을의 한가운데인 이 명절은 농경사회에서의 추수감사의식에 해당되는 것이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속담이 있듯 추석은 마음의 넉넉함과 물질의 풍요를 구가하는 명절이다. 고향을 찾아 객지 생활의 고통을 풀고 성묘를 하며 조상의 음덕을 기리는 것도 추석날의 넉넉함인 것이다.

그러나 불자들은 추석은 가정에서만 지내는 날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추석날에는 사찰에서 제사의 식등만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금주의 주제

추석날 절에 가자

추석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한 풍요의 명절이란 점에서 일년간의 고생과 보람을 남에게 향하는 날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추석날도 가정에서의 차례나 성묘를 마친후 사찰을 찾아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 사찰 역시 추석 연휴를 기해 특별법회를 마련 불자들에게 기쁜 회향의 법석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사찰 의식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단계지만 불자들은 추석을 '절에 가는 날'로 인식해야 한다. 고향을 찾아간 불자는 고향마을의 사찰을 찾아 경건한 시간을 갖고 새로운 생활의욕을 찾을 수 있으며 남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모처럼 가족이 모이는 기회인 만큼 사찰에서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기회로도 삼을 수 있다.

감사의 명절을 회향의 명절로 바꿔나가는 것은 불자의 당연한 도리이다. 부처님은 늘 남에게 베풀며 살 것을 강조하셨다. 비록 지금이 농경사회는 아닐지라도 내 일터에서의 보람을 남에게로 회향한다는 것은 불자들만이 할 수 있는 미덕일 것이다. 이제 추석을 '절에 가는 날'로 정하자.

일년간 고생한 보람 이웃에게 회향하는 날

부처님께 감사의 마음 전해야

신행수첩



◇불교무용의 춤사위 유형이나 그 명칭이 사라져 가고 있어 보존대책이 시급하다. 사진은 두 스님이 나비춤을 추고 있는 모습.

선정삼매에 든듯…춤예술의 백미 '승무'

수행표현의 한 일환이며 부처님 가르침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불교무용은 예술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통도사 부산포교원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이영미씨(혜화여고 무용교사)의 지도로 불교무용 강습회를 개최한다.

춤예술의 백미로 꼽히는 승무,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는 바라춤과 나비춤 등의 아름다움 속에서 불법삼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051)816-2241

발타라존자 자취를 따라
대승불자회 제주 철야법회

발타라존자가 9백나한을 거느리고 와서 전법했다는 조전법륜지 제주도엔 발타라존자 이름을 따서 지은 존자암이 있다.

중·장년 직장인 불자를 위한 신행모임인 대승불자회는 오는 23일~24일 제주도로 철야정진기도법회를 떠난다.

관음사와 약천사는 물론 불탑사 오층석탑, 만수사와 해륜사에 있는 복신미륵등 제주 불교문화의 진수도 맛볼 수 있다. (02)736-4848

깨달음은 굳은 원력에서
대구불교대 설정스님 특강

"높이 나는 갈매기가 멀리 보고 큰 원력을 세운 수행자가 큰 깨달음을 이룬다."

대구불교대학(학장 지성)은 4일 오후 2시 대구 고려예식장 3층 봉실에서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을 초청 '신앙의 원력'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는다.

여러 부처님과 보살들의 발원은 크나 큰 원력을 낳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는 정진으로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을 어루만지는 자비심을 발한다.

또 신행에 있어서의 원력은 쉼없는 정진을 가능케 하는 힘으로서 그 뜻과 원리를 아는 것은 끝없는 생을 거듭하며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방향타 구실을 한다.

(053)255-4873

이웃과 함께 인정넘치는 한가위를
조계종 대구신도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는 말처럼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에 맞이하는 추석은 집집마다 여유와 인정이 넘치는 민속명절.

하지만 즐거워야 할 추석에 버림받고 소외받은 우리 이웃들은 더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마련.

조계종 대구광역시 신도회는 올해년 추석을 맞아 무의탁노인이나 고아등 불우한 이웃을 위해 십시일반의 작은 정성들을 모으고 있다.

성금, 속옷, 양말, 쌀, 기타 생필품등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들이 모여 훈훈하고 인정넘치는 한가위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053)253-2886

고려동종 눈여겨 보자
터사랑 창립 1돌 국토순례

변산반도 제1의 사찰로 꼽히는 내소사와 개암사는 변산팔경을 두르고 개인봉 품에 안겨있는 시정을 돌우는 성지로 유명하다.

터사랑이 창립 1주년 기념으로 9월23일 부안 내소사 등을 둘러보는 국토순례를 떠난다.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석포리에 상륙하여 이 절을 찾았다해서 내소사라 이름지어졌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는 이 절은 법화경발본사경과 고려동종, 대웅전 등 값진 문화유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동종의 용통에 붙어있는 구슬과 입화장식에서 고려시대 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 전문강사의 해설까지 들을 수 있어 불교문화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내소사에서 멀지않은 곳에 위치한 개암사 대웅전 역시 짜임새 있는 모습이 불만하다.

이외에도 동학혁명 모의탑과 황토현 기념관, 전봉준 생가 및 묘소 등 동학혁명 전적지도 돌아본다. (02)725-1284

茶와 禪을 함께 공부
광명차문화회 다례 실습

한국불교의 큰 별 서산스님은 살아생전 일상 차를 즐기셨다. 그리고 선의 깊은 삼매에 사셨다.

이외에도 많은 고승들이 차를 벗삼아 청정생활을 영위하면서 선정에 드셨다. 이렇듯 차는 예로부터 불교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다.

부산 광명차(茶)문화회(회장 최미봉)에서는 차와 선의 삼매에 들 도반을 기다리고 있다. 광명차문화회는 매월 양력 초하루 온천장 금어암(주지 월강)에서 차에 대한 이론과 다례 실습을 한다.

차다와 선(토방), 차이야기·선이야기(대원정사), 차한잔(신어림)등 차에 관한 책도 다수 출간돼 있어 차에 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051)555-6072

아픈 불자님들 오세요
조계사 무료건강 상담실

쉽게 고칠 수 있는 병인데도 불구하고 치유방법을 몰라 고통을 받고 있는 불자들이 우리 주위엔 의외로 많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 조계사 신도회(구도부장 남여래행)는 신도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무료건강상담실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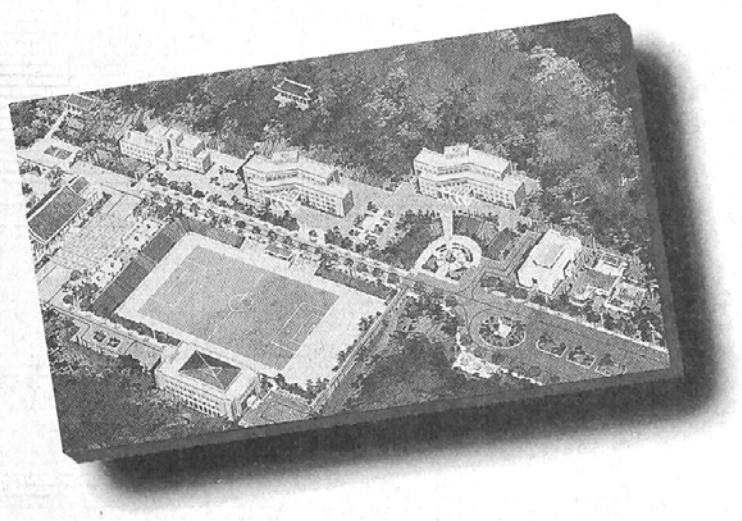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진료와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상담실은 매주 월·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화회관 2층 결혼상담소에서 실시한다.

(02)723-3810/739-1951

9월 15일! 한국불교의 푸른 미래가 열립니다

중앙승가대학 신축 캠퍼스 기공식

1600여 년을 이어온 불국토, 이땅에는 중앙승가대학이 있습니다.
불교인재의 요람, 중앙승가대학이 한국불교의 푸른 미래를 향한 새터전을 일굽니다.
9월15일! 중앙승가대학 신축 캠퍼스 기공식이 김포군 금정사 현장에서 거행됩니다.
이 역사적인 교육불사, 인재불사에 신심있는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동참은 미래의 한국불교를 떠받치는 큰기둥이 될 것입니다.



■ 행사식순 · 1부 고불식 (오전 10:00~11:00)
· 2부 기공식법회 (오전 11:00~12:00)

■ 일시 : 불기2539('95)년 9월 15일 금요일 오전10시
■ 장소 :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 중앙승가대학 이전부지 (금정사 경내)
■ 주최 · 주관 : 중앙승가대학 발전위원회 ☎ (02) 929 - 9831, 926 - 4377

● 교통편 ▶ 일반 : 광화문(세종문화회관), 신촌(크리스탈백화점) - 130 ▶ 좌석 : 광화문(세종문화회관) - 130, 영등포역 - 60
▶ 직행 : 신촌 (노고산파출소 아래) - 강화운수, 인천(시외버스 종합터미널) - 인창여객 김포行
▶ 완행 : 영등포역, 당산역 - 1, 3, 6



대구·경북 불방 추진위 현판식

대구·경북불교 방송설립추진회는 지난 29일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에서 대구·경북 5개 본·말사 주지스님들과 대구사암연합회장 원명스님, 불방이사장 종하스님, 강한필사장등을 비롯한 사부대중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 및 개국설명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동국대 일본 동양대와 교류협정서 체결

동국대 송석구총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총장실에서 일본 동양대학 수가노 타구호학장과 국제부장 노부치카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양 대학은 학술문헌·자료의 교환, 연구 및 심포지움의 공동개최, 학생·교수의 교류등에 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환담했다.



두송종합복지관 공식업무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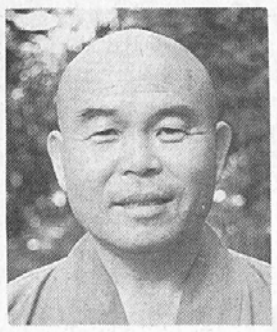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현)이 지난달 24일 개관식을 갖고 각종 복지사업을 위한 공식업무에 들어갔다. 총 사업비 16억1천5백만원이 소요된 두송종합사회복지관은 직업훈련실, 어린이집, 진료실, 기능교실, 장의예식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자는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불교조각작품선집' 출판 기념회

대한민국 전통문화재조각회(회장 김익홍)가 발간한 〈불교조각작품선집〉 출판기념회가 지난달 31일 오후6시 대한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상륜스님(승가사 주지) 법운스님(석불사 주지)등 16명이 감사패를 받았으며 천태종 재무부장 도재스님, 전홍수 배진달 김용우씨등이 참석했다.



하와이 대원사 20돌 준비

대원스님

"이젠 현지인 중심 불법 전할 터"

10월 대규모 기념 법회…한·미불자화합 마당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아득하기만 하지만 보람있는 세월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와이 대원사 주지 기대원스님이 10월 29일 현지에서 개최할 '하와이 대원사 창건 20주년 기념 대법회 및 디너공연' 준비를 위해 지난 26일 입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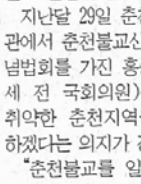
대원스님은 지난 75년 6월 18일 하와이에 한국승려로는 처음 도착해 7월 호놀루루 총영사관에서 90여명의 불자들과 첫법회를 갖고 하와이 포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처음에는 김치장사, 깡통수집, 양초장사등을 해야 했던 대원스님은 "20년을 지내며 2천여 세대의 불자가정을 부처님께로 인연 지워주고 이역땅에 한국 사찰을 건립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국내의 스님과 불자님들이 도와주시고 염려해주신 덕분"이라며 그곳의 불사가 조국의 불사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스님은 현지 불자교포들의 두터운 신심도 오늘의 대원사를 존립시킨 기둥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님은 10월에 개최할 기념법회를 국내의 스님, 불자들과 미국의 불자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제 교포불자들의 신행도 어느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정기적인 법회를 지속시키며 내실을 다지고 현지인들에게 불법을 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실행할 방침입니다." 〈태〉

교차로

천지서 통일기원제 봉행



월하스님(조계종 종정)은 지난달 15일 백두산 천지에서 '광복 50주년 기념 백두산통일기원제'를 봉행했다. 스님은 조박초 중국불교협회회장을 만나 양국의 불교 유대를 논의하고 귀국했다.

효봉선사 관계 자료 수집



현호스님(효봉선사 법어집 간행추진위원회 위원장)은 효봉선사의 법문, 서간문, 시서화, 사진 등 법어집 편찬 관계자료를 수집한다. (02)438~1592

'하늘과…' 출판 기념법회



혜명스님(선농회장)은 지난 28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하늘과 땅을 감동시켜 복을 받는 비밀' 출판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원효총종정 법흥스님, 법타 조계종총무부장 등 1백50여명이 참석.

불자대학생에 장학금

마근스님(낙산사 주지)은 지난달 25일 전국 납녀불자대학생 35명에게 모두 3천5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롯데복지재단 행사 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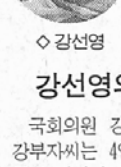


영산스님(안산고려선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롯데복지재단(이사장 노신영)창립 1주년 기념 평가회와 지원금 전달식에 참가했다.

보륜정사 이전개원 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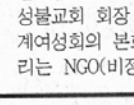
혜공스님(보륜정사 주지)은 지난 3일 서울 증계본동 44-1번지에서 법당 이전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소림사 1500돌 법회 참석



이기영박사(한국불교연구원장)는 지난 2일 중국 소림사 창사 1천5백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출국했다.

미국보림사서 하계특강



허성구학장(대원불교대학)은 지난달 14~23일까지 미국분교(보림사)를 방문 하계특강을 실시했다.

'남북한 문학…' 세미나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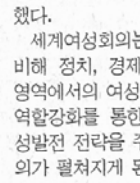
홍기삼교수(동국대 국문과)는 지난달 27일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가 광복50주년을 맞아 개최한 '남북한 현대문학사 서술의 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WFB대회 기금 조성나서

박동기회장(WFB 한국본부및 오계파지 운동 국제본부)은 내년 서울에서의 WFB대회를 앞두고 대회준비 및 회관 건립기금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다기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이 다기에는 월하 종정스님과 일타스님이 하사한 휘호가 들어 있다. 구입문의 (02)538-5523~4



'직지심경' 되찾기 운동



박충일회장(대한인쇄문화협회)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인쇄기자재전에 참가한 뒤 프랑스를 방문, 〈직지심경〉의 반환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돌아왔다.

연기 30년만에 첫주연



전원주씨(불자탤런트)는 연기생활 30년만에 3일 KBS 2TV 드라마 게임 '행덕어미를 위하여'에서 첫 주연을 맡아 열연했다.

자전수필 '뭐가…' 출간



최준호씨(불자 법무사)가 어린 시절 겪은 이야기부터 65세가 되기까지 평소 생각을 가식없이 적은 수필집 '뭐가 지구야 수구지'(법정신문사)를 펴냈다.



"부처님 가르침 열심히 전하겠어요"

동산불교대 졸업식서 최우수상 받은 전용기씨 부부

"부처님의 가피로 불법에 무지한 상태에서 어느정도 광명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웃을 위해 자비를 베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7일 조계사 불교회관에서 열린 동산불교대학(학장 무진장) 제3기 졸업식에서 최우수·우수상을 받은 정호금(모련화, 43) 전용기(덕산, 46)씨 부부.

돈독한 신행생활로 졸업식에서 아미타상을 같이 받기도 한 전용기씨 부부는 지난 78년 결혼후부터 함께 불교공부를 하며 부부의 금슬을 쌓아온 모범적인 불자가정으로 고1·중3 자녀를 두고 있다.

기복적으로 막연하게 절에 다니는 것이 싫어 93년 同대학에 같이 입학, 학교와 집에서 같이 공부와 토론을 하며 체계적인 불교 공부를 억혀온 이들 부부는 두손을 꼭 쥔 채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재〉



불자화가 강호찬·이상진씨 '佳緣展'

아름다운 인연을 맺는 결혼식과 그림전이 함께 어우러진 이색 결혼식이 열렸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불자화가 강호찬씨와 이상진씨가 지난달 31일 공동그림전 '가연전'(9월6일까지 인사동 백악미술관)을 여는 마당에서 결혼식을 가졌다. 88년 동국대 미술학과에서 만나 '캠퍼스커플'을 이룬 두 화가는 은사 송영방교수의 주례로 불심 가득한 가정을 꾸릴 것을 다짐했다.

신부 이상진씨는 정릉 경국사에서 낮에 일하고 밤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림 공부를 한 '억척'이고 신랑 강호찬씨는 소아마비의 몸을 탓하지 않고 그림공부에 매진해온 신심 강한 불자.

이날 결혼식에는 김대열, 진철문씨 등 선후배 화가들과 탤런트 김혜정씨가 참가해 두 사람의 행복을 빌었다. 〈태〉

게시판

▲집단상담프로그램=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서선례)는 자기표현 및 사회성이 떨어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817-8052~4

▲강원불교대학 개강=강원불교대학(학장 백운)은 6개월 과정 신입생을 모집하며 5일(초급반)과 7일 (중급반)개강한다. (0361)51-5040

▲다보문화강좌=불교문화센터는 오는 13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불교방송 3층 공개홀에서 천혜봉(국립정신연구원)교수를 초청하여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주제로 다보문화강좌를 개최한다. (02)703-0108

▲청년회원 모집=대각불교청년회(회장 임천) 사회봉사활동에 관심있는 신심 돈독한 20세~40세 남녀를 대상으로 청년회원을 모집한다. (051)867-8606~7

▲9월강좌 개설=개금사회복지관은 9월 프로그램으로 무료세무회계 상담을 비롯, 어린이 영어교실 강좌를 마련, 회원을 모집. (051)893-5034

이전 한일과거청산국민운동부(상임공동대표 서돈각)는 지난 26일 사무실을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503호로 이전. (02)725-2828, 4866

"정법신행·지역화합에 최선"

춘천 불교신도회 홍종욱 초대회장



"춘천지역 30여개 사찰의 신도회를 하나로 묶어서 강한 춘천불교신도회를 결성,지역 불교 발전에 힘쓰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춘천불교신도회 창립기념법회를 가진 홍종욱 회장(70세 전 국회의원)은 불교세가 취약한 춘천지역을 불국토화 하겠다는 의지가 강렬하다.

"춘천불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는 대전제가 화합입니다"이런 바탕하에서 거사들의 활동영역을 넓히고 불교방송 추진위 연내구성, 강원불교대학 육성, 대대적인 행사개최를 꾸준하게 벌여나가겠다"고. 〈원〉



◇강선영



◇주양자



◇강부자



◇변광순

강선영의원등 북경 세계여성회의 참가

국회의원 강선영·주양자·강부자씨는 4일~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 참가키 위해 지난 1일 출국했다. 이와함께 여성불교회 회장 변광순씨도 세계여성회의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NGO(비정부기구)포럼에 참가키 위해 지난달 29일 출국했다.

세계여성회의는 21세기를 대비해 정치, 경제등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여성의 참여확대와 역할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여성발전 전략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펼쳐지게 된다. 〈은〉

경 축

국씨전영양소 후원으로 세계 여자 역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다

★일시 : 1995년 11월 ★장소 : 중국(광주)

세계인을 위한

다 이 어 트

5일 복용이면 3~5kg이상의 감량 !

건강관리, 체력보강, 체력유지, 비만해소 100% 효과 보장

비만인에게 나타나기 쉬운 고혈압·당뇨·변비에도 탁월한 효과

10kg 미만 체중감량은 무조건 10일이면 끝

여러 제품으로 실패한 분들께 필히 권합니다



※약국, 피부관리에서 취급가능함

세계각국에서 폭발적인 인기제품
한국에도 본격 시판…

국씨 전 영양소(한국총판)
전화:(02) 929-0211~4

국씨전영양소란?

중국의 저명하신 다이어트 전문가인 **북경대 국민원 교수**가 주관하고 의학과 운동 생리학 전문가들이 협조한 가운데 빈자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특수 한방비법으로 제조한 세계 최초의 완전 천연, 영양 농축다이어트 식품. **중국 여자 역도선수들이 체중조절 및 영양식품으로 복용**한 후 탁월한 효능을 인정받았으며 **복용 5일이면 최저 3kg에서 5kg 이상** 체중이 감량될 뿐만 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영양은 공급되면서 체질개선, 혈액순환은 물론 **노폐물까지 제거**된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지능과 성장발육**을 촉진하고 **집중력이 향상**되며 한번 감량되면 다시 비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그 특징이다. 오히려 허약자에게는 영양 많은 식품으로서 건강관리에 있어 그 효과가 매우 높다. 중국, 미국과 합자하여 만든 제품.

信心이 돈독한 佛者로서 약간의 자본금을 투자하여 확실한 수입이 보장된 국씨전영양소 사업에 동참할 한분을 초빙합니다. Mr. 박



개발자 국민원 교수(박사)약력

1973년~1978년 북경대학에서 식물학 연구
1978년 북경 영양연구소 입소
1978년 中南海(중국 고위 간부 주거지/모택동 등소명 등 역대 중국고위관리) 食品營養 고문 임명. 현 재임중
1985년 감비식품 연구 착수
1992년 8년만에 국씨전영양소 개발완료
현 북경대 교수

이제 다이어트는
국씨전영양소가 책임지겠습니다.

돌에서 망상 깎아내기 33년

산문밖의 禪

돌안경 제작자 이성옥 씨



자수정은 나의 도반… '바로 보는 눈 만들자' 화두

정진하는 마음으로 4년전부터 틈틈이 염주 제작

서울 동작구 흑석동 54번지. 우리나라에서 몇 안되는 재래식 돌안경공장 가운데 한 곳이다. 이 돌안경공장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도 자수정을 예리한 정으로 깎아내리고 다듬는 소리로 바쁘게 움직인다. 또한 작업장 곳곳에는 경주, 괴산, 양양 등지에서 캐내어진 자수정 덩어리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곳에서 33년을 하루같이 인체에 가장 가까운 렌즈 만들기에만 심혈을 기울여온 이성옥씨(50). 그에게 있어서 선은 온갖 세속적인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작업실에 들어앉아 수천년동안 땅속에서 묻혀있던 자수정과의 만남에서부터 비롯된다.

작업이 곧 번뇌 씻는 일

각종 예리한 정으로 자수정에 쌓인 티끌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일련의 공정들이 바로 그의 생활이고 그 자체가 선인 것이다. 이렇게 자수정에 묻어 있는 온갖 티끌을 벗겨내는 공정이 무명으로 가득 쌓인 자신의 번뇌를 씻어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그는 말한다.

그가 헤아릴 수 없는 기나긴 세월동안 땅속에 말없이 묻혀있던 천연의 자수정을 대하고 있노라면 수많은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간다.

'어떻게 하면 인체에 가장 가깝고 정밀한 렌즈를 만들 것인가' 이것이 이씨가 풀어야 할 화두인 것이다.

그는 안경이란 단순히 현상적인 물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의 눈으로 세상의 모든 이치를 올바르게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어린시절부터 다양한 손재주를 지녔던 이씨는 신비한 자수정에 매료돼 인연을 맺었고 그 인연의 실타래는 33년이란 시간속으로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첨단 과학문명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안경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인간과 가장 가까운 자연석을 이용한 렌즈는 점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씨는 그 이유를 유리렌즈보다 돌렌즈가 빛의 투시율이 뛰어나고 유해한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해주는 한편 눈의 피로를 최소화해 주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둘로 보지 않는 이씨는 자수정을 단순한 돌덩어리로 보아서는 안되고 인간과 동일한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 숱한 역경의 세월을 지내왔고 나름대로의 독보적인 영역을 다져온 그이지만 작업장에 들어서면 언제나 처음 작업장에 들어설 때처럼 숙연해진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의 렌즈가 완성될 때까지는 그의 작업방은 수행납자들이 용맹정진하는 선방처럼 진지함으로 가득하다.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금강과 같은 집념으로 꽉 들어차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모든 사람들의 올바른 시각(정견)과 자연의 순리가 하나가 될 때 선의 극치를 맛볼수 있다고 말한다.

남달리 손재주가 출중했던 이씨는 재질이 강한 자수정을 갈고 닦아 렌즈를 만들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돌을 갈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티끌없는 깨끗한 세상 보여주기'에 일생을 바쳐온 것이다. 그래서 이씨는 돌을 하나의 생명체이자 자신의 친근한 벗으로 생각한다.

"돌은 오묘합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되고 산란하면 산란한대로, 고요하면 고요한대로 곧바로 표현하니까요. 항상 모든 욕망을 던져버린 무념무상의 경지에 들어야 올바른 물건(?)이 만들어집니다."

30여년동안 쉼없이 돌안경 만들기 외길 인생을 걸어 온 그는 어떤 예술이든지 그것에 임하는 작가의 마음이나 태도가 그대로 작품에 들어나는 법이라며 돌을 깎아 렌즈를 만들 때는 어느 때보다 진실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일반 유리보다 강도가 2배나 강한 자수정으로 수십 종류의 돌렌즈를 일일이 손끝으로 깎으려면 이러한 자세는 더욱 중요시되는 것이다.

"오늘같이 루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은 하루에도 몇번이고 이 작업장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모든 시름을 딛고 하나의 돌렌즈가 탄생되는 순간과 제 주인을 만났을 때의 환희심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습니다."

집중력 · 수행력 필요

온갖 망상들을 집어던지고 각고의 시련끝에 하나의 완성된 렌즈가 탄생했을 때는 그동안의 쌓인 모든 시련을 한순간에 잊게 한다고 그는 덧붙인다.

"돌렌즈를 만드는 사람이 자수정 속에 빠져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게다가 돈독한 신앙심까지 뒷받침된다면 돌과의 싸움은 그리 어렵지만 않습니다."

강도높은 자수정을 1.80㎜까지 정확하게 손끝으로 다듬어야하는 세밀함, 이것은 돌안경을 만드는 이씨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자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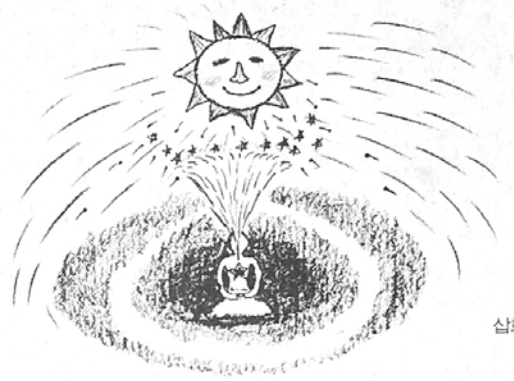
강도높은 자수정을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수십종류의 렌즈를 만들어 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씨는 강한 집중력과 수행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래서인지 이씨의 손과 눈은 언제나 세밀함, 정확함에 길들여져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씨를 장인으로 남아있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기도 하다.

"수행자는 수행자다워야 하고 장인은 장인다워야 합니다. 장인은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용맹정진할 수 있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년전부터 이씨는 틈틈히 염주(108염주)제작에 몰두하고 있다. 그가 불구류 제작을 시도한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현상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신행의 일환이다.

염주 한알 한알을 지성으로 다듬고 깎아내는 그의 모습은 흐트러지지 않고 정진하는 수행납자를 연상케한다.

김중근 기자



삽화 · 이기선

'채움 · 비움' 조율하는 생활해야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㊶

반야 (般若)

깨침의 슬기라야 생명력 있어

생명은 힘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뿌리도 생명의 힘을 빨아 올린다. 미세한 잔뿌리가 흙속의 자양분을 흡입하는 힘이 없다면 거목은 얼마가지 않아 말라 죽게 된다. 그렇듯 모든 자연에는 생명의 힘이 있어야 한다.

생명의 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힘의 작용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신비하다고 한다.

힘은 움직임이다. 가만히 있는 것은 힘이라 할 수 없다. 눈에 있으면 보는 힘, 입에 있으면 먹는 힘, 귀에는 듣는 힘, 발에는 걷는 힘, 이처럼 힘의 묘용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을만큼 많은 영역에 작용하고 있다.

자연은 힘의 보고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살아 있고, 움직이고, 또한 변이의 작용을 쉴새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변이란 옮겨가고 옮겨오는 모든 힘의 총체를 말한다. 변이없는 자연은 있을 수 없다. 자연은 부동한듯 하지만 무한한 힘을 대사하고 있다. 보내고 들이고 하는 힘의 작용을 보이지 않게 하니까 부동적으로 표현되지만 그저 이렇게 작용도 하고 있는 것이다.

힘을 바르게 선용해야

사람은 가장 큰 것도, 가장 작은 것도 볼 수 없다. 그저 눈에 들어오는 사물만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물들도 동적이면서 정적이다. 움직임이 밖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도 않는다.

그러나 힘의 왕래와 생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 힘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무성하다고 표현될 때와 쇠멸하였다고 할 때로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치우쳐 있는 힘은 위태롭고 불안하다. 힘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공부하여야 하고 그 논리에 의하여 실생활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다시 말하면 힘을 바르게 잘 선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힘의 선용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채움의 힘과 비움의 힘을 조율하여야 한다. 힘을 채우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면 충만할 수도 있다. 힘을 비우는 방향으로 가면 빈핍할 수도 있고 무력할 수도 있다. 너무 채우면 터질 것이고 너무 비우면 메말라 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채움과 비움을 슬기롭게 하여야 한다.

반야란 슬기를 의미한다. 이 슬기는 깨침으로 얻어진 슬기라서 생명의 힘을 한 가운데에 놓고 쓰는 것이다. 생명의 힘을 한쪽에 기울게 하면 왕성이 아니면 쇠잔이다. 그러나 생명의 힘을 한 가운데 두고 보면 생멸이 항존하게 된다. 충족과 허멸이 연속적으로 작용하기에 무한한 힘이 나온다.

반야는 빛이다. 빛은 열기운이 고차적인 작용을 하여서 발광하게 되는 것이다. 열의 힘이 줄어들면 빛이 나올 수 없다. 빛이 나오지 않는 열은 설익은 힘이다. 힘이 열이 되고 열이 빛이 되려면 충족과 허멸의 작용을 부단히 하여야 한다. 모든 허망함이 떨어져 나가고 맑고 아름다운 힘이 하나로 뭉쳐 움직여야 밝음의 힘이 솟구친다. 이 밝음의 힘이 깨침이다. 깨침에는 청정성만 있는 것이다.

무명을 갖고있기 때문

불교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침에 있다. 이 깨침은 항상 청정한 불빛을 들어내어야 한다. 청정한 불빛이 반야광(般若光)이요 여래광명이다. 반야광이나 여래광명은 하나로의 빛이다. 어둠과 밝음의 나누어짐이 아니다. 어둠도 밝음도 없는 그저 그러한 항광(恒光)이다.

우리의 주변에 아직까지 어둠과 밝음을 번갈아 가면서 사는 것은 인간이 무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무명 그것으로 채우는 힘과 비움의 힘으로 작동하고 사는 것은 항광을 구현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무명의 한계는 어디에 가도 삼도고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야광의 힘으로 채움과 비움을 계속하여도 그것은 항상 반야 그것으로 항존하는 것이다.

불교는 세속적인 눈금으로 자연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깨침과 슬기의 눈금으로 자연을 관하는 공부이다. 이러한 눈금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본래 광활하고 태평한 빛이기에 어느 허공, 은하계에 다다라 간다 해도 거기에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삼천대천은하계 허공계 무진한 세계에도 잡히지 않는 슬기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과 빛의 힘을 나투도록 반야광에 다가가는 공부가 급선무일 것이다.

● 부산공덕원 개원 6주년 기념

석용산 스님과 함께하는

열린마음 · 열린세상

석 용 산 스 님 강 연 및 찬 불 합 창

종교는 꼭 필요한 것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이며 말법시대의 신앙이라
일컬어지는 지장신앙의 실체는?
중국 구화산을 지장성지로 만든
김지장 등신불은 누구인가?
내일을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스님께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동참하시어 많은 가피 입으소서!

일시 : 불기 2539년 9월 13일(수) 오후 2시
장소 : KBS 부산홀

문의 : (051)625-2253~4 (용호동 부산은행 5층)

■ 주최 : 불교교육회관 부산공덕원
■ 후원 :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불교방송, 불교텔레비전, 대한불교신문, (주)천일고속, 동아의료원
■ 협찬 : 도서출판 고려원, 문학수첩, 시와 시학사, 대한기획

불교교육회관 부산공덕원 주지 석효선 합장

중국 명문 남경 중의학대학

박사과정연수

● 대 상 : 한의사, 한약사, 스님, 불자
● 기 간 : 8박 9일
● 수료증 : 박사과정 연수 수료증(침구 · 기공)
● 인 원 : 15명 이내
● 출발일 : 1995년 9월 19일(화요일)

남경중의약대학 : 중국남경 660-7129

서울사무소 : (02) 511-2026~8 / 팩스 : (02) 511-1080



한국고대사 문제연
오 순 제 소장

384년 중국 동진으로부터 백제에 처음 불교를 전한 인도승 마라난타(摩羅難陀)가 전한 불교는 중국식 불교가 아닌 순수한 인도 불교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고대사문제연구소 오순제소장은 최근 펴낸 〈한성백제사〉(집문당 刊)에 게재한 '백제불교에 대한 재고찰; 첫 발생지를 중심으로'란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마라난타는 백제왕이 친히 나가 맞을 정도의 비중있는 인물이었음에도 중국측 사서에는 전혀

"백제 불교는 인도서 전래"

나타나지 않고 있어, 그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활동한 인물이 아니라 중국을 경유해 곧바로 백제로 왔을 것이란 추정이다.

오소장은 "〈삼국사기〉에 침류왕 2년에 한산(漢山)에 절을 짓고 승려 10인을 두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마라난타가 온 지 반년도 안된 짧은 기간으로 그 사이에 창사(創寺), 도승(度僧) 등이 이뤄졌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라며 "성왕 4년(526)에 중국에서 수입된 율장의 결함을 보충키 위해 인도에 파견된 겸익의 인도구법여행 완수는 백제 불교가 인도에서 직수입된 불교라는 긍지와 자신의 나라가 불국토란 자신감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밝혔다.

불교사회복지 이론체계 미비

복지관 운영·법인 확산따른 학문적 뒷받침 절실

최근 교계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설립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등 사회복지법인 수와 시설 수가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 또한 불자들의 전반적인 복지의식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자원봉사와 각종 후원회가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불교사회복지 이론의 확립은 아직 요원한 상태로서 그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지난달 충격을 던져준 '소쩍새마을' 사건도 불교사회복지 이론의 미비와 불교복지사업의 비체계성에 기인했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이와관련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김용택교수는 "아직까지 불교사회복지학에 대한 개념정립이 명확치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인문과학에 속하는 불교학의 사상적 측면과 사회과학에 속하는 사회복지학의 방법론을 상호보완한 개념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불교사회복지사업의 체계화를 위한 이론정립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9일 조계사서 열린 불교복지 세미나 장면.

운영의 전문화 위해 필수…저서·논문 부족

김교수는 "불교학의 현대화를 통한 불교사회복지 이론의 정립은 현대 사회복지학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이라며 "불교복지 이론의 확립을 통해 복지사업을 위한 체계적인 행정, 다양한 재원 확보, 불교복지의 전문화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신섭중교수도 "불교사회복지를 불교의 측면에서 파악하는 경우와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탐구하는 입장과의 상이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불교사회복지는 그 학문의 성격과 학문영역의 독자성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불교사회복지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한 연구'로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불교사회복지 전공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혜숙씨는 "이제 불교사회복지는 종교적 자선사업의 수준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독자적인 학문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저서로는 일본 京都불교대에서 박사학위(불교사회복지전공)를 취득한 송산스님(중앙승가대 학장)의 〈불교복지 1: 사상과 사례〉·〈불교복지 2: 재난구제사〉(법수출판사 刊) 외에 일본 立正대 모리나가 마쓰노부(森永松信)교수의 〈불교사회복지학〉 등 번역서 5권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대학 석사학위논문은 △임종간호의 현황과 과제(김영희) △불교사회복지의 이론적 체계에 관한 연구(이동근) △불교사회복지의 이론적 배경:禪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하여(김융소) △불교사회복지론에 관한 기초적 연구(이혜숙) △조선시대 불교복지사업에 관한 연구(김갑영) 등 5편과 지난 91년 개설한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학전공 석사논문 10여편이 전부.

김재경 기자

계룡산 일대 절터·금석문 집중조사

'계룡산 지역의 유적…' 발간

(재)백제문화개발연구원(이사장 최원석)이 계룡산지역 불교유적을 포함한 유적전반을 조사한 〈계룡산지역의 유적과 유물〉을 펴냈다.

산학리 절터를 비롯 모두 28곳의 불교유적을 상세히 조사한 이 책은 선사유적, 관방유적, 요지(가마터), 기타유적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불교유적은 폐사지와 금석문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경주 '마애조상군' 관련 최민희씨 보고서 발표

지난해 말 발견됐던 경주시 배반동 소재 마애조상군(層崖彫像群)에 대한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신라문화동인회가 펴낸 〈천고〉 제58·59집에 게재된 최민희씨의 '경주 배반동 마애조상군'에 따르면 마애조상군에는 3층목탑 1기, 2체의 입상을 포함한 10체의 불상, 상반신이 절단된 마애불 3체 등이 새겨져 있다.

성품은 청정한데 왜 망상 있지요

문 육조스님의 게송에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랴'하는 구절이 있는 줄로 압니다.

성품은 본래부터 티끌조차 붙을 자리가 없다 하는데 어째서 번뇌망상이 끊이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김철수·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답 사람이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는다면 그게 목석이지 사람이겠습니까.

밖으로 보고 듣는게 많고 안으로도 이런저런 상념이 떠오르게 마련인데 그게 바로 공부의 훌륭한 재료들입니다.

그런 훌륭한 재료들을 두고 이건 망상이니 하지 말아야지, 이건 번뇌이니 버려야지 한다면 무엇으로 공부해 나가시겠습니까. 사람에겐 생각하는 능력이 있기에 성불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억겁을 두고 입력되고 그렇게 잠재해 있는 습들이 쉼없이 풀려 나오는 것이니 번뇌망상이다 규정짓기 이전에 발전의 요인이라고 보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번뇌가 곧 보리다라는 말씀의 뜻을 참구해 보세요.

지상상담 —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묻기보다 참구해 아는게 옳은지

문 '길을 묻는 이에게'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스님께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고 물어서 답을 구하기 보다는 스스로 의정을 들고 답을 구할 때까지 참구해 들어가는게 바른 공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동수·경기 양평군 용문면〉

답 처사님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방법에 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니 묻고 대답하는 것에 괘념치 마시기 바랍니다.

옛 말에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께 묻는 것은 공부 길을 묻는 것이지요. 마냥 묻기만해서야 되겠습니까만 스님네들은 세간을 여의고 몰락 맡긴채로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길 가는 요령을 일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길을 물어 알고나서 '이 길로 가면 된다'고 믿고 가는 것과 우왕좌왕, 두리번 두리번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묻는데 있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게 된대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비구니스님 상담에 의구심이…

문 독지의 한 사람으로서 본란을 관심있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우연히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분이 비구니스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비구니가 뭘 알아서?'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만 나중엔 생각을 바꿨습니다.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는 약사유리광 공덕경을 읽다가였습니다. 경의 말씀 중에 '날 밝은 날은 눈 뜬 자가 눈 먼 자의 안내자가 되고 어두운 밤에는 눈 먼 자가 도리어 눈 뜬 자의 길 안내자가 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듣고 싶습니다.

〈최희건·경기도 일산시 양촌마을〉

답 저도 그런 말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 비구니가 알면 얼마나 아느냐? 비구니는 성불할 수 없다하지 않느냐?고 제게 대놓고 물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때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뭐 대답을 안해도 그만입니다만 마음공부를 한다는 분에겐 답을 안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모습은 다를지언정 마음이야 어찌 다르겠습니까? 마음에도 남·여의 성별이 있습니까?'라고요.

생명의 근본이 다르지 않고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생활인들 다르겠습니까?

초기불교에서 비구니에겐 비구보다 더 많은 계율을 요구했고 가급적이면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의 사정이 여자들에겐 매우 나빠서 지독한 차별대우가 있었고 여자들은 그걸 참아야 했으니 마음에 많은 한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공부하기 어렵다 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모습이 다르다고 마음까지도 다르다면 어찌 실유불성(悉有佛性), 일체 만유는 다같은 불성의 나툼이라 했겠습니까?

만약 모습이 다르니 아는 것도 다르고 깨침에도 다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생각이 깨침의 장벽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공부는 바로 그러한 형상으로부터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몸으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말입니다.

제법무아(諸法無我). 도무지 '나'라고 이름할 게 없는데 남자, 여자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간의 대의적인 문제로 본다쳐도 산하대지는 만물을 길러내는 어머니 자리이고, 두두물물 생명있는 것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의 정혈을 빌어 태어납니다. 일체평등을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남·여에 차별을 두어 줄을 세워 놓으신 것은 아닙니다. 설혹 비구니가 어쩌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그 뿌리를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꽃 한 송이 풀 한 포기라도 내 스승이 아닌 것은 없습니다. 마음공부 하시는 분이라면 모두가 내 스승이니 비구니가 뭘 아느냐고 배척할 수 없는 도리가 있음을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직지사

제하당

世尊當入雪山中
(세존당입설산중)
一坐不知經六年
(일좌부지경육년)
因見明星云悟道
(인견명성운오도)
言詮消息遍三千
(언전소식편삼천)

鬼魏落落淨裡裏
(외외락락정리리)
獨步乾坤誰伴象
(독보건곤수반상)
若也山中逢子期
(약야산중봉자기)
豈將黃葉下山下
(기장황엽하산하)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높고 늠름한 본연의 세계
하늘과 땅 어디다 비기리
산중에서 그대를 만나고자 한다면
어찌 불경만 가지고 산아래로 내려가리

해설 직지사 제하당은 본래 대웅전 전방 우측에 위치해 있었다. 79년 5월에 설법전 동쪽으로 이전 개축됐는데 현재는 요사채로 쓰이고 있다. 정면 7칸 측면 6칸 퇴간 8칸의 ㄷ자형 건물이다.

이 제하당의 주련은 8구이지만 내용상 앞의 4구와 뒤의 4구는 별개의 구절들이다.

앞의 것은 부처님의 설산수행과 깨달음의 광대함을 찬탄한 고성염불의 한 구절이다. 뒤의 4구는 누구의 시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선수행을 하는 수행자에게 철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앞의 두 구절이 본래 무변의 진실세계를 설명하고 있다면 뒤의 두 구절은 자성을 깨우치려거든 경전을 통한 알음알이만 가지고 하산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끝줄의 황엽(黃葉)은 경전을 뜻하는 말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직지사 제하당의 주련.

經보다 禪수행의 중요성 강조

부처님께서 설산에 계실 때
한번 앉아 6년이 흘러감을
알지 못했네
밝은 별을 보고 도(道)를 깨달으시니
그 말씀 그 소식 삼천세계에 가득하여라

불교 전통의식 교육원 제 14기 학인 모집요강

불교전통의식으로는 불교음악으로서의 범패와 승무(바라춤, 착복무)를 들 수 있다.

범패란 전통불교음악을 지칭한 말로서 그 기원은 인도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범패음악의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날의 한국 寺院은 영산회상의 환희심을 잃은지 오래이며, 몇몇 특수사찰과 교육원에서 그 명맥만이 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梵唄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그 중요성이 실추되어 있는 바 불교계의 발전과 조상이 남기신 훌륭한 유산을 우리 후손에게 보다 잘 전승해 주었을때 그 종교적 문화적 가치성은 더욱 크다고 볼 것이다. 이에 본 교육원에서는 사라져 가는 범패의 가치성을 보다 높이고 계승 발전시키고저 제14기 전통의식 교육생을 모집하게 되었는바 전통의식에 관심이 있으신 스님 및 신도님께서는 방문하시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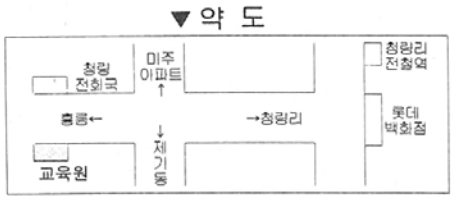
불교전통의식교육원 원장 合掌

■■■ 교육과정 ■■■

■기초과정 : 사찰(사중)생활에 필요한 기본의식 및 예불·불공
■기본과정 : 천도의식 49재의식 범패·범음 등 제반의식
■요잡과정 : 바라춤, 착복(나비춤) 태징치는 법 등
■강 사 :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이수자
임 명 수 원장 직강
■교육기간 : 기초과정3개월 기본과정 6개월
요잡바라 3개월
기초과정-오후5시-6시30분
기본반-오후7시-8시30분
■교육시간 : 주4회(월~금요일)
■접수일자 : 1995년 8월21일~9월16일
※(AM 10:00~20:00) 상담자 대기
■개 강 : 9월 18일

■자 격 : 종단에 구애없이 전통불교의식에 관심이 있으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스님 및 사찰관리자, 신도 모두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육원 발행)
사진 3매(반명함)
■문의전화 : (02)967-7093

▼약 도



1 3 0 - 0 1 4 •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청량리 전화국 건너편 3층)

☎ 967-7093

상담자 항시 대기

불교전통의식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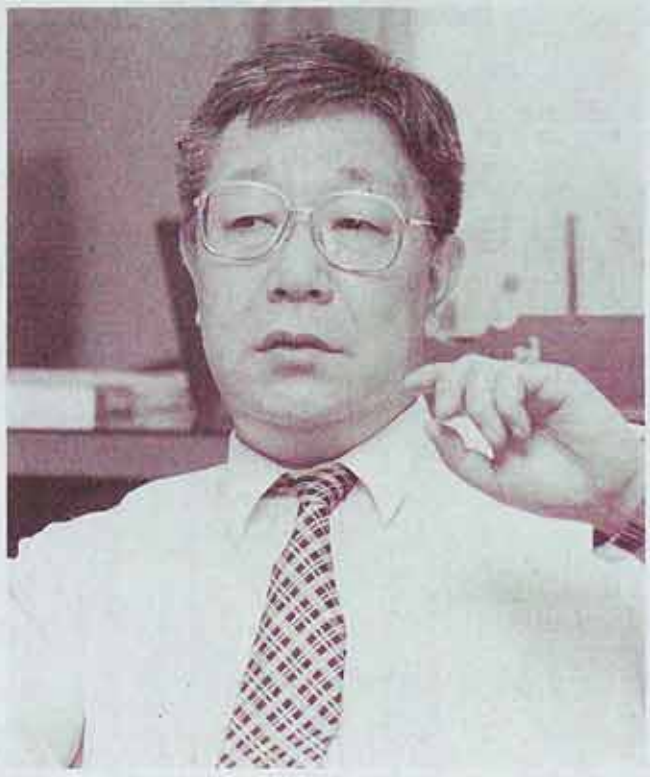
"설립정신 되새겨 불교대중화 확산"

20주년 맞는 대한불교 진흥원 권 오 현 사무국장

자난 75년, 국내 굴지의 사업가 고 장경호 거사가 사재 30억 6천만원을 내놓아 설립한 대한불교진흥원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진흥원은 불교중흥을 위해 각종단 및 신행단체의 사업을 지원하는등 한국불교사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진흥원의 살림을 맡고 있는 권오현 사무국장은 대원회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고 장경호거사가 발원한 대중불교운동에 앞장서 왔다.

진흥원 설립 20주년 기념행사 준비로 여념이 없는 권국장을 만나 진흥원의 발자취와 전망을 들었다.



수요 인터뷰

장경호거사 유지이어

-진흥원의 설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기념행사는 어떤것이 준비되고 있는지요.

▲본래 진흥원의 설립일자는 75년 8월 16일 입니다. 이해에 설립자인 장경호거사가 열반에 들어 오는 9월 17일 추모법회를 기해 기념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진흥원의 설립자인 장경호거사는 어떤 분이셨는지요.

▲장경호거사는 평생 불교중흥을 염원하셨던 분입니다. 거사는 생전에 "불교중흥이 민족의 얼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방송, 군포교, 학술, 교육, 출판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출판되는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불교와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관계를 조명해 놓아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진흥원은 일반단체나 개인이 하기어려운 굵직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일들을 추진했는지요.

▲진흥원은 한국의 불교중흥을 이룩하는 일에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단체운영비, 군포교 활성화, 세미나등에 총 1백43건을 지원했으며 불서보급으로 통일불교성전, 설법자료집, 한국불교총람, 계간 '다보'등 30여종 60만부를 발행 보급했습니다. 또한 불교방송지원, 다보수련원 건립, 불교문화센터 및 다보법회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교중흥 민족중흥' 방송국 설립·군포교 지원
복지타운·출판문화센터등 수익사업 병행추진

특히 3년간 준비해온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을 마무리짓고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갖게되어 뜻깊은 20주년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년은 강산이 두번 바뀌는 짧지않은 기간인데 이번에 역사를 정리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진흥원의 설립배경과 정신은 무엇입니까.

▲진흥원은 20년전 고 장경호거사가 당시 박정희대통령에게 불교중흥과 개혁을 위해 써달라는 요지의 권지와 함께 헌납한 정재를 바탕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구태회(진흥원 초대이사장) 당시 재무부장관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실무작업을 펼쳐 한달만에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진흥원은 설립자의 유지에따라 '불교중흥이 민족의 얼을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으로 방송, 군포교, 학술, 교육, 출판 등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설립 20주년을 기념해 출판되는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은 불교와 현대사회 전반에 걸친 관계를 조명해 놓아 기대가 큽니다. 이처럼 진흥원은 일반단체나 개인이 하기어려운 굵직한 일들을 해내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일들을 추진했는지요.

헛되이 쓸수 없는 정재

-진흥원의 실무책임자로 일을 하다보면 많은 단체나 개인의 지원요청을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진흥원이 불사를 지원하는 곳으로만 알려져 어려움도 많만찮을 텐데요.

▲사실 한달이면 수십건의 지원요구가 들어옵니다. 때로는 '말겨놓은 것을 달라는 식'으로 윽박지르는 경우도 있어 당혹할 때가 있습니다. 진흥원은 사업별로 전년도에 미리 예산심의를 마칩니다. 특별 사업도 수시로 이사회를 열어 결정합니다. 이런 점들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물론 불교중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에 대한 말이 나왔으니 이자리를 빌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란 누구나 아까운 것입니다. 진흥원은 평생 모은 것을 불교발전을 위해 내놓은 정재로 설립되어 10원한장 헛되이 쓰여서는 안됩니다. 진흥원의 지원으로 불사에 임하고 있는 불지나 단체는 진흥원 설립자의 유지를 생각하고 유지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진흥원은 많은 사업을 펼쳤고 한국불교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진흥원은 앞으로 사업을 계속 확대하기위해서는 수익사업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지원사업과 사업의 직접운영, 그리고 수익사업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불교전반에 걸친 장단기 사업 추진을 위해 불교발전연구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교수련원건립에 이어 종합복지타운을 추진할 것이며 출판 문화센터 대중불교확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준엽 기자

진흥원 20년

- 75년 7월7일 장경호거사 사재 30억 6천만원 헌납
- 75년 8월16일 법인설립(초대이사장 구태회)
- 76년 군법당건립등 불교진흥사업공식시작
- 78년 불교성전등 불서간행 보급시작
- 80년 2대 황산덕 이사장 취임 83년 도심선원, 공단선원개원
- 87년 불교방송개국 정부측에 요구
- 88년 다보회관 개관, 통일법요집 출판 89년 3대 장상문 이사장 취임
- 90년 불교방송개국 91년 계간 '다보' 창간
- 92년 불교종합수련원 착공, 2대 서돈각 이사장 취임
- 93년 통일불교성전, 설법지침서, 한국불교총람발행, 불교문화센터직영
- 94년 과산 다보수련원 법당 준공

나의 수행일기

김 병 조 〈코미디언〉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에는 어디든 사찰이 있다. 산사에는 우리 민족의 땀이 배인 진한 향취가 있고 선조들의 탁월한 지혜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미래를 밝게 해준다. 도시에서 분주히 살아가면서도 항상 부처님이 계시는 산사를 생각하면 마음은 녹찻물처럼 향기로워진다.

절은 부처님이 계신 엄숙한 곳이지만 평화로움 이면에는 치열하게 구도에 열중하는 스님들이 계셔서 나도 모르게 생활의 활력을 보충받는 것 같다.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참배를 올리고 나면 마음의 찌꺼기가 빨어진것 같아 절을 찾는 마음은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하나이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면 간단한 짐을 꾸리고 아내와 함께 며칠동안 산사를 돌아다니며 부처님께 참배하고 마음을 가다듬는다.

이번 여름에는 마이산 탑사와 자리산 대원사, 조계산의 선암사 송광사를 다녀왔다. 특히 이번에 처음 가본 순천 선암사에서는 삼 백양사가 른 자리로 남아 있다

아쉬웠지만 '민정당 사건'이 지역적인 감정 문제에까지 파급된 상황이어서 고향인 장성 백양사에는 갈 수가 없어서 서산 개심사를 찾았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법당에 들어가 1백 8배 정진을 하고 우연히 부처님 개금불사에도 동참하게 됐다.

자네에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부처님의 서기가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고 관세음보살님도 나타나셔서 물을 한바가지 떠서 마시라고 주셨다. 감로수 였는가 보다.

다음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 수 없는 새로운 생기가 돌았다.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일을 시작했다. 과거의 한생각을 떨쳐버리니 가뿐하게 일도 잘됐다.

절이 마음의 중심적 자주가 된 나는 시간

어떤 일이든 '관세음보살'로 시작

전국사찰 두루 참배…후배에게도 겸손 일러줘



3단으로 기단을 쌓은 특이한 가람배치가 웅장하게 느껴졌으며 원통각과 5조보살을 보아서인지 지금까지 짜릿함이 자리하고 있다. 사찰을 찾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경배와 문화관광의 복합적인 마음이 있지만 가면 갈수록 조용한 사찰이 없어지는 것 같아 늘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이렇게 절을 찾아다닌 6년 동안의 생활이 이제는 전국의 웬만한 사찰은 거의 돌아다니며 참배한 것 같다.

내가 본격적으로 절을 찾게 된 것은 별다른 뜻없이 참가하여 큰 절의를 준 '민정당 사건'을 겪고 온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면서부터이다. 세상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상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 돌파구를 찾고 있을 때 어머님 말씀이 귓가를 스쳤다.

어머님은 16세때 대가집 종손댁으로 시집을 왔는데 10년이 넘도록 손이 없었다. 그 무수한 세월 동안을 장성 백양사에 가서 부처님전에 기도정진 하였는데 그것도 10년만에 부처님 오신날 전날 내가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인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은 백양사쪽을 늘 바라보시곤 했는데 나에게 항상 화두처럼 주신 말씀이 '너의 정신적 고향은 백양사이니 백양사쪽을 볼 때마다 항상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인지 내 마음에서도 항상 백양사가 큰 자리로 남아 있다

아쉬웠지만 '민정당 사건'이 지역적인 감정 문제에까지 파급된 상황이어서 고향인 장성 백양사에는 갈 수가 없어서 서산 개심사를 찾았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법당에 들어가 1백 8배 정진을 하고 우연히 부처님 개금불사에도 동참하게 됐다.

자네에 잠이 들어 꿈을 꾸는데 부처님의 서기가 내 눈으로 들어온 것이 보이고 관세음보살님도 나타나셔서 물을 한바가지 떠서 마시라고 주셨다. 감로수 였는가 보다.

다음날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 수 없는 새로운 생기가 돌았다.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일을 시작했다. 과거의 한생각을 떨쳐버리니 가뿐하게 일도 잘됐다.

절이 마음의 중심적 자주가 된 나는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절을 찾고 한달에 한번은 삼각산 도선사 석불전에가서 가족 모두가 1백 8배 정진을 함께 한다. 그러다보니 가족관계도 화목해지고 아이들도 착하게 성장하는 것 같다.

절을 찾는 것과 함께 이제는 불자로서 부처님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다약간의 두려움이 밀려드는 공연 시작무렵이나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을 염송하고, 언제 어느곳에서나 시간만 나면 절을 찾는다. 불교방송에 갈 때도 절에 가는 마음으로 가니 더 빨리 가고 싶고 스튜디오에서도 절에 있다고 생각하니 방송도 잘되고 생활이 즐겁다. 언제나 부처님을 찾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라고 생각한다.

또 불교방송과는 개국과 더불어 인연을 맺고 있는데 개국일과 내 생일이 같은 것도 어떤 인연의 끈으로 맺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보빌딩 엘리베이터에 걸려있는 '금주의 법구' 한마디도 일주일을 청량하게 해준다.

방송국 코미디언실에 가서 후배들이 새로 들어오면 부처님의 가르침인 재행무상과 생로병사를 얘기한다.

최려한 직업일수록 인기가 없을 때를 생각하며 겸손하고 하심하라고 당부한다. 인기라는 것도 영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후배들에게 타이르며 나 또한 불자로서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세계正和를 촉구하는
正道(本性主義)通一 선포문

文明의 방향이 바로 잡히져야 한다.

심(령)적인 존재인 人間은 그 본성(본연한 自性)의 실상이 의식성임과 동시에 초의식성인 것이며, 이른바 世界라 함도 다름 아닌 각자의 몸을 포함한 우주적인 환경자체가 아니라 각자의 인식을 통한 의식의 차원(次元)세계인 피상적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인 초의식의 본원(本元)세계인 것이다.

초인간성이 본성인 인간들의 온전한 길도 다름 아닌 각자의 본성을 정각(正覺)하여 그 소질껏 발휘하는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초의식성이라야 영원불변한 보편타당성으로서 우주와도 일체가 되는 것이다.

본성을 정각한 진리체계만이 최고의 가치체계이자 절대신념체계로서 그 도덕성의 원천이자 진정한 종교체계인 것임이 명백하거늘, 현인류는 어찌하여 그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성상실의 타령들만 하고 있단 말인가!

각자의 본성이야말로 궁극의 실재자이고 우주의 제1원인자이자 중생의 본능인 것이며, 그 실상은 고요히 텅빈 령각성(靈覺性)으로서 무형무체하게 청정무구(無垢)하며 무시무종으로 불생불멸하면서 자재하게 능생중멸하는 자존자(自存者)이자 무아적 초월적인 무한생명성인 것이다.

그 본성면에서 비로소 모든 중생들이 동질성이며 절대의 평등성이며 진정한 자유성이며 최상의 안락성이며 유일한 존엄성이며 궁극의 주체성이자 내재적 초월성이기에 그 정지(正智), 만덕(萬德), 자비력의 구족성인 것이다.

그 누가 「초월자」가 저 높은 곳에 있다 하는가! 우리의 주(主)가 어찌 바깥에 따로 있다 하는가! 본성은 본연한 자존자(自存者)이거늘, 본성(불성)을 부여한 자가 어찌 따로 있을 수 있는가 말이다.

「창조주」를 망칭하여 인간들에게 군림하는 그 神을 포함한 우리 모든 태초의 한 얼들이 다같이 각자의 본성에 대한 불각(不覺)으로 말미암아 부질없이 바깥으로 구하는 망상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자아(自我)」로 전락되어 주·객, 음·양과 심·물, 자·타와 애·증, 선·악과 고·락, 생·사 등으로 나뉘어져 그 상대적인 온갖 모든 의식차원의 대립 갈등에서 지금껏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본성의 무한성을 정각한 경지에서라야만 비로소 모든 것이 둘이 아니게 되어 「하나가 일체(一切)요 개별이 보편이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성통(性通), 견성(見性), 솔성(率性)하여 그 「昭明人中天地一」, 「眞空妙有」, 「無極而太極」으로 다같이 聖者로 되는 正和세계로의 本元的인 대각성의 일대전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그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음주의 5계와 10계 정신도 그 인과의 보를 받지 않게 함은 물론이지만 본 목적은 바로 자비, 복덕, 청정, 성실, 지혜 등 본성의 덕을 해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며, 비록 증득된 차원이 다를지언정 유·불·선 3도의 공통성도 다름 아닌 이 본성인 것일진대 본성의 속성인 「초월성」을 지니지 않는 교(敎)란, 종교가 못 되는 것이다.

생명과 우주의 실상을 남김없이 정각했을 뿐 아니라 천차만별의 중생들이 오직 그 자업자득의 인과응보로 받게 되는 저 지옥고마저도 끝내 구제하시는 人天의 大導師이시고 중생의 慈父이시며 구세大悲尊이시자 우리들의 완전한 스승자이신 그 분들 이외에 그 강사, 공경해야 할 최상의 지표가 따로 있을 수 없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영원히 새로운 이 만고의 正道에 간절한 마음을 내지 못하고 있단 말인가!

거려여! 인류여! 모든 神들이여!

「자아」로 전락되어 있는 각자의 지말적인 그 모든 의식차원을 무아적인 本元으로 크게 영원히 돌리는 본성자각의 광복으로 그 거룩한 동질일체성에서 인간끼리는 물론, 人도 神도 다함께 진심으로 화경(和敬)되는 가운데 넉넉하고 신나는 대융화의 一元대도의 새文明세계를 이룩하지 않으려는가?

1. 각자의 무한생명성을 자신, 자각, 발휘할 따름이거늘, 그 무슨 경쟁, 투쟁이 있겠으며, 투쟁이 있다면, 자기와의 투쟁일 뿐인 것이므로, 그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등의 온갖 이념들과 모든 종교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모든 문제들에 있어 다같이 본성주의에 의한 자기보완과 자체광정(匡正)이 되어야 하며,

2. 이른바, 생물적인 「본능」은 본능이 아니라 오직 본연한 본성만이 참본능인 것이므로 자각 없는 자유와 일률적인 평등이란 악자유, 악평등일 뿐이며, 지 관능적, 유물적, 이기적인 향락추구는 비단 인과응보로 받게 되는 고통에 그치지 않고 청정한 본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면도 아울러 사무치게 깨달아 크게 참회하고 개심함이 있어야 하며,

3. 「심령주의」에 있어, 그 영혼의 령체(靈體)로 형성되어 있는 것도 역시 스스로 형상화된 「자아」에 불과한 것임을 각성하여 마땅히 무한성을 회복하여야 하며,

4. 불교에 있어, 3계(界)를 초탈하신 모든 「불세존」이 「비구」 신분 아닌 분이 없다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부처와 보살, 출가보살과 재가보살은 차별이 분명한 가운데 평등해야 하는 것이고, 「心佛及衆生 是三無差別」은 화엄경 한역의 잘못으로서 그 본뜻은 「부처와 중생이 다같이 마음으로 되어진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다는 것」이며, 원각경의 「本來成佛」의 대목도 다만 「본연한 불성(佛性)」이라는 뜻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교단은 모름지기 여법하게 6화경(和敬)법에 의하여 정화, 통합이 되어야 하며,

5. 기독교는 예수님의 13세 이후, 16년간에 걸친 인도방면 구도행각 발기의 티벳에서의 라마교(불교) 수행에 의한 「법신불」의 가피로 비로소 응분의 도력을 입게 된 행적 그대로를 공인(公認)하고 신행해야 할 것이거늘, 어찌하여 「구약서」의 그 「창조신」의 뿌리를 끊지 못한 채 그 「미움 아니면 사랑」 등의 양극생리의 원조(元祖)격인 잔투, 배타의 투쟁신의 도구되기를 애원해야만 하는가! 모든 기독교도들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 正道로 돌아와 종교적인 통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6. 유교는, 「중용」의 그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의 본지대로 궁극적인 재도(載度)에 치중해야 하거늘, 어찌 인간과 그 형동 등에 편착됨으로 인하여 도리어 부모와 스승들의 리고득락(離苦得樂) 내지는 중생제도에 미흡하게 되고 마는가!

7. 선(도)교에서는 「性命雙修 羽化登仙」의 무위자연으로 인간과 天仙 차원에 그처서는 가없는 중생제도에는 미흡하지 않는가!

8. 통일교에서는 그 주·객으로 전락된 차원에 불과한 세속적인 음, 양의 현상계에서 인간과 육계천(慾界天)에 아첨하게 되는 격에 그치지 말고 그 「신령계」를 넘는 본성계로 승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9. 증산도에서는 그 「4대종교의 정수를 뽑아 모은다」는 교지에 있어 그 종교적인 영원한 참된 자유와 최고의 행복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이상이 무엇이더란 말인가! 모든 령성자들이여! 다함께 각자의 덧 씌어 가 없는 그 한 점의 동체(同體) 대비력을 그지없이 발휘하셔지이다.

단기 4328년 중복절

대한민국 공주시 계룡동 산고 갑사 대자암내
인생관 바로 갖기 세계화 제창자 零暖 都月惺 謹白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27〉

保寧 勇禪師 示看經
(보령 용선사 시간경) ②

譬如夷狄之人 言語不通 飮食不同
비여이적지인 언어불통 음식불동
孰能達其智 通其欲
숙능달기지 통기욕
其或微解語語 立便調和矣
기혹미해호어 입편순화의
是以 習鑿齒 道安 以敢諂而伏之
시이 습착치 도안 이회해이복지
宗炳之輩 慧遠 以時禮而誘之
종뢰지배 혜원 이시례이유지
權無二 復禮 以識惑而誘之
권무이 복례 이변혹의유지
陸鴻漸 皎然 以詩式而友之
육홍점 교연 이시식이우지

비유하자면 저 오랑캐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고 음식이 같지 않은데
누가 능히 그 뜻·지혜에 다다를 수 있으며 그 하고자 함을 통하리오.
혹시 오랑캐 말을 조금이나마 안다면 그 자리에서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므로 습착치를 도안선사가 해학으로 승복케 했고 (운법사 무학십문⑥ 참조)
종뢰의 무리(중국 남송때 사람)를 혜원스님이 시문과 예악으로 이끌었으며
권무이(당나라 때 시인)를 복례라는 이가 변혹으로 이끌고 (권무이가 불경 가운데 열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니 복례가 십문변혹론을 지어 그에 답을 한 사례를 지칭함)
육홍점(당나라 선비)을 교연이란 스님이 시식이라는 저술로 벗하였다.

於戱 大法 下衰 去聖逾遠
어희 대법 하쇠 거성유원
被魔雖衆 謀道尤稀
피치수중 모도우희
競聲利 爲己能 示流通 爲兒戱
경성리 위기능 시유통 위아희
遂使法門 罕關 教網將頹
수사법문 한벽 교망장퇴

슬프도다 큰 법(불법)이 쇠해지는데 성인(부처) 가신지 더욱 멀어지누나.
먹물 옷 입은 이 비록 많으나 도를 꾀하는 이 더욱 드물도다.
명성과 이익을 다투는 일로 제 능력을 삼고 불법을 유통케 함에는 아이들 장난같이 하니
마침내 법문을 여는 이 매우 드물고 가르침의 그물은 장차 퇴락케 되는구나.

명성·이익을 위해 다투면 법문 못열어
닦고 실천하여 끝을 처음과 같이하라

實類後昆 克荷斯道
실뢰후곤 극하사도
汝曹 虛心聽法 潔己依師
여조 허심청법 결기의사
近期於立身揚名 遠冀於革凡成聖
근기어입신양명 원기어혁범성성
發揮像法 捨子而誰
발휘상법 사자이수

실로 후학에 의뢰할진대 능히 이 도를 떠매야 할 것이니
그대들은 마음 비우고 법을 듣고 몸을 깨끗히 해 스승에 의지하여

此皆不施他術 唯通外學
차개불시타술 유통외학
況乎儒道二教義理玄邈
황호유도이교의리현막
釋者旣精本業 何妨鑽極
석자기정본업 하방찬극
以廣見聞 勿滯於一方也
이광견문 물체어일방야

이런 예는 다 다른 재주를 부린게 아니라 오로지 외학에 통한 것이다.
하물며 유학과 도교 두 가르침의 뜻이 깊고도 넓으니
스님이 이미 본업(수행)에 오로지(정진) 하였으면 어찌 (이교를) 깊이 연구하는게 방해가 되리오
널리 보고 들음으로써 한 곳에만 걸리지 말지어다.

孤山圓法師 示學徒
(원산원법사 시학도) ①

故須修身踐言 愼終如始
고수수신천언 신종여시
勤爾學問 謹爾行藏
근이학문 근이행장
避惡友 如避虎狼 事良友 如事父母
피악우 여피호랑 사양우 여사부모
奉師盡禮 爲法忘軀
봉사진례 위법망구
有善 無自矜 起過 務速改
유선 무자긍 기과 무속개

고로 모름지기 몸을 닦고 말대로 실천하며 끝을 삼가하길 처음같이 하라
학문을 부지런히 배우고 나아가고(행) 물러 섬(장)에 삼가 할 것이니
나쁜 벗 피하기를 호랑이·이리 피하듯하고 어진 벗 섬기기를 부모 섬기듯 하며
스승 받듦에 예를 극진히 하고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으며
좋은 일에 스스로 자랑말고 허물이 드러나면 힘써서 바로 고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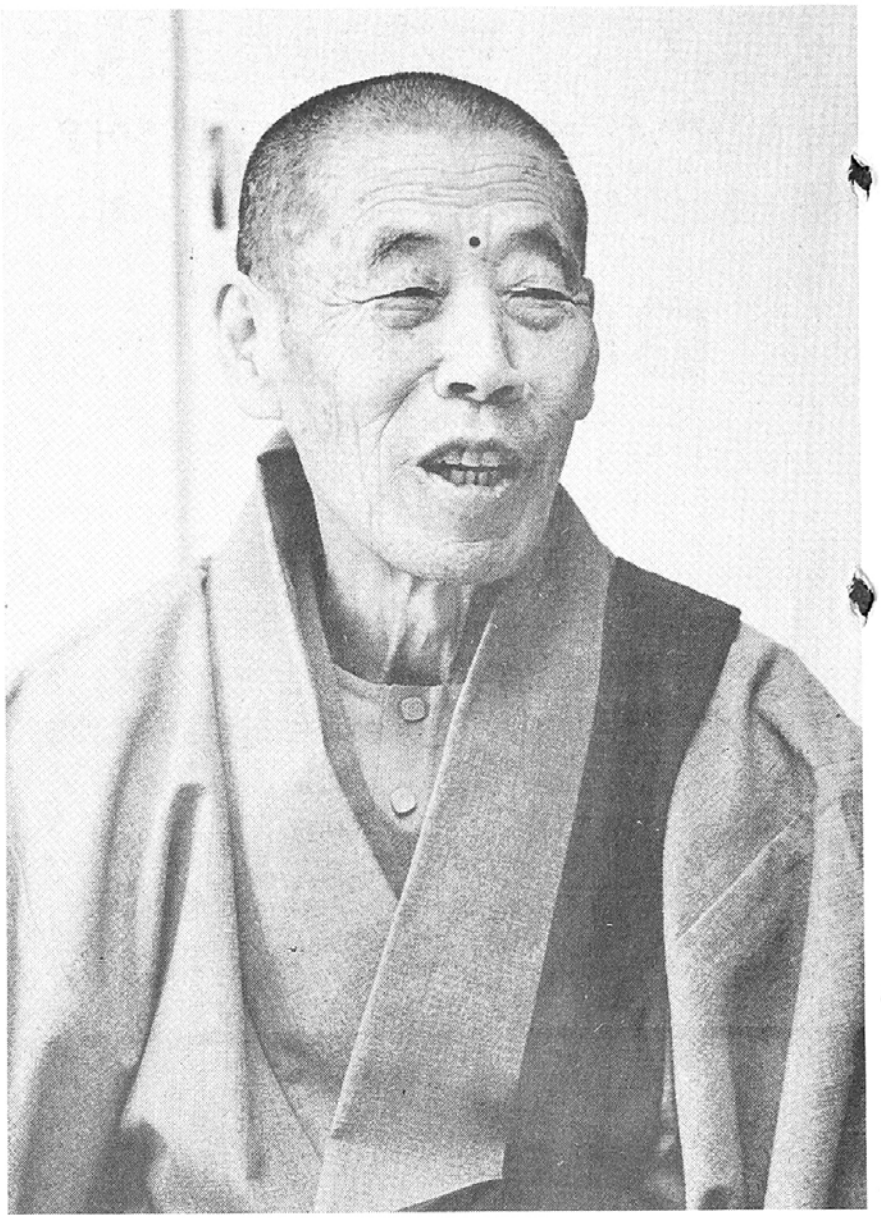
龍眼

가깝게는 입신양명을 기하되 멀게는 범속을 혁파해 선지식이 되길 기약하라.
상법의 발휘엔 (상법시대에 법을 드러내게 하자면) 그대를 제끼고 누가 있으랴.

지상법석

"신심크면 의심도 크니

범룡스님 〈문경 봉암사 조실〉



약력
- 1914년 평북 맹산군 生
- 1936년 금강산 유점사에서 출가
- 1938년 만허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77년부터 팔공산 비로암에 주석
- 1994년 11월25일 봉암사 조실 취임

요즘에는 경전을 한글로 번역해 놓아 많은 이들이 부처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좋더군요. 그런 반면 사람들이 법을 가볍게 보는 생각도 많아진 것 같아요. 경전이 대부분 번역되니 누구나 보게 되고 방송 카세트 책 신문 잡지 등이 많이 나와 법문이 너무 흔해요.

무엇이든지 흔하면 천해지고 가난한 생각도 없어지고 다 들어서 배가 불러버려요. 참선 안해도 다 도통한 것 같고요.

종지(宗旨)도 깊은데 들어가려면 자기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머리로 헤아려 보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부하지 않아도 풍부히 먹고 살 수 있으니 수행자들이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한 것 같군요.

요즘은 물질이 풍부해서 없으면 불편을 느껴요. 하지만 그러고는 공부가 된다고 보질 않아요. 너무 배가 부르니 공부할 마음이 나겠습니까. 한 쪽이 비어야 공부가 되는데….

지금와서 부처님이 왜 걸식했나 생각해 보니 이해가 가요. 걸식해야 공부가 되겠습디다. 하루에 한번 먹고 앉았으니 더 먹을 생각없고 다음에 죽이 생길런지 밥이 생길런지 모르고 그저 참선만 하고 있으니 공부가 되지요.

"宗旨도 깊은데 들어가려면 자기 고민에 철저해야 하는데 머리로만 헤아려보고 맙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중공양이 자주 들어오는데 며칠날 공양 들어올 것이 다 알려지고 옆에서 칼 도마 소리에 음식 냄새 맡고 있으니 공부가 되겠소. 선방하고 식당하고는 멀어야 해요. 걸식은 못할망정 아침먹고 점심에 무엇이 들어오는지 몰라야 해요.

글쎄 '먹는 참선' 하고 있으니 공부가 될 턱이 없지요. 그러서 나는 참선 이야기 하기도 싫어요. 더군다나 요즘 사람은 나보다 법문도 더 많이 듣고 책도 더 많이 보아 다른데 가선 다 법문하고 있는데 내가 더 할 얘기가 따로 있겠습니까.

옛날에는 그저 걸당하나 메고 어느 선지식이 선지(禪旨)에 밝다, 화엄경에 밝다 하면 찾아가서 공부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많이 쇠퇴했습니다.

보기는 많이 보고 듣기도 많이 듣지만 다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불법이 일미(一味)인 줄 모르고 초기불교를 소승으로 부정하는 이도 있고, 초기불교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사람은 대승비불설(大乘非佛說)이라고 부정하기도 한답니다. 여여(如如)한 부처님 마음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 내려는 의지가 태산같지 않고서야 '이거다 저거다' 분별하는 망상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글쎄 세상이 자주 변하니 옛날식으로만 할 수 없겠지요. 하지만 중요한 건 소승이건 대승이건 참선이든 모두가 부처님 말씀인데 쉬지 않고 계속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열심히 안하는 거예요. 뭐든지 신심껏 하면 되는데….

그래, 저만 부지런하면 어느시대나 공부는 할 수 있어요. 괜히 공부하기 싫으니까 시대 탓만 하지요. 지금은 어느 때 보다 공부하기가 좋은 환경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건은 좋은데 유혹이 많다고들 하지만 유혹은 자기가 극복해야지. 다 자기가 약해서 그런거예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회서스님은 파초만조를 심고 파초 잎을 따다가 거기에 글씨를 써서 초서로서는 중국 최고가 되었을 정도예요. 왕희지가 이름이 높다 하지만 초서로서는 그를 못따라 갔지요. 파초 잎에 글씨를 써 천하명필이 되었는데 지금은 종이가 얼마나 흔합니까. 자기가 성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언젠가 보광사 조실 정일스님이 망월사에서 천일기도 했던 얘기를 하시던데 참 대단했더군요. 천일기도 중에 병이 나서 먹지도 못하고 기운도 없는데, 대중은 내쫓으라고 하는 등의 수모를 겪었다고 해요. 그럼에도 굳센 인욕으로 다 참고 지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참는 것을 말한다면 옛 스님들을

월간 대중불교 9월호



정법의 눈
쇠북소리 미움의 정치 / 정경희
특집 20주기 추모특집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삶과 원력/이용림
특집기획 우리 속의 왜색문화
'우리' 만화를 위한 변호 / 정준영
화투 속에 담긴 부끄러운 역사 / 박영하
개발의 빈곤과 수입의 과잉 / 김남석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생명의 모태, 바다가 죽는다 / 성낙진

오늘의 눈으로 읽는 전통문화
얼과 문화 경주남산의 감실 부처/김효형·김성철
폐사지를 찾아서
강화 봉은사지 / 김상영·최태선
불교와 민속 불교와 꼭두각시놀이/김종대
전통과 오늘 사이
함께 사는 사회의 불가명절/서동석

오늘 여기에서 말씀대로 살기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건축사학자 신영훈 씨 / 김희균
수행으로 가는 길(6)/삼성각
바른 기도와 발원 / 이제열
생활불교, 어떻게 할 것인가(8)
대승의 꽃, 보시 바라밀 / 용타
교리산책/업(9) 정업과 부정업 / 정승석
에세이 보살불교(9)/지장보살(2)
지옥은 실존이다 / 일지
나의 수행담
물러설 수 없는 깨침의 세계로 / 대원성
스님께 듣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곧 극락이지요/태원·김희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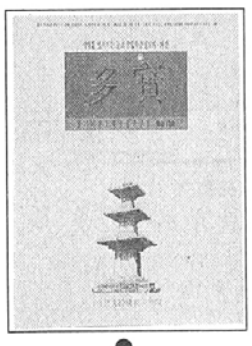
일상을 깨우는 산문들
수행길의 이런 도반
푸른 대쪽 같은 청화 스님 / 효림
큰스님의 그늘
양 다리 밑에 하늘이 있고/정복주
포교당 일기 부처님의 다이어트 법 / 원욱
한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정복주·이시윤·정춘석

해외 불교 읽기
환생의 나라, 티벳(3) 영성과 비극의 나라/김신정
모스크바의 원불교 한글학교
버려진 땅에서 일어선 고려인을 위하여/김희균
봉주우르, 길상 토요 전각교실 / 지묵

뻗어나가는 불교
포교의 현장 불교생활문화 터전 닦는 노원구 법륜왕사 / 오경숙
신행단체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 산해원지부 / 황응수

정기구독신청은
(02)773-5731, 754-1614

계간《多寶》가 더욱 새로워졌습니다



불교계 유일한 종합 학술정보지 계간 〈多寶〉가
이번 호(통권 제15호)부터 더욱 알찬 내용으로 선보입니다.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불교와 현실을 하나로 잇기 위해 발행되고 있는 〈多寶〉는 한 걸음 나아가 더욱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자 다른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해외에서 발표된 각종 학술 논문 및 집중 기획물을 대폭 보강하였으며 편집형태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치 있는 문서포교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계간 〈多寶〉를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정기구독 신청안내
구독료 1년 (4호간) 20,000원
은행구좌번호
국민은행 827-25-0006-047 (재) 대한불교진흥원
외환은행 189-13-02685-0 (재) 대한불교진흥원
우체국 012245-0090499-11 (재) 대한불교진흥원
농협 069-01-197161 (재) 대한불교진흥원
*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계간《多寶》합본호 보급안내
불교계의 유일한 불교종합학술정보 잡지,
계간 〈多寶〉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1992년 3월 1일 창간호부터 1994년 12월 1일
제12호까지 3년간 발행된 잡지를 총 3권으로
묶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합본호로 보급합니다.
합본 1호 (1992년 발행)
합본 2호 (1993년 발행)
합본 3호 (1994년 발행)
* 보급가:
각 권당 20,000원



• 발행/보급 :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계간《多寶》(전화) 02-719-1855

지상법석 ★

깨달음의 열매 익어가네"

"물질이 너무 풍부하면 공부가 안돼요 배가 부르니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 부처님이 왜 걸식했나를 알아야 합니다"

따를 수가 없지요.

옛날 스님들은 서울에 들어 가려면 한 일년 머리 기르고 솔잎 상투를 틀고 들어 갔어요. 옛날 어느 스님이 솔잎 상투를 틀고 4대문 중의 어느 한 대문을 막 들어 가려고 하는데 문밖에 있던 어떤 딴 스님이 그분을 알아보고 할 얘기가 있어 불러야 겠는데, "아무개 스님"하면 정체가 드러날 테니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 얼핏 생각나서 소리친 것이 "종광사만리(鍾廣寺萬里)"라 했다 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 말을 몰라도 스님들은 그 말을 다 알아 듣거든요. 그래 솔잎 상투를 틀고 문안으로 들어가려던 스님이 도로 나와 얘기를 하고 들어 갔다더군요.

련소엔 유점사 월정사 건봉사 등 강원지역 3개 본사에서 보낸 학인 30명이 공부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원래 한 1년씩 공부하라는 건데 유점사엔 중이 부족했기 때문에 난 2년을 넘게 살았지요. 처음엔 벌망경을 읽으라 합디다. 그리곤 금강경을 공부했지요.

그때 상원사에선 한암스님이 〈화엄경〉을 강연하셨어요. 탄허스님도 거기서 배웠지요. 그땐 책이 없으니까 아침녘에 조그만 방에 빙 둘러앉아 탄허스님이 그 전날 토를 달고 연구해서 새기는 것을 대중은 듣는거지요.

아침 5시에 공양을 하고 7시쯤 대중이 한 자리에 모이면 탄허스님이 경전구절을 차례로 새겨주셨어요. 혹 의심나는 내용이 있으면 묻고 그 물음에 한암스님이 답을 해주곤 했지요. 바로 봐도 모르는데 거꾸로 놓은 책을 보고 새기는 것을 대중은 듣는데 얼마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화엄경인데 책이 없어서 중국에 주문을 해서 공부를 했어요. 책 하나 놓고 빙 둘러앉아 역시 탄허스님이 새기고 우리는 듣는데, 망상이 날 때는 그것도 못들고 그저 일심으로 들어야 들는 거지요.

그 당시에 나같은 젊은 사람은 〈화엄경〉 염송 책을 갖지는 못했지요. 큰 절이나 그 책이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큰스님들이 더러 갖고 있었던 형편이었고 우리는 감히 달라고 부탁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지금 모두 돌아가신 것 같군요….

그땐 선지식이 어디에 계시다는 소리만 들으면 천리를 마다않고 찾아갔어요. 교통이나 좋았나. 늘 걸어다녔지. 아마 걸어서 남북한을 두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한바퀴 도는데 한 10년 걸리거든.

당시는 남방의 지리산, 동방의 금강산, 서방의 구월산, 북방의 묘향산이라고 해서 이곳 4산에 방부를 튼 수좌라야 알아주었습니다. 이곳을 빼놓지 않고 다니신 분은 파계사의 고송스님과 나 뿐일거예요.

오대산에서 공부를 마치고 선방을 돌아다니다 보니 강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던중 지금은 고인이 된 이종익박사가 일본 경도의 가네자와 문고에서 〈화엄경절요〉를 베껴 송광사로 보냈다는 소문을 듣고 송광사로 달려갔지요. 그것이 인연이 돼 화엄경에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것이 교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랄 수 있지요.

당시 화엄경절요를 일일이 베껴 다시 한암스님께 가서 토를 달고 공부를 했어요.

여름엔 농사 짓고, 또 주지라고 일보러 다니다보니 겨울에만 토를 다는데 토다는 데만 한 이태 걸렸지요.

토를 달고 그걸 갖다 줄까 말까 하다 누가 보나 마찬가지다 싶어 여지껏 그걸 가지고 있다가 몇년전에 그걸 영인해 돌리고 길겁니다.

글쎄, 깨달았다고들 하는데 무엇을 알았는지…. 아무튼 선을 잘만 하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은 근기(根機)가 생각 밖으로 얕은것 같아요. 생각한 것을 끝까지 밀어 부치는 지속성이 부족해요….

옛 스님은 법문 하나 들으려고 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밥도 굶고 찬 데에서 자면서까지 가서 신심(信心)으로 물으니 공부가 되었지요. 신심하나 갖고 나니 딴 생각이 날 턱도 없지요. 그렇게 간절하게 와서 "부처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 "마삼근(麻三斤)"이라 대답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간절한 의심덩어리를 기어이 풀수 있을거라고 믿었던 마음이 첫마디에 딱 막히니 참선이 되지. 지금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차타고 봉 가서 화두 하나 일러주시오 해서 '마삼근'하는데 무슨 의심이 있겠습니까.

"신심이 십분 있으면 의심이 십분 있고, 의심이 십분 있으면 깨달음이 십분 있다(信有十分 疑有十分, 疑有十分 悟有十分)"고 했는데 대부분의 요즘 사람은 신심이 2~3분이나 되는 것 같아. 믿음이 없으니

'이거다 저거다' 분별 말고 큰 돌이 닳듯이 공부해야

"옛스님은 법문하나 들으려고 천리길 마다않고 노상침식하며 신심으로 물으니 공부가 되었지요 신심없는 화두는 바로 死句입니다"

옛적에 사미계 받을 때는 이 말을 일러 주었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에오.

가로 세로가 4만리나 되는 돌이 있는데 백년에 한번씩 지나가는 과객의 가사 꼬리에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지는 것이 1겁인데 계를 받을 때는 누구에게나 "네가 이 계를 받고 파계하게 되면 이 종광사만리 돌에 떨어져 그 돌이 다 닳아 없어져야 나올 수 있다"고 일러 주었던 것이지요.

내가 살아온 옛 이야기를 참고 삼아 해볼까요.

산중지산(山中之山)이라. 대동강 상류의 맹산이란 곳이 내 고향입니다. 이름 만큼이나 산세가 험했지요. 옛날엔 철석문이라 불렀어요. 그런 산골에 나서 거기서 죽지 않고 이렇게 뛰쳐 나온게 다행이지요. 우리 집안은 농사꾼 집안이었는데 나는 겨우 보통학교(국민학교)를 다녔을 뿐입니다. 10리나 떨어진 학교를 열심히도 다녔어요.

출가는 그러니까 23살때 금강산에서 했지요. 유점사에서 만허스님을 은사스님으로 모시고 중이 되었어요.

당시 금강산 유점사에는 염불방 선방 강당이 다 있었어요. 연화사가 염불방이었고 수원당이 강원이었고 그랬습니다. 대중스님은 한 30명 남짓되었던 것으로 기억나요.

당시 오대산 상원사엔 '승려수련소'가 있었습니다. 군대로 치면 혼련소격이지. 이 수

있어요. 한암스님이 후학을 위해 토를 달아 놓은 것인데, 나는 언제까지 살지 누가 알아요.

옛날 젊은 스님들은 참선하려고 걸망지고 다녔지만 요즘 젊은 스님들은 학교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 학문을 해도 수행을 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너무 방황을 많이 하는 것 같군요. 선·교가 조화를 이뤄야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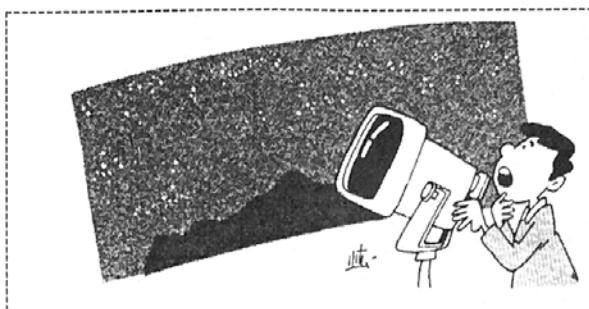
시대가 멀어질수록 선과 교를 겸비하도록 제자를 가르쳐야 해요. 또 선의 깨달음이라는 것도 경에서 밝힌 여실지견(如實之見)과 맞는가를 살펴 인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법의 증심에 혼란이 생

의심이 없을 것이고, 의심이 없으니 깨달음이 있겠소. 그러니 신심을 크게 내야해요. 큰 신심이 큰 의심을 부르고 그 의심이 열매같이 무르익어 '탁' 터질때가 바로 한소식이 오는 순간 아니겠어요.

다만 신심을 투철히 해야해요. 신심이 없는 의심은 소용이 없어. 신심이 없는 화두는 바로 사구(死句)라, 화두를 일러주는 사람도 문제예요. 화두를 내리는데 '어째 무엇이라 했는가' 하거든. '어째'가 왜 나오나. 그냥 '무엇인가' 해야지.

조주스님이 살아계시다 생각하고 조주스님께 직접 화두를 받아야 해요.

모두 공연한 소리야. 부디 잘 닦아요….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38

양 형 진

삼천대천세계

경전에는 삼천대천세계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아함경이나 구사론, 법화경, 대지도론 등 여러 곳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하나의 소천 세계(小千世界)에는 천의 태양, 천의 달, 천의 염파제, 천의 위타니, 천의 울달과 월, 천의 불파제, 천의 수미산, 천의 사천왕, 천의 장소, 천의 삼십삼천, 천의 야마천, 천의 도솔타천, 천의 화자재천, 천의 대범천이 있다. 이 소천 세계가 천이 모여 이천중천세계(二天中天世界)를 이룬다. 이 이천중천세계 천이 모인 것을 삼천대천세계(三千大天世界)라고 한다

처음 보는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 만큼 복잡한 설명이라고 하겠다. 설마 우리가 사는 우주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기야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누구나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현대 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우주는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 보자.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자. 지구는 반경이 6,400km쯤 되는 작은 천체로서 태양에서 4번째로 가까이 있는 혹성이다. 태양계에는 9개의 커다란 혹성이 있고 각각의 혹성 주위에 위성이 있으며 또한 10만개 정도의 소혹성들이 존재한다. 태양은 지구에서 1억5천만km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빛으로는 약 8분 걸리는 거리에 있다. 이 거리를 만약 시속 100km 의 자동차로 쉬지 않고 달린다면 170여년 걸리게 된다. 제일 바깥에 있는 혹성인 명왕성 까지의 거리는 60억km 정도 되며, 빛으로 5시간 정도 걸린다. 태양은 수소를 헬륨으로 바꾸는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 빛을 발하게 되는 데 이와 같은 천체를 우리는 항성 혹은 별이라고 부른다.

빛이 1년 걸려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며 이는 약 10조km에 해당한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알파센토리로서 태양에서 4.3 광년 거리에 있다.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포함하는 별의 집단을 '우리 은하'라고 하자. 우리은하 안에는 태양을 비롯하여 약 3천억 개의 별이 휘감긴 원판 모형의 배열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별과 별 사이의 평균 거리는 대략 5광년이다. 우리은하의 반지름은 약 5만 광년 정도 되며, 태양은 그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안드로메다은하는 우리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이며 약 200만년 거리에 있다. 우리 육안으로 관측 가능한 것은 우리 은하 내의 별과 안드로메다은하 그리고 마젤란성운 뿐이다. 이 셋을 포함하여 20여 개의 주변 은하가 하나의 지역군을 형성하고 있다. 이 우리 지역군에서 6천만 광년 정도 떨어진 위치에는 버고은하단이 있으며 이 안에는 약 2천5백개 정도의 은하가 포함되어 있다. 버고은하단은 다시 버고초은하단의 일부가 되며, 버고초은하단의 근처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큰 코마초은하단이 존재한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주변 우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대략 100억 광년 정도이며, 이 영역 안에는 약 1000억개 정도의 은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관측 가능한 우주 크기는 약 1백억광년

부처님 2500년전 이미 은하계 존재 밝혀

이것이 현대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삼천대천세계이다. 아직까지 우리는 얼마만큼의 별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보이는 별 이외에 또한 안 보이는 물질이 우주 안에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그러므로 삼천대천세계와 현대과학이 이해하는 세계의 별의 수를 비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어쨌건 이 두 세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크다는 면에서는 일치한다.

물론 불교에서 말하는 삼천대천세계라는 세계상이 현대 과학이 파악하고 있는 우주관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불교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숫자가 크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부파불교의 실유론적 사유 방식의 일면에 접근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런 관측 기구도 없던 2500년 전에, 보통 사람이 들으면 허황되기 짝이 없는 듯한 세계상이 설해졌었고, 그 세계상은 첨단 관측 기구를 동원한 현대 과학에 와서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부처님의 설법에 한 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고려대 교수·물리학과〉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활천당 한약방
(대구 약전골목 중간)
한약의 명소 40년 전통 간염 간경화증 상담 요함
■ 대구 중앙시 중구 남성로 86-1 (053-252-8274)

법화경 강좌
강사 최공덕 스님
문의전화
부산:645-6224
대구:952-8711

불교서적의 모든 것
불서 총판 윤주사
• 종로구 청진동 6번지
• TEL (02) 720-9372~3
• FAX (02) 723-064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지방수련장 상담 환영)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735-6795·6796
팩스 (02)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 해 창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 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유풍B/D (을지로 2가)
전화:(02)266-2629, 404-9521 팩스:(02)266-2679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승도인쇄 스티커 전문
불심과 공익정신으로 정성을 다해 제작합니다
문의처:(02)273-1239
대표 이 강 화 합장

참불자, 도반을 모십니다
불교에 관계된 일이나, 포교당으로 쓰실 분에 한해 아래 건물을 임대해 드리고져 합니다

건물주소 서울시 종로구 부암동 218-2호
대지 70평 / 건평 40평 지하 1층, 지상 4층 (현대식 건물)
공간 사용은 사용자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연락처 (02) 745-2511
395-9193
369-2560 (주인 직접 상담)


72세 할머니가 본 제도를 이용하여 2년만에 중졸·고졸과정을 거뜬히 마쳤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학업의 기회를 놓치신 분을 위하여 학원에 가지않고 가정에서 졸업장을…
한글반 회원모집중
년2회실시 4월·8월 검정고시 국졸·중졸·고졸
⊙ 자신감을 갖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합격의 길을 안내합니다.

국교 졸업과정	한글반·재수생·직장인·주부반
중학 졸업과정	⊙ 쉽게 풀이된 해설「강의해설교재」
고교 졸업과정	⊙ 학교수업식「강의 녹음」학습
대학 졸업과정	⊙ 철저한 1:1「담임 관리제」
	※ 한글 속성 1개월 쉽게 터득 가능

축 신영희(72세, 할머니):中·高과정(24개월)
박순희(45세, 주부):中과정(5개월)
이상수(39세, 직장인):中·高·大과정(36개월)

■ 특전 : 합격보장 총정리문제집 제공
95년전원졸업목표➡(영·수)「비디오가정교사」(특별제공 1천만원상당)
철저한 학습관리! 전화접수(비밀보장 PM 9:00)
기초(영어,수학)가 약한 분을 위한 별도 해설집 제공

◆ 저는 어려운 가정에서 국민학교를 2학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사회에 나와서는 두고두고 학력차이로 인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마침 대한교육평가원이 노크하여 94년 4월 4일에 등록했고 약 두 달후인 5월 21일에 국민학교 졸업과정 시험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다시 중학교 과정의 공부를 시작하여 3개월후인 8월 19일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희망에 차서 고등학교 졸업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발전하도록 힘이 되어준 대한교육평가원에 감사드리며 부족하나마 저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격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최경일(남, 27세) 드림 —

학사학위취득전문교육
대한교육평가원
우110-410 서울 종로구 인의동 해운황만청별관 2층 213호
상담전화(비밀보장) (저녁 9:00까지 접수) 02)766—9090
(수신자 부담) 크로바써비스 080—023—4600

고은 불교 대하소설



42

선(善)은 선이 아니다

남각과 그의 동행자는 초열지옥에 이르렀다. 벌써부터 몸뚱어리가 마구 그 뜨거운 열로 말미암아 찍찍찌직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다 타버리고 마는 일이 없다. 아무리 타고 있어도 그 타는 일이 언제까지나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몸이 타는 고통은 타고난 뒤의 잿더미와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나 뜨거운 기름방울을 튀기며 지속되는 것이었다.

이제는 "앗 뜨거워" "앗 뜨거워" 따위의 말도 나올 수 없었다. 오직 개나 돼지가 맞아죽을 때와도 다를 바 없는 짐승 같은 소리였다.

남각의 입에서도 이런 짐승의 최후 보다 더 처절한 절규를 이어가다가 그 절규조차 막히다가하고 있었다. 그의 동행자도 데굴데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러대다가 말다가 하고 있었다.

이런 뜨거운 열 속의 고통 때문에 그들의 몸은 시꺼멓게 타는 일이 지속됨으로써 마치 밤을 구워낸 숯처럼 되었으나 차라리 그들이 바라는 숯의 무감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영원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뜨거움 속의 타는 몸은 어떤 마취나 치료가 불가능한 현재로서 거기에는 어떤 과거도 미래도 보이지 않고 있었다.

"악!"

하고 남각이 저도 모르게 나뒹굴다가 어느 불구덩이에 굴러졌다. 그 불구덩이에서는 파란 불빛으로 된 불덩어리가 솟아나오고 있었다.

벌써 그의 몸이 본격적으로 타들어가는 소리가 나며 고통이 한층 더 길어졌다. 이때는 비명조차 나올 수 없었다.

그때 남각은 그 불가피한 고통 가운데서 불현듯 생각하였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스스로 창하였던가. 왜 내가 이런 고통의 업보를 받아야 하였던가…."

"악! 악업! 이 따위 업보가 무엇인가?"

따라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현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선업(善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고통속의 기적과도 같은 정신을 통해서 고통과 함께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선도 그 선 안에는 수많은 악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분열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서 선의 반대인 악도 그것이 극악(極惡)의 세계조차 악의 힘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지옥은 언젠가 고통의 끝 이어갈 지혜의 원소 살아있는 곳

그의 고통이 한없는 것이어서 어느 누구를 고통이 수그러드는 때가 없었으나 이때 그 한없는 고통 가운데서 그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찰나가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이런 지옥의 고통에 떨어질 악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니 고통에 대해서 아무 비명을 질러대며 나뒹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통에 일치함으로서 고통 자체가 되는 지혜의 비밀스러운 첫걸음에도 선듯 다가선 것이었다.

그때 "악!" 하고 비명을 질러대기보다 그 자신이 지은 지옥중생의 악업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그것은 이런 지옥의 고통에 떨어질 악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새삼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니 고통에 대해서 아무 비명을 질러대며 나뒹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통에 일치함으로서 고통 자체가 되는 지혜의 비밀스러운 첫걸음에도 선듯 다가선 것이었다.

그때 "악!" 하고 비명을 질러대기보다 그 자신이 지은 지옥중생의 악업 자체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악! 악업! 이 따위 업보가 무엇인가?"

따라서 선(善)이란 무엇인가. 현상계에 태어날 수 있는 선업(善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도 고통속의 기적과도 같은 정신을 통해서 고통과 함께 이어갈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을 통해서 선도 그 선 안에는 수많은 악의 세포들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분열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 깨달음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다. 그래서 선의 반대인 악도 그것이 극악(極惡)의 세계조차 악의 힘으로만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바뀌어가는 세포가 끊임없이 악의 힘과의 상극작용을 통해서 활동하는 사실도 아울러 깨달은 것이다.

아니 남각이 받고 있는 이 초열지옥의 고통조차도 그 고통 가운데는 어떤 지혜의 원소(元素)가 살아있으므로써 그 언젠가는 고통의 끝을 이어갈 지혜로서의 힘으로써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악이 악의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선이 선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 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엄청난 고통도 고통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의 새로운 세계로서 발견할 수 있었다.

과연 빛의 불꽃이 넘실거리는 불구덩이 속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남각은 그 불구덩이의 고통보다 덜한 고통 때문에 그의 마음이 어느 만큼 편해졌다. 마치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환자가 그 고통이 약간 감소되었을 때 바짝 말라붙은 입술에 희미쿠레한 미소를 머금는 것과도 같았다.

선악이 각각 절대가 아닐진대 그것으로 인한 나과 고통이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한갖 허망의 세계임을 알게 된 마당에야 그가 받은 고통 자체도 차츰 관념으로부터 경함의 대상으로 바꾸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됐다.

남각이 그의 동행자에게 다가갔다.

"당신의 괴로움은 당신이 너무 많은 죄 거움을 누린 빚(負債)일 뿐이요. 지금 그 빚을 갚고 있을 뿐 요. 우리가 살았던 사바세계에서 잔뜩 끼어있던 구름의 한 군데에 푸른하늘이 경 뚫린 구멍처럼 보인 적이 있지 않았오" 바로 그런 푸른하늘과도 같은 괴로움 없는 때가 올 것이오."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지옥의 뜨거움을 이겨내고 있단 말이오?"

"우리가 받고 있는 뜨거움의 업보는 누가 이겨내고 누가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오. 나도 당신과 똑같이 괴로움 속에 있오. 하지만 이 지옥의 괴로움이란 이름이 우리의 괴로움인 것을 알게 될 것이오."

"나는 당신과 입을 놀릴 힘도 없오. 그만 헛소리를 지껄이시오. 앗 뜨거워!"

그들은 어떻게 이곳 초열지옥으로 들어왔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 다만 누군가가 "초열지옥이다!" 하고 소리쳤을 때가 기억되고 있었다.

이 8열지옥의 하나인 초열지옥은 살생, 사음, 망어 등의 죄업으로 떨어지는 지옥이거니와 불에 달은 철관 위에 놉혀진 상태에서 벌겋게 달은 철봉으로 얻어맞거나 큰 석쇠에 얹혀져서 지져대는 대로 뼈어있거나 달아있는 불덩어리의 쇠꼬챙이로 몸을 꿰어 불에 굽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태로 당하는 고통의 지옥인 것이다.

과연 남각이 굴러떨어진 불구덩이가 다름 아닌 불에 달을대로 달은 철관위였다. 그 불구덩이 밑바닥이 철관인지도 모르게 그는 몸을 뒤틀어대며 고통을 견디어냈던 것이다. 몸을 뒤틀어댈 때마다 그것이 철봉으로 얻어맞기 때문인줄도 모른채.

사실 남각 일행은 망속의 다섯지옥을 지나쳐 초열지옥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고 있었다. 이미 그들에게 지옥에 들어오자마자 그 지옥의 실감 때문에 기억의 힘이 소멸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 초열지옥의 고통 가운데서 몇가지 기억의 단편들이 떠오른 것은 남각으로서는 특별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악!"

남각의 몸에 뜨거운 쇠꼬챙이가 꾸셔졌다. 몸 속의 내장이 타는 고통은 어떤 표현으로도 불가능하였다. 말이란 사실에 대해서 가장 결핍된 것이었다.

그런데 그에게는 이같은 고통 속에서도 아직도 더 무서운 고통 속으로 가야했다는 절망적인 의지를 통해서 그 자신을 다그치는 영문모를 힘이 솟아났다.

"이것보다 더 큰 것!"

이라고 그가 쇠꼬챙이 고통에서 다시 철봉의 고통으로 바뀌었을 때 외쳐댔다.

그러자 그는 초열지옥에서 다른 지옥으로 이송될 수 있었다. 도대체 그가 받은 초열지옥의 시간은 얼마나 긴 것이었던가.

그 시간은 아무도 잴 수 없었다. 그것은 시간이 아니라 차라리 끝없는 공간으로서의 업화(業火)일 따름이다.

남각은 여섯 문을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는 심판의 과정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혹한 심판관에 의해 죄 지은 자를 타율적으로 규정하는 일이기보다 심판의 대상인 장본인의 의지 안에 내재되고 있는 업보의 측적에 의한 것이기 십상이었다.

이를테면 심판관이란 자아가 선택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었다.

고대인도 '리그베다' 시대의 윤회설이나 이집트의 '타계(他界)에 있는 사람의 서(書)'의 응보설 및 고대 그리스의 올페누스교(敎)의 윤회설과 명부(冥府) 심판 신화들과 함께 불교가 말하는 전생(轉生)의 진리는 페르시아 선신 악신의 대결을 거치는 동안의 사후 심판신앙과 함께 거의 보편적이다. 바로 여기에서 지옥은 그 실재 여부를 떠나 우주를 구성할 때의 윤리적 역할을 맡고 있는 가장 절실한 공간이기도 하다.

지옥의 첫인상은 섭씨 40도이상의 고온으로부터 시작한다. 습도도 업청나거나와 그런 습도까지 다 태워버리는 뜨거운 초열지옥에서는 차라리 사바세계의 섭씨 40도 정도의 고온은 아무런 고통이 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지옥에 이르는 동안은 아무런 심판관의 힘도도 없었던 것과는 달리 정작 지옥을 내 집으로 삼고 고통을 받기 시작할 때는 그 고통을 집행하는 지옥귀(地獄鬼)의 무시무시한 형벌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남각이 불에 달구어진 쇠꼬챙이에 찔리는 그 극한적인 고초를 받을 때는 누가 그런 쇠꼬챙이를 찔러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다시 철관위에 밀쳐질 때 쇠꼬챙이를 든 형상은 귀신을 순간의 의식으로 알아볼 수 있었다.

> 악이 악의 이름에 지나지 않으며
> 선이 선의 이름에 지나지 않는 바를
>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그의 엄청난 고통도
> 고통의 이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그 귀신의 소리도 들은 것 같았다.

과연 우두(牛頭)귀신은 소 머리에 사람의 몸통을 가진 귀신이고 마두(馬頭)는 말 머리에 사람의 몸통이었다. 그 귀신들은 철봉을 휘둘러대며 지옥중생을 쉬지 않고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

아마도 지구의 직경 따위와 상관없는 지옥의 구성에서 그곳의 깊이는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기 십상이다. 우선 지표(地表)에서 가장 가까운 지옥계 맨 윗층의 등활지옥까지 내려가는 길이는 무려 5만킬로미터나 되기 때문에 지구를 몇개 붙여놓아야 지옥에 도달하는 거리가 될 터이다.

이런 지옥계의 고통의 크기나 고통받는 기간의 길이는 등활지옥의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데 초열지옥은 등활지옥의 10만배나 되며 그 고통받는 기간은 1조(兆)6천2백년의 등활지옥에 8배5승(乘)의 정도이다. 그동안 남각들이 받은 고통은 사바세계의 고통 정도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남각은 등활 흑승 중합 규환 대규환 등의 지옥을 거치지 않고 초열지옥에 다달은 것이다. 그것은 남각의 기억 가운데도 없었다. 다만 여섯문을 지나는 한 영식이 심판관에게 놀어붙어서 그 심판관을 붙모로 삼았던 사람에 의해서 등활지옥에 가서 태어날 중생들까지 봉짝 초열지옥의 증벌을 받게 된 터였다.

그림 · 조향숙

불은가득 법향가득

개점 1주년
책방 여시아문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737-0695 / 팩스 : 737-0696

개점 1주년,
길 찾는 이의 도반, 책방 여시아문

독자와 함께 하는 독서회원제

책방 여시아문의 회원이 되시면 언제든지 필요한 서적을 편리하게 구입하실 수 있으며 본 책방에서 발행하는 신간 안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책방 여시아문은 고객의 입장에서 책에 관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책방 여시아문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에도 회원 여러분을 최우선으로 모십니다.
회원가입은 책방에 비치된 신청서 및 전화, 팩스로 신청해 주십시오. 가입비는 무료입니다.

항상 독자를 찾아가는 통신 판매

지방에 계신 독자나 산사의 스님, 책방에 나오시기 어려운 분을 위해 통신 판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 주문은 전화,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송료는 책방 여시아문에서 부담합니다.

매월 발행하는 독자들의 귀와 눈
"책방 여시아문 소식지"

매월 15일 발행하는 여시아문 소식지는 불교 서적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득 담고 있습니다.
• 새로 나온 책—자종 불교서적 및 불교 관련 신간을 빠짐 없이 수록하였습니다.
• 독자가 뽑은 나의 불서—애독자와 함께 추천하는 불서
• 불교 출판 편집자가 뽑은 명저—불교서적 출판에 온갖 정성을 다하는 불교서적 전문 출판 편집자가 추천하는 불서
• 책방 여시아문이 뽑은 이달의 책—본 책방에서 양서라고 검증된 불서만 가려 뽑아 삽습니다.
• 불교 출판사를 찾아서—불교 출판 문화 발전에 항상 노력하고 있는 불교 출판사 탐방
• 베스트셀러 20선—책방 여시아문 월간 판매 집계 20선.
• 책방 여시아문 자세히 보기—독자 여러분께 보답이 되고자 본 책방 소장 영인본, 희귀본 필관본을 계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시려면


팔월 윤 달 '생전예수 재' 전국 사암서 입재

참회공덕으로 업장소멸 기원

지난 31일 해인사가 생전예수재 입재식을 갖는등 이달들어 전국 사찰에서는 윤달 회향에 맞추어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가 입재되고 있다.

금년은 음력으로 8월이 거듭된다. 태음력으로 윤달이 된 해에는 크고작은 대부분의 사찰이 생전예수재를 봉행한다.

생전예수재는 자력신행의 요소가 강한 아름다운 풍습임에 틀림없으나 일부 사찰에서는 이같은 예수재의 진정한 의미가 망각된 채 단순한 전통의례로만 받아들여지고 있기도 하다. 일반 불자들의 경우에는 계행과 참회가 따르지 않은 채 물질적 보시로만 참여하는 의식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재(齋)로서, 속설에는 자신의 49재를 미리 지내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역수(逆修)라고도 한다.

사람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재를 성대하게 지내 그 사람의 사후 복락과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할지라도 그 공덕은 실제 재를 지내는 당사자에게 대부분 돌아가지 죽은 사람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예수재는 불교 수행의 근본 입장인 자력해탈(自力解脫)의 성격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불보살과 호법신중의 가피력 아래 스스로의 정성된 수행으로 자신의 미래를 닦아나가는 의례이다.



◇ 생전예수재 의식중에 펼쳐지는 바라춤.

"공양의식 중시…미리 지내는 49재"

이와 관련 지난 달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포교용 자료집 〈생전예수재〉를 발행, 보급에 나섰다. 자료집 〈생전예수재〉는 예수재에 깃든 의미를 제시하고, 불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신행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료집의 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예수재는 왜 지내나

생전예수재는 살아 생전에 미리 수행과 공덕을 닦아두는 의식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참회의 공덕으로 업장을 소멸하고 지계와 보시로서 스스로 내생의 복락을 추구하는 예수재는 경전을 독송하여 해탈과 열반의 길에 들어서고자 하며, 불보살과 명부시왕을 비롯한 술한 성현에게 공양을 올려 그들의 보이지 않는 도움에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다.

참다운 공양의 의미

예수재 의식은 재단에 모셔진 성중(聖衆)들에 대한 공양의 절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공양을 통하 나와 일체의 성현과 뭇 중생이 선업으로 서로 이어지는 것이다. 아무런 댓가도 바라지 않고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공양은 선업 중의 선업이다. 아무리 작은 선업이라도 그 과보는 헛되지 않다.

공양은 부모나 스승, 불보살 및 온갖 성현들에게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자신의 정성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등 향 차 꽃 과일 곡물 등을 공양물로 사용한다. 공양은 존경할 만한 분들을 대상으로 행하는 보시이다.

성현에게 행하는 보시는 그들이 지닌 감화력을 통해 모든 중생들에게까지 두루 미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내 작은 정성의 힘이 뭇 중생을 제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즉 공양은 곧 중생에 대한 공양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고의 공양은 스스로가 깨달음을 이뤄 열반을 체득하는 것이다. 예수재 의식 중에 보리심을 권장하고 경전을 읽는 절차가 삽입되어 있는 것은 예수재를 지내는 사람이 최고의 공양으로 나아가야 함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예수재에 어떻게 임하나

부처님은 "나쁜 업보를 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좋은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적어도 예수재를 지내는 기간만이라도 자신의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여느때와는 달리 정결하고 청정하게 유지해야만 올바른 공덕을 쌓을 수 있다.

예수재란 평상시의 신행에 덧붙여 우리 자신의 생명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참다운 생명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기간이 돼야 한다.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

불자들은 나의 생명이 나에게 지극히 중요하듯 다른 이의 생명도 나처럼 소중하게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를 있게 한 유정·무정의 모든 존재들을 소중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일이야말로 참된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는 절대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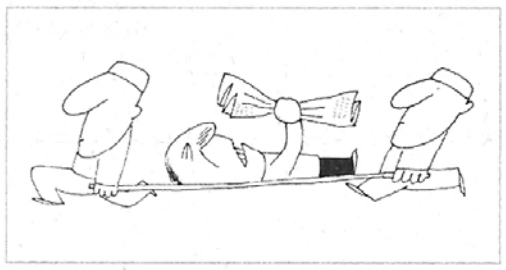
불자들이 앞장서 깨끗한 마음으로 계를 지키고 자연과 인류를 사랑하는 보살행을 실천할 때 나도 사회도 함께 구제된다.

김재경 기자

이근후 건강칼럼 <32>

지연성 스트레스장애

사고로 인한 외상 심하면 정신 장애 확률높아



삼풍백화점 붕괴사건의 충격이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진행형으로 남아있다. 당사자는 물론 피해자의 직접적인 가족 그리고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해 듣고 목격한 충격만으로도 심각한 외상을 받았다고 규정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다. 직접 외상을 경험한 1천5백명이 넘는 피해자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급만성으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을 확률이 높다고 보인다.

여기에서 외상이란 말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인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물론이거니와 타인의 위협을 목격하는 것도 외상에 해당된다. 이런 외상에 대한 정의를 두고 보면 이번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건은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던져진 외상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일반 국민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장애에 걸릴 유병률은 14% 정도 되지만 위험도가 높은 개인들이 걸릴 유병률은 58% 수준에 이른다니 대단히 높다고 하겠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대개 세가지 형태로 진행이 된다. 첫째는 급성장애를 일으키는데, 이런 경우 대개 3개월 정도의 증상이 진행되다가 치료에 의해 증상이 없어지게 된다. 둘째로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는 형태로 진행되는 장애인데, 이는 대개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 여러가지 장애 증상이 치료에도 불구하고 고정되거나 진행이 가속된다면, 이는 만성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로 보아야 한다.

세번째로는 흔하지는 않지만 외상을 받은 연후에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 따라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연후에 여러가지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 증상이 늦게 일어난다고 해서 지연성이란 말을 붙여 지연성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라는 진단을 붙인다.

외상을 받은 후 어떤 모습으로 경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가지 영향하는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된다. 위협적인 사건의 심각한 정도, 외상의 기간, 얼마나 직접적인 자극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요소가 되며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어릴 때의 경험, 인격의 양상, 정신장애 전력 등이 또한 영향을 준다. 그러나 외상을 받은 사건 자체가 엄청나게 극심하면 아무런 소인이 없다고 해도 장애는 일어난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폭력의 장 *
노기 서린 말은 고통이 된다

이 향 원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 대표	02-737-8881
	• 팩스	02-737-0697
	• 광고국	02-737-0692
	•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 전화	051-634-5114
	• 팩스	051-634-5188
광주지사	• 전화	062-375-9986
	•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 전화	053-427-8008
경기지사	• 전화	032-613-4027
	• 팩스	032-665-0965
포교법당소	• 전화	0631-281-2534
공주법당소	• 전화	0416-856-3280

성하출판 TEL: 778-6826~7 FAX: 778-6828

42장경

1.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2. 삶의 해변에서 모은 조약돌

42장경은 불교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해지는 하나의 방법이다. 인류 최고의 사상인 불교를 중국에 소개하기 위해 인도의 불교 스승들은 붓다의 가르침을 모아 42편의 시로 묶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대단히 방대하고 난해한 반면에, 42장경은 단순하고 직접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다. 이 책은 붓다의 42장경을 항목마다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오쇼의 명상적 깨달음과 특유의 농담, 재치 있는 우화를 곁들여 쉽게 읽을 수 있는 경전이다.



내가 도를 지켜 큰 자비를 행한다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일부러 찾아와 나를 비난했다. 그러나 내가 침묵을 지키고 대답하지 않았더니 그는 비난하기를 그쳤다. 그때 내가 그에게 물었다. "만일 당신이 이웃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으나 그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다시 그대에게 돌아가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신이 나를 욕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 당신은 그 욕을 자신에게 한 것이다." —본문 중에서

붓다가 되시려는 모든 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보석을 준다면 뭔소에 그대가 재물을 탐했기 때문이고, 웃음을 준다면 그대가 다른 사람을 늘 기쁘게 했기 때문입니다.

42장경을 그대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대가 붓다를 이해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쇼 라즈니쉬 강의 / 황광우 이경옥 옮김
신국판 · 전2권 / 각권 7,500원

〈보문품〉의 가르침을 우리의 언어로 새롭게 쓴 생명 법문

확제의 신간

관세음보살 보문품강화

법령 저

건강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투병해온 한 출가인의 수행기

고통스럽고 외롭고 잠시 쉴거울 때도 관세음보살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가늠하면서 살아 온 수행인이 관세음보살의 영험과 체험을 통해 얻은 신앙의 결정체

법보시도 주문받습니다 값 8,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옛날과 지금, 부적의 결정판 !!!

김백만 편저 값 35,000원

여름불교학교 교재

1. 우리들의 부처님
2. 둥글고 밝은 빛
3. 마음의 등불
4. 거룩하신 부처님
5. 합장하는 생활
   부처님 말씀 1학기
   부처님 말씀 2학기

각권 값 2,500원

130-070 서울 · 동대문구 용두동 751-14
전화 : 02) 921-8434 · 929-3470 팩스 : 02) 929-3470

관음출판사

禪용어 총망라 첫 '선학사전' 출간

9천1백여 항목 풀이·출전·예문 낱낱이 수록
선종사 연표등 부록도…8년여만에 마무리

선불교의 각종 용어를 풀이한 우리나라 최초의 선불교 전문사전인 〈선학사전〉이 나온다.

9월 중순 불지사에서 펴낼 〈선학사전〉에는 각종 선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청규 성구 속어를 중심으로 5천1백여 항목에 대한 풀이와 인용예문 출전을 밝힘은 물론 선사와 선서 사찰 공안등을 9천1백여 항목으로 선정해 풀이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 불교계는 정작 선종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한 권의 선학사전도 갖지 못한 채 일본 것에 의존해 왔었다. 출판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사전편찬은 해당분야의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결과물임과 동시에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중요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늦긴했지만 〈선학사전〉의 편찬은 한국불교의 쾌거라 불러도 무색하지 않다.

기존의 불교사전이 일본의 사전을 그대로 수용해 우리글로 옮긴 것에 그쳤다면, 〈선학사전〉에서는 한국선종과 관련된 용어와 인물 선서 사찰 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우리의 선종사전으로 만들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 단편 중심표제어풀이 위주인 소항목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각 항목마다 출전과 예문을 일일이 소개해 표제어의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했음도 장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선학참고문헌일람 선종사지도를 부록으로 수록해 선불교 자료집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이에따라 선종문헌을 읽기 위한 어문학적 보조공구사전(補助工具辭典)의 기능을 해낼 것으로 기대돼 선학은 물론 불교학 발전에도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불지사대표 김형균씨는 "지난 87년부터 시작된 '선림고경총서'의 편집을 맡으면서 선종의 어휘와 인물 역사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풀이되어 있는 선불교사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어 〈선학사전〉 편찬을 시작했다"며 "불교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선의 세계로 오르는 친절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편찬작업에는 동국대도서관 이철교사서과장과 수국사의 일지스님, 신규탁교수(연세대 철학과)가 참여, 광범위한 선종문헌을 열람해 해설과 예문을 정리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선서 선사 용어 사찰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해 선총사연표 선종법계도 등 부록을 집필, 8년여만에 마무리지었다.

감수를 맡은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은 "낱말의 선정 연대 출처 고증 범어(梵語)표기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절하게 손질되어 있다"며 "선어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어 선어를 버리고 선리(禪理)에 드는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757 홍선 유관

…라는 뜻을 품은 것 그렇다 내 앞에서 한 번 쏘아 보고 갔다. 양 선적이 그만 머리만 이대기로 입을 벌을 주었다. "두고 봐라. 이녀석 (무례아 알게 될거다!" (위 기년915)

지 홍사(弘法)와 같음. '禪師(禪師)'로 표기(禪師)

로 그대로 과연 그렇군 등 동감임을 나타냄. '참고 존 중 존경문제의 뜻'(참고 참조 ⇒)

경기도 남양주군 봉내면 (水落山)에 있는 절. 봉선

법식 신라 진평왕 21년(貞元) 법사가 창건. 조선 (開祖)을 양양하기 위하여 (再建)를 설치. 선조 1 (佛閣) 대군의 원당(願堂) 대군의 묘소가 있으므 더욱이라고 부름. 현재 경 와 병풍 누 개가 보존되어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 지

주 망봉사(望峰寺) 등에 머물며 종풍을 드날림. 그 후 헌강왕 헌건(875~885) 에 도윤의 제자 정호 절중(道峰禪中) 대사가 무리를 이끌고 사자산(獅子山)에 머무니, 헌강왕이 그의 도풍을 흠모하여 홍녕사(興寧寺) 를 헌납함.

흥복원(興福院) 광동성 소주(蘇州) 유원현(吳縣) 서북에 있는 망봉산(望峰山)에 있음. 송(宋) 태평흥국(太平興國) 연간(976~984)에 용흥(龍興, 慧眞禪悟) 선사가 개창. 망봉사(望峰寺)라고도 함. 뒤에 망봉산(望峰山) 흥복선사(興福禪寺)라는 칭호를 받음.

홍선사(興善寺) 섬서성 함녕현(咸寧縣) 남쪽에 있는 절. 수(隋) 문제(文帝)가 도읍을 이전할 때, 먼저 이 절을 지었다고 함. 존선사(尊善寺) 또는 대흥선사(大興善寺)라고도 함. 당대(唐代)에는 홍선사(興善寺)라 칭하고, 마조 도일(馬祖道一)의 제자인 홍선 유관(興善惟寬) 등이 머물

홍선 유관(興善惟寬) (人) 755~817. 당대(唐代) 스님. 낙안(洛安) 출신. 홍선은 주석 사명. 속성은 속(束)씨 절강성 구주 신안(信安) 출신. 13세에 출가하여 승승(僧稠)에게 구족계를 받음. 승여(僧如) 로부터 율을 배우고 지관(止觀)을 닫음. 마조 도일(馬祖道一)에게 찬탄하여

'선학사전'은 단편적인 용어풀이 위주인 소항목 중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표제어 마다 일일이 출전을 밝히고 예문을 실었다.

명사추천 불서100선

관무량수경

사람은 이승을 뜨면 저승으로 간다. 그러나 불교도는 극락정토로 가기를 진정으로 염원한다. 극락이란 지극히 안락하여 걱정이 없는 나라라고 한다.

이에 이 극락정토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인가, 그것이 그동안 또 하나의 나의 과제이다. '觀無量壽經(관무량수경)'은 극락세계의 실체를 16관법으로써 사실적으로 펼쳐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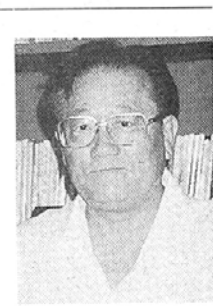
석존 때 마갈타국 왕사성에서 아사세 태자가 부왕 빈바사라를 가두고 모후 위제희부인을 죽이려한 데서 발단한다. 이에 부인은 산중의 부처님께 멀리서 예배하며 교화해 주기를 빌었다.

부처님이 신통으로 이를 알고 제자를 보내며 몸소 나아가 시방정토를 나타내 보였다. 부처님께서는 부인이 극락세계를 선택함을 보시고 16관법으로 나누어 아미타불과 회화로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새겨질 때마다 넋을 잃고 바라 보게될 뿐이다.

지금 수중에 있는 '敦煌石室寫經題記(돈황석실사경제기)'와 '敦煌雜錄(돈황잡록)' 중에서 '아미타경 변문'의 일부를 인용한다.

化生童子食大廚 百味馨香
無限天人持寶器 瑠璃鉢飯似眞珠
極樂國中無量夜 花開花合辯朝晡

이를 변문조(불경을 알기 쉽게하는 해설)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장 백 일
(문학평론가·국민대 교수)

16관법통해 극락세계 실체 보여
"참다운 극락정토 깨달음 그 자체"

화생의 동자 음식을 먹으면
모든 맛이 향긋하다.
숱한 천녀 寶器를 바치고
유리발 밥은 진주와 같다.
극락나라엔 밤낮이 없어
꽃이 피면 아침이고
꽃이 지면 황혼이라네.

한마디로 극락 극치를 말한다. 깊은 막고굴에서 '관무량수경변'의 벽화에 젖으면 내가 바로 극락정토에 태어났음이 아닌가. 부처님은 간절히 염원하면 정토에 태어나도록 들어주신다.

그러나 극락정토를 바라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태어날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하지 않는가. 참다운 극락은 깨달음 그 자체이다. 그럼에 깨달음을 보는 자가 참다운 극락을 본다.

정토의 모양을 말씀하셨다. 마침내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이 경을 유통하라고 위촉하셨다.

나는 얼마전 모출판사의 요청으로 이 경의 번역을 끝냈다. 그러나 敦煌(돈황) 막고굴에 그려진 '觀無量壽經變(관무량수경변)'의 아름다운 벽화가 보고 싶어졌다. 벽화의 기본테마는 變相圖(변상도)이다. 천 수백년에 걸쳐 경전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그림과 塑像(소상)으로 나타냄이 변상도요, 막고굴은 그것의 역사적 대화랑이다. 현재 정리돼 있는 굴은 492개로 벽화는 여기에 있다.

주제별로 보면 총수 1천45폭중 가장 많은 것이 '극락정토변'으로서 228을 헤아린다. 당나라 때 성행한 것들로 소상과 벽화는 정말 아름답다. 이중 '관무량수경변'은 172굴과 217굴에 펼쳐진

의사가 쓴 네팔 구도여행기
"인간심성 원형 탐색"

이근후교수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펴내



◇이근후 교수

부처님의 탄생지 네팔. 그곳을 지난 82년부터 10여차례나 다녀온 정신과의사 이근후교수(이화여대)가 네팔 여행기 〈신은 우리들의 입맞춤에도 있다〉(길벗 펴냄)를 펴냈다.

이교수는 이 책을 통해 살이 있는 처녀신, 사원벽에 조각된 기기묘묘한 성희장면, 계약결혼등 네팔의 유적 풍습 문화를 탐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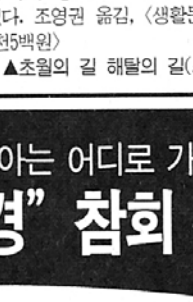
아울러 연륜있는 정신과의사의 눈으로 히말라야 문화의 아름다운 심층을 보여준다. 가네스신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창조와 파괴, 남성성과 여성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시바에 대한 이야기 등을 통해 인간의 삶과 심리에 대한 생각들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이 책은 독특한 문화를 낯선 눈으로 들여다보는 즐거움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지금의 나는 원래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고 생각케 만드는 곳" 즉, 인간심성의 원형을 발견하는 것에 대한 이끌림을 표현한 구도여행기로 읽힌다.

한편 이교수는 정신과전문의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우리나라 불상과 사원건축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12월에는 〈한국의 석불〉 출간과 함께 석불사진전도 준비하고 있다.

화제의 책

지금 이 자리에서의… 데시마루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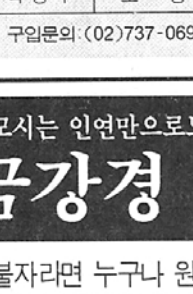
선에 대한 서구인 궁금증 풀어줘

〈지금 이 자리에서의 깨달음〉은 일본의 다이센 데시마루 선사가 프랑스에 머물면서 약15년 동안 포교활동을 펴는 가운데 그의 제자들과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선(禪)은 불교만의 것이 아니다. 이미 영화 연극 문학 과학 철학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특히 서구에서 더욱 활발하다.

지적으로 세련된 서구인들과 눈앞의 현실을 초월하여 참된 지혜의 경지에 들어선 등양의 선승과 문답을 통해 선에 대한 서구인들의 관심을 살필 수 있는 것이 흥미롭다. 데시마루 선사는 그의 제자들에게 "현재의 행위에 집중하고 그외의 것은 일체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설파한다. '삶과 죽음' '수행' '깨달음' '선과 현대문명' 등 4장으로 구성. 오석제 옮김. 〈장승, 4천5백원〉

지혜로운 바람이… 우리누리 지음



동화로 꾸민 어린이 불교 입문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불교를 가르쳐줄까.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던 고민이다. 그러나 마음에 흡족한 책을 찾기 어려웠다.

〈지혜로운 바람이 들려주는 불교이야기〉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을 통해 불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동화적으로 풀어쓴 국민학교 저학년용 불교입문서.

2천5백년 전의 인도에 가서 싯타르타가 부처가 되는 것도 보고 보리수도 만나면서 차츰차츰 불교에 대해 배워가는 아기바람. 게으르고 심통만 부리던 아기바람은 자비와 덕을 행하는 불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느새 고아가 된 아기 개구리를 위로해줄 줄 아는 바람으로 성숙해 가는 얘기를 엮었다. 우리나라의 불교전래, 부처처럼 성인이 된 고승들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썼다.

동화작가들의 모임인 '우리누리'의 공동작품이다. 〈가리온, 4천원〉

새로나온 책……

▲한국고대사의 숨은 이야기(탁승제 지음)=월명 충담 혜숙 혜공 원효 등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인물사. '나라를 세운 이야기' '사람사는 이야기' 등 6부로 구성했다. 〈우리교육, 6천원〉

▲배움(임현담 지음)='히말라야·인도에 빠진 닥터'의 지은이가 쓴 구도에세이. 39편의 글마다 '…에게서 배운다'라는 부제를 붙였듯, 질병과 폭력과 어둠등 유정 무정물이 모두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동반자라고 밝힌다. 〈효형출판사, 5천8백원〉

▲다석 류영모의 불교사상(박영호 지음)=반야심경을 통해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니르바나(열반)의 실체에 대한 생각과 믿음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풀이했다. 다석의 어록을 중심으로 그의 제자인 박영호씨가 다석의 불교사상을 정리했다. 〈문화일보사, 6천원〉

▲불교와 기독교(히로 사찌야 지음)=극락과 천국, 승려와 신부·목사, 자비와 사랑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등 50개의 문답을 통해 불교와 기독교를 비교, 두 종교간의 이해를 돕고 있다. 조영권 옮김, 〈생활문화, 5천5백원〉

▲초월의 길 해탈의 길(스와미지 지음)=히말라야 요가학회에서 강연한 스와미지의 요가수행 지침서. 각자의 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방법론에서 탈피해 각자의 개성을 스스로 자각한 후에 영성개발을 위한 수행을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태영 옮김, 〈여래, 5천8백원〉

▲찻잎 따는 손길(양은순 외 지음)=미래시 동인들의 제17사화집. 이번 시집에는 부산 금어암에서 정진중인 양은순(부산문인협회 이사)씨의 '곡우차' '세작'을 비롯하여 나영자, 김몽선, 이상인씨 등 36명시인들의 170편의 시가 선보이고 있다. 〈마을,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역자	출판사
1	소설 선	고 은	창작과비평사
2	달마의 제자들	고우영	불지사
3	하산	홍 주	불지사
4	연꽃만화	장지연	부다가야
5	인식론·논리학	사이구사 미쓰요시	불교시대사
6	절로가는 마음	신영훈	책만드는집
7	불교학개론 강의실	장휘옥	장 승
8	삶에서 깨어나기	틱낙한	장경각
9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일 타	효 림
10	영가천혼법어	석성우	토 방

구입문의:(02)737-0695

어둠의 빛으로 떠난 태아는 어디로 가는가
태아 영가 천도 "사경" 참회 법회 봉행

귀의 불·법·승
생명을 빼앗긴 태아 영가는 천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구천을 떠도는 태아 영가의 천도를 위한 사경 참회 법회로 추복(追福)하여 생과 사의 이치를 깨닫게 해주어 왕생극락을 축원하여 주는 것이 부모된 피할 수 없는 인연 도리입니다.
낙태한 부모는 태아 영가를 천도(사경 참회 기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태아 영가의 외로운 혼을 위하여 법연·사경참회 기도 법회에 동참하여 그 선업으로 태아 영가와 그 부모가 이고득락·구경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불기 2539년 9월 11일 10시·25일 10시
회향 10월 9일 9시 (T 993-3744)
■ 장소 :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531-8

태아 영가 천도 도량 금강사 병법사문 강 자 우

모시는 인연만으로도 큰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금강경 10폭 병풍

불자라면 누구나 원하시는 원력병풍 – 금강경
표구비만으로 드리는 추석특별보급으로 가격부담없이 가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전면:원력 높으신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후면:林泉거사 진품 불성 연화도
■규격: • 높이 : 5자 8치 (약 175.8cm)
• 폭 : 14자 (약 424.3cm)
• 재질 : 고급스기목/양면 고급비단/스모사 특후지
■특별보급가 ₩ 490,000
(현금 및 은행 신용카드)
※참조:후면에 팔상록(석가세존 일대기)를 원하시면 별도로 꾸며드립니다.
구입문의 기획제작 三田佛事 (02) 732-6095 732-6096
• 클로버서비스전화 080-023-1101(요금 수신자 부담)

불교미술대전 수상자등 화가 60여명 총집합

불교미술 새 지평 여는 마당

조계종 '미술의 해 특별기획전' 13일부터 공평아트센터

지난해로 14회를 치뤄낸 조계종 불교미술대전의 역대 수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조계종 문화사회부(부장 시현스님)는 미술의 해를 맞이하여 '95 미술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을 오는 13일 인사동 공평아트센타 2층에서 개최한다.

불미전 수상자들의 작품외에도 오늘날 불교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최근작이 한자리에 총망라된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벌써부터 교계와 화단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불미전 종정상 수상자, 총무원장상을 받고 1회의 우수상 수상자, 우수상을 연 3회 받거나 격 5회 수상자, 특선을 연 5회 받거나 격 7회 이상의 수상자, 입선을 연 9회이상 수상자와 불교인으로서 국내외적 미술활동에 현저한 공적이 있고 대한민국 불미전 추천작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참가한다.

민봉스님 석정스님 혜각스님 일당스님 원공스님 관조스님 김응현 정기섭 전영화 전연호 이종욱 김의식씨 등 40여명의 역량있는 역대 수상자들이 초대된다. 또 한기늠 안강수 정경문 등 20여명의 찬조작가 작품도 전시된다.

출품작가들의 불교정신과 세계관을 담아 2천년대의 불교미술상을 제시하게 될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서예 등 전통불교미술부문은 물론 동양화, 서양화, 건축, 서예, 사진 등의 순수불교미술부문에 이르기까지 미술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불교문화의 전통을 고집하는 전통순수불교미술 작가의 작품과 불교의 정신과 급변하는 세계관을 융통성 있게 잘 반영하고, 주제가 뚜렷한 신표현 경향의 작품을 지향하는 현대미술 작가의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도 해 불교미술작가들의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95 미술의 해 기념 특별기획전' 개막식은 오는 13일 오후 4시 공평아트센타 2층에서 대금산조 및 가야금 연주를 곁들인 소규모 공연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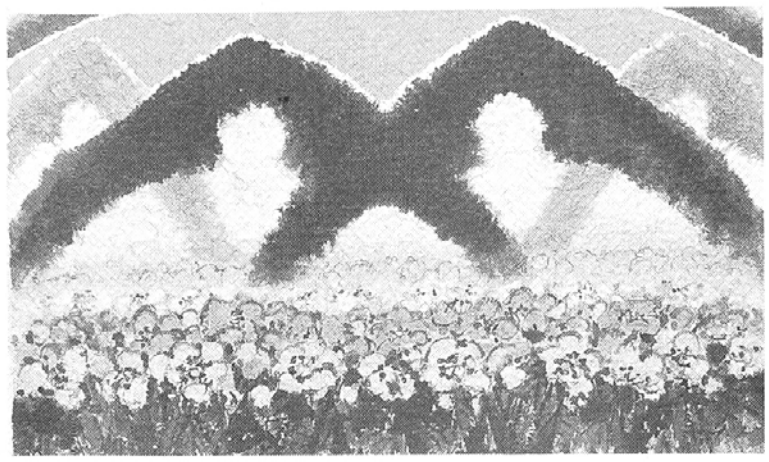
도필선 기자



◀ 전연호作 5존도 괘불B

◀ 전영화作 메아리 95

회화·조각·공예·건축·사진등 다양한 작품세계 '볼 기회'



한일교류 3천년展

내달 25일까지 롯데월드 민속관

"눈물로 조국땅을 그리는 조선 여인의 절절한 수난사가 느껴지십니까?"

임진왜란때 납치되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바쳐진 비운의 조선인 자매 오소에와 고소에 자매의 손때가 묻은 호신불이 관람자에게 이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

한국과 일본의 교류역사를 각종 유물과 자료사진 모형물등의 입체전시를 통해 알기쉽게 보여주는 전시회가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열리고 있다.



◇일본 법륭사 금당벽화

'시왕도' 등 조선시대 불화 12점 '눈길'

지난달 30일 롯데월드 민속관에서 개막된 「한일교류 3천년전」은 오랜기간 "멀고도 가까운 이웃"으로 끈끈하게 맺으며 살아 온 두 나라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재조명해 보는 역사의 장으로 10월25일까지 열쳐진다.

특히 '일본 속의 한국문화재'전에서는 잘 알려진 법륭사의 금당벽화가 화재(1949년)로 훼손되기 전 촬영한 필름을 반사분해하여 합성한 사진을 기초로 복원한 모습으로 첫선을 보이고 있다.

또 호쇼지(보성사)에서 소장중인 〈시왕도〉와 사이다이지(서대사)의 〈제석천왕〉등 처음 국내에 들여 온 조선시대 불화 12점은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는 '바다를 건넌 사람들' 등 5개 전시실로 나눠 주제별로 기획됐다.

원로·중진작가 초대전

미화랑 청담동 이전기념

원로·중진작가들이 한데 모인다.

신사동에서 청담동으로 화랑을 이전한 미화랑이 중진-원로 작가를 초대 지날달 28일부터 첫기획전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곽인식 최영림 남관 등 작고작가와 김기창 곽훈 조광호 등의 회화작가와 조각가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한국지성의 표상전'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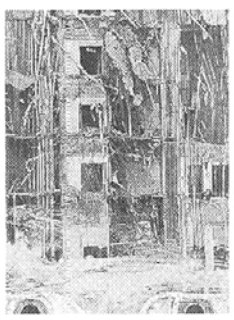
86명 참가…손연칠·하수경등 불자교수도

전국 48개 대학 교수작가 86명이 참가하는 제3회 '한국지성의 표상'전이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의 일정으로 인사동 공평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다.

이 전시회에는 동국대의 손연칠, 오원배, 김황록, 조승환 교수와 전주대의 하수경교수 등 불자교수들도 다수 참가했다. 손교수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소재로 한 '하심' '참회' 하수경교수는 '바람소리' 오원배교수는 '무제'를 내놓았다. 또 조각분야의 김황록교수는 '사물의 꿈'을 조승환교수는 '가족' '휴식하는 사람'을 제출했다.

한편 이번 전시의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작가와의 대화' 프로그램에서는 손연칠교수가 9월4일 오후3시~5시까지 감상자와 만나게 된다.

현직 교수들의 근작 1백72점이 선보이는 이 전시회는 교수신문(발행인 이영수)이 주최하고 삼성문화재단과 한국미술협회가 후원했다.



◇손연칠교수의 '하심'. 삼풍백화점 붕괴현장을 소재로 삼았다.

도부조판화 새영역 제시

임효개인전, 13일까지 문예진흥원



◇임효씨

도부조판화로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임효씨가 또다른 변화를 시도한 대형작품을 내놓았다.

지난 1일 동숭동 문예진흥원 미술회관에서 문을 연 임효씨의 개인전에는 1천호 내외의 대작 13점이 소개되고 있다. 작품의 내용도 「반야」의 세계를 표현하는 등의 선화적 분위기에서 스케일이 장대한 서사성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시리즈 '무위자연'으로 소개된 그의 신작들은 우리의 신화와 전설속에서 따온 모티브를 서사적으로 구성시키고 있다. 울퉁불퉁한 도부조 종이판을 오브제로만 사용한 임씨의 작품들은 채색과 먹의 조화를 묘하게 이끌어 내고 있다. 한지를 찢고 붙인 작가의 정열이 그대로 내비치는 것도 임씨의 작품세계가 갖는 또다른 특징이다. 주제는 한국적 무위자연의 신화세계로 일관되고 있다. 전시는 13일까지다.

임효씨는 이번 전시를 마치고 10월부터는 지방 5개도시 순회전도 가질 계획이다.

"목판서 노니는 물고기"

이광빈전, 백악예원서

목판의 선과 조형감을 살린 이광빈전이 오는 6일까지 백악예원에서 열린다.

목판을 갖고 첫 전시회를 마련한 이광빈씨는 이번 전시에서 물고기를 주요 소재로 해 여기에 담긴 신화적, 종교적 상(像)을 선과 여백을 살려 유머러스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거친듯하면서도 구수한 칼끝의 맛을 조각을 통해 적절히 잘 표현하고 있다. 또 숙달의 경지에 이른 조형감각과 과감한 단순화는 작품의 품위를 더해준다.

불심시심 〈29〉

구름 사이로 온 나그네

湘南高臥白羊山 (상남고와백양산) 강남의 백양산에 높이 누워서
靜聽寒溪月下潺 (정청한계월하잔) 달 아래 시내 소리 잔잔함 듣다
丹桂陰中門半掩 (단계음중문반엄) 계수나무 달 그늘속 반쯤 닫힌 문으로
一笶來自碧雲間 (일공래자벽운간) 한 지팡이 푸른 구름사이로 오다

앞에서 소요대사의 선기 넘치는 시들을 보았다. 여기서는 큰 스님으로서 큰 사랑으로 세속 인정을 어루만지는 인정을 음미해 보자.

이 시는 당시 재상이었던 박순(朴淳)이 찾아와 부르는 운자에 화답한 시이다. 시를 지은 동기가 상대방이 부르는 운자를 따라 짓는 시이니 즉흥적 시이다. 따라서 시의 구성에 의도적 꾸밈이나 기교가 스며들 기회가 없다. 당시 상황의 진솔한 표현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는 앞의 두 구는 자신의 처지를, 뒤의 두 구는 찾아온 손님의 상황을 묘사함으로 만족했다. 자신은 백양사로 내려와 그저 한적하게 누워 지내는 몸이다. 높이 높다 하였으니 이 높음의 의미가 바로 세속과 단절된 거리를 표현한 공간적 의미이다. 이 높음의 대칭으로라도 인도하듯이 달 아래의 잔잔한 물소리라 했다. 모든 삼라만상이 달 밑에 있지 않음이 없겠지만 달 아래 있는 시냇물이 어쩌면 더 운치가 있는 듯하다. 그것은 어쩌면 물이 달 그림자를 통째로 감싸 안을 수는 있기 때문일 것이며 그러기에 부처가 달이라면 그를 간직하는 우리의 마음을 강물에 비유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 잔잔한 시내의 울림을 듣고 있는 것이 산승의 생활이다.

여기에 세속의 높은 벼슬아치가 찾아왔다 붉은 계수나무 그늘에 반쯤 닫혔으니 반쯤 열려 있는 문이다. 계수나무 그늘은 달을 상징한 표현이니 달 밖에 반쯤 열려 있는 문으로 지팡이 하나 날아들었다. 두 사람의 만남에 매개체로 끼어든 것이 결국은 달이다. 두 사람의 마음으로의 교감이 달처럼 맑다.

달은 구름과 구름 사이를 오간다. 여기에 나타난 재상은 저 푸른 구름 사이에서 왔다. 역시 오고 감이 분명한 구름이다. 이 구름에는 두 의미의 복합이다. 푸른 구름이니 세속의 높은 지위일 수도 있지만 벽운의 구름으로 신선세계의 상징일 수도 있다. 정감어린 시어를 감상하기에 족한 시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조계종 내년 달력 선보여

'산사의 향기' '연꽃의 세계' 2종

조계종 사업부(부장 설송)가 내년도 불교달력 2종을 선보였다.

조계종 사업부가 첫 수익사업으로 기획 제작한 내년 달력은 '산사의 향기'와 '연꽃의 사계'. 보급형 제1안인 '산사의 향기'는 산사의 풍경과 법구경을 어우러 놓은 것이며 제2안인 '연꽃의 사계'는 연꽃의 일생을 통해 삶의 고뇌와 자연의 이치를 표현하고 있다. 사진은 윤명숙씨의 작품이다.

사업부는 이 달력을 주문·보급키로 했으며 가격은 5백부 미만 주문 때는 1천5백원, 그 이상 주문 때는 1천4백원씩이다. 〈문의=735-2042〉

'세계자연 유산'에 설악·한라산 신청

문화재관리국은 내년말까지 유네스코 산하 세계유산위원회에 설악산과 한라산을 세계의 자연유산으로 지정해 주도록 신청할 계획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8일 관련자료 수집차 속초시에 관계관을 파견.

아주 소중한 비밀을 그대에게 전하니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

- 벼락처럼 단번에 자르는 지혜의 완성 -

2천 5백년 전 붓다가 돌렸던 진리의 수레바퀴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금강경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다. 세상의 모든 책 중에서 가장 소중한 보배다!
'그대안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우는 인생의 큰 스승
오쇼 라즈니쉬! 그만의 독특한 깨달음의 언어와 강의법, 탁월한 삶의 인식으로 '우리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붓다'를 흔들어 깨운다.
어떠한 집착도 번민도 없는 무상도의 세계, 구름 너머 저멀리, 깨달음의 밭으로 인도하려는 그의 노력이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
삶에 찌든 우리에게 샘물과도 같은 활력과 생기를 부여하는 유익한 인생의 지침서!
신국판 / 432면 / 값 7,000원



〈법구경〉은 나를 완전히 발가벗겼다!
나는 허상의 옷을 모두 벗어던지고 그를 받아들였다!

갇진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들! 그러나 그 방법을 몰라 애태우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 깨달음의 스승 라즈니쉬가 〈법구경〉 강의를 시작한다.
오쇼 라즈니쉬! 그는 참초가 무성한 법구경이라는 밭을 완전히 갈아 엎는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깨달음의 씨앗을 뿌린다. 우리는 그의 법구경 강의를 통해 고타마 붓다의 시대로 돌아간다. 스승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깨달음의 언어, 방금 건져올린 퍼덕거리는 생동감 넘치는 삶의 지혜, 그 무한정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한다.

법구경 (上)(下)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전2권 / 각권 값 6,500원

"마음을 변형시키고 초월시키는 모든 길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

●112 가지 명상비법 무삭제 완역공개
인생을 무덤덤하게 살 것인가? 황홀하게 살 것인가?
목마른 영혼만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라는 고민이 없이 삶에의 무지와 무관심, 무감각에 빠져 버린 메마른 의식과 안일한 삶의 태도에서 이젠 깨어나십시오!
인도 5000년의 지혜 「비그아나 바이라바 탄트라」
국내 출판 사상 최초 완역본!



탄트라 비전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이연학 옮김
전4권 / 각권 값 6,500원

삶을 논하는 영혼의 성자, 깨달음의 스승

마조, 조주, 임제를 아십니까?



이 존재들을 모른다면 지성인이라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인간 정신의 가장 차원 높은 지적 유희가 바로 선(禪)입니다.
이 존재들을 만남으로써 비로소 당신은 초범입성(超凡入聖)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조가 당신을 만난다면 그 즉시 당신의 머리를 베어버릴 것이고,
조주는 그 남은 몸뚱어리를 부처의 몸으로 조각할 것이며,
임제는 부처의 머리를 가져다 그 몸에 붙여줄 것이다

임 RINZAI 제
조 JOSHU 주
마 MATZU 조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신국판 / 각권 값 5,000원

태일출판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4가36 대표전화927-2831 팩스924-3236



◇ 통도사에서 열린 방송작가 초청 불교학술세미나에 43명의 작가가 동참했다.

방송작가 초청 불교학술세미나 취재기

43명 참가…도법스님·강건기교수 주제발표

"불교는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종교라고 알아왔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생활실천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이틀간 통도사에서 열린 제12회 방송작가초청 불교학술세미나에 참가한 방송작가 43명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오후 3시가 넘어 통도사에 도착, 피곤함도 잊은채 일정에 들어간 첫 순서는 '불교의 생명사상'을 주제로 한 도법스님(선우도량 대표)과 강건기 교수(전북대 철학과)의 강연.

도법스님은 '화엄경에 나타난 생명사상'을 통해 "존중하므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의 질서를 깨우쳐 주는 것이 불교 생명사상"이라고 설명했다.

강건기교수는 "불교는 관계와 관계가 들이 아닌 하나라는 생명에 대한 확신과 그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법스님과 강건기교수는 사회정서를 순화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필봉에 담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질의와 응답시간에 작가들은 '관계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부처님의 연기사상에 큰 관심을 보여줘 열린 불교사상에 대한 열띤 대화의 장이 마련돼 불교정신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이 됐다.

다음날 부산 범어사 김천직지사 를 순례하고 돌아오는 길은 출발할 때와 달리 작가들은 불교에 대한 관심의 눈이 모아진 가운데 버스에 올라 성철스님의 비디오 테잎도 진지하게 지켜봤다.

지난 72년에 윤청광씨의 발원에 의해 범어사에서 시작된 방송작가세미나는 올해로 12회를 거치며 한운사 신봉승 김교식 임충식씨 등 75명의 작가들이 불교에 입문 수계까지 받았다.

한편 입재식에서는 윤청광씨가 공로패를 원로작가 박서림 백승찬씨가 감사패를 받았다.

통도사=김원우 기자

"피부로 불교체험 기회" 연기법 놓고 토론열기



"불교는 자신의 깨달음 이라는 가르침에 감명을 느꼈습니다"

참가자중 유일한 기독교신자로 불교를 알고 싶어서 불교관련행사에 처음 참가하게 됐다는 이혜원씨(MBC 드라마 작가).

세미나 참석 기독교 신자 이 혜 원씨

"이제 불교교리 자신있게 쓸 터"

이번 방송작가세미나를 통해 절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며 편안하고 정신적인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실 그간은 작품을 쓰면서도 불교교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피해버렸지만 이제는 책을 뒤져서라도 바르게 불교교리를 써야지요."

'한국 화랑단' 설립…청소년 신행 이끈다

종립학교·사찰 학생회 단일조직화…종단차원 지원·관리

21세기 한국불교를 짊어지고 나갈 (가칭)한국화랑단이 설립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락스님)은 내년을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하고 청소년신행을 관장할 전국조직을 모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종립학교 교법사들의 모임인 전국교법사단(단장 김종환)도 정부의 교육개혁안에 따른 대책마련과 함께 포교원이 추진중인 청소년단체설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교원이 추진중인 한국화랑단은 학교와 사찰불교학생회를 단일조직화하여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며 전국의 '학교와 사찰로 조직을 확대한다는것.

이같은 교계의 청소년 단체 설립 움직임은 정부가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종합생활기록부 시안을 통해 '학업성적뿐 아니라 봉사활동, 특별활동도 기록'하도록 했다. 특별활동에는 단체활동도 포함되어 있어 각사찰과 학교의 불교학생회활동이 종합생활기록부에 오르게 된것이다.

현재 중·고학교에서 단체활동으로 인정되는 단체는 청소년연맹, YMCA 등 50여개이며 불교계단체로는 청소년교화연합회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불교청년회소속 불교학생회가 종합생활기록부에 기재될수 있다.

동대부중 우인보 교법사는 "대부분의 학교 및 사찰불교학생회가 독립활동을 하고있어 이들을 하나로 묶을 종단차원의 새로운단체가 요구된다"며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합생활기록부에서 불교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한국화랑단의 창립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 지도자들은 "새 조직을 구성하는것은 열악한 청소년포교 현실에서 역량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단체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포교원은 오는 15일 녹수청산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을 초청, 불교청소년의 해 기획팀을 구성하고 △한국화랑단 결성 △청소년포교사 자격증수여 △교육개혁에 따른 불교계의 대책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준염 기자

미국 감옥에도 참선바람

'삶의 본질' 공부…선만화 보급 계획도

해외통신

감옥을 선방(禪房)으로 만든다.

미국에서 지난해 수감자들의 정신적 정화를 위해 결성된 비영리 단체 'Engaged zen Foundation'는 뉴욕의 싱싱주 감옥에 죄수들의 선수행을 위한 법촌과 도서관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다른 감옥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정보에 의하면 이 단체는 싱싱주 감옥의 선센터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Z·F는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할 소책자 〈Gateway Journal〉을 만들 예정이다. 이 소책자 외에도 선을 소재로 한 만화책도 펴낼 계획이다. 그림은 둔칸 에 글은이라는 작가가 그린다.

E·Z·F는 선만화를 통해 수감자들의 정신정화 뿐만아니라 선수행의 기본적인 방법도 소개할 계획이다. 싱싱주 교도소에서 시도되는 이같은 프로그램은 미국 전체 교도소로 확산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재소자들은 삶에 대한 용기 얻을 것이다.

日국보 1호 '광륭사 반가사유상' 첨단기술이용 내진장치 설치

일본 경도 광륭사는 최근 사찰이 소장하고 있는 일본 국보1호 '미륵보살반가상'에 첨단기술을 이용한 내진(耐震)장치를 설치했다.

일본이 문화재에 내진장치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상을 받치는 대좌에 설치된 내진장치는 상하 두개의 스테인레스판 사이에 특수설계된 완충기와 용수철을 넣어 리히터 규모7의 지진도 규모3 정도로 진동을 완충할 수 있다는게 사찰측의 설명이다.

광륭사는 지난 1월 고베지진 당시 성관음 입상등 문화재 두점이 쓰러져 팔이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은 바 있다.

한편, 일본국보1호인 광륭사의 '미륵보살반가상'은 백제양식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한국의 국보 83호인 금동미륵보살반가상과 흡사한 목제작품이다.



◇ 일본국보1호 경도 광륭사 반가사유상

"김교각스님은 신라 신문왕 아들"

소설가 이순창씨 삼국유사 '오대산 5만진신' 기록 토대 주장

중국 안휘성 구화산 화성사에 등신불로 모셔져 있는 김교각(金喬覺)스님이 누구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길림성 사회과학원 조선연구소 유지영교수와 안경사범학교 셰수톈(謝樹田)교수 등 중국학자들이 신라 경덕왕의 형이거나 성덕왕의 장자 김수충(金守忠)이라고 한 설에 대해, 소설가 이순창씨는 신문왕의 둘째아들 보질도(寶叱徒)태자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최근 이순창씨는 '김교각은 보질도태자다'란 논문을 통해 "謝교수의 논문을 수용하게 되면 김지장(김수충) 개인의 기록은 연대기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선대(先代)의 기록은 엉망이 된다"고 지적했다. 김수충의 출생연대를 696년으로 잡을 경우 아버지인 성덕왕이 8세에 성정왕후와 사랑에 빠졌고 이어 김수충을 낳았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따라서 이씨는 〈삼국사기〉의 기록보다는 〈삼국유사〉의 '오대산 5만진신'의 기록과 중국측 사료를 검토할 때 신문왕의 둘째 아들인 보질도태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 김지장의 생몰연대는 689~789년이 된다.

방송가소식

佛放준비위, '충북불교진흥원' 설립

충북불교방송 개국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사단법인 형태의 가칭 충북불교진흥원을 설립키로 결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사단법인 설립안건을 상정하여 충북불교방송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불교방송 운영을 주목적사업으로 하고 '충북 불교진흥원'을 설립하여 15~20인 이내의 이사를 영입키로 했다.

'일본속의 한국불교' btn 영상사업부 출시

불교텔리비전 영상사업부는 개국특집 프로그램으로 방영했던 '일본속의 한국불교'를 비디오로 제작하여 11일부터 출시한다.

'일본속의 한국불교'는 제 1부 머나먼 아스카, 제 2부 도래인의 숨결, 제 3부 불국의 땅 일본 편으로 구성돼 있는 60분용 3부작 비디오물.

조계종 전국 사찰의 사무장들은 지위의 만족도에 있어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고, 재가종무원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변화, 보수의 현실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사무장의 대다수(90.6%)가 사찰이 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조계종이 7월 20일~8월9일까지 전국의 사무장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 설문에는 32명의 사무장들이 참여했다.

조계종 전국 사무장 대상 설문조사

"사찰 지역문화발전 이바지" 91%
"종무원부족 업무처리 애로" 47%

응답자의 46.7%가 종무원의 수가 부족 신속한 업무처리가 힘들다고 답했다. 각 사찰의 컴퓨터 보유율은 91.2%로 상당히 높았지만 종무행정에 대한 컴퓨터활용도에 있어서는 단순한 신도명부 정리, 주소 스티커 인쇄 등 한정되어 있다고 나타나 종무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과 종무프로그램 개발 보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사찰에 신도회가 있으며(90.1%), 사찰운영위원회는 68.8%가 구성했고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21.9%. 사찰운위 구성의 운영에 있어 신도교육이 가장 중요 요인이라고 사무장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사찰운위 구성을 통해 사찰을 공의운영해 나가는데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재무 회계제도미비, 신도 교육 및 조직이 부재해 책임있는 신도가 없는 점을 지적했다.

사찰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운영의 비 전문성과 무계획성 비공개를 지적했고 앞으로 사찰운영에 있어 신도의 참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포교 등 신도신행관련사업(43.8%)으로 응답했다. 〈숙〉

방송 하일라이트

btn ch32

불자연예인 추석한마당

퀴즈특급 이뭐꼬 (8일 10:10~11:00) 추석특집으로 불자연예인 김용림 김혜정 박혜란 이옥주 민용태 김국환 김민종 표인봉 김경식씨를 초청 추석맞이 한마당을 펼친다.

차례상 욥게 차리는 방법

TV 신행상담 (7일 오전 11시10분~12시) 추석을 맞아 제사에 대한 궁금증과 제사로 인한 가족간의 갈등,고민을 듣고 차례상 차리는 법과 그속에 담긴 의미등을 살펴본다.

BBS FM 101.9MHz(서울) FM 89.9MHz(부산) FM 89.7MHz(광주)

한가위 유래·풍습 소개

한가위만 같아라 (8일 10:05~11:00) 한가위와 관련된 유래와 풍속을 알아보는 시간.

음악으로 화목한 분위기

가을을 가는 음악여행 (9일 12:10~20:00) 명절의 의미와 조상에 대한 정의심,가족간의 화목한 분위기를 유도할 수 있는 차분하고 아름다운 음악들로 꾸며본다.

바이올린 협주곡 감상

차 한잔의 선율 (오전 9시5분~10시)) 마르께스의 작품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다〉를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과 함께 감상해 본다.

KBS-1

팔공산일대 불교유적

우리문화유산을 찾아서 (14일 10:15~11:00) 불교조형연구소 이기선 소장과 서정윤 시인이 출연하여 팔공산 일대의 동화사 선본사 관암사등 사찰들과 갓바위 부처님등 불교유적을 더듬어본다.

EBS

동승이 바라본 사바세계

문학기행 (6일 저녁 9시35분~10시15분) 김성동씨의 작품 '산란'을 살펴본다. 동승의 눈에비친 사바세계에 대한 동경및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 있으며 인간이 진실로 바라는 갈등이 전반에 흐르고 있다.

출판·편집 안내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인생은 짧고 기록은 영원합니다. 도서출판 사람들은 사회 각계 각층의 저명인사는 물론 보통사람들의 자서전·회고록·개인기록 등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광고를 해 드립니다.

◎자서전 ◎회고록 ◎출판대행
◎수필집 ◎시 집 ◎편집대행

※ 인생 경험과 지나온 삶의 발자취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스님과 불자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 출판 기획만 원하시는 분, 출판 아이디어나 출판 예정인 원고가 준비된 분의 연락을 환영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 혹은 방문해서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에서 필요한 각종 홍보물을 전문적으로 기획·집필·편집·제작도 해 드립니다.

도서출판 사람들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3번지 2호 선덕빌딩 3층
전화 : (02)725-6752~4
팩스 : (02)725-6920

전세계 기독교회에 보내는 오쇼 라즈니쉬의 최후통첩

기독교와 禪



기독교가 미쳤는가? 라즈니쉬가 미쳤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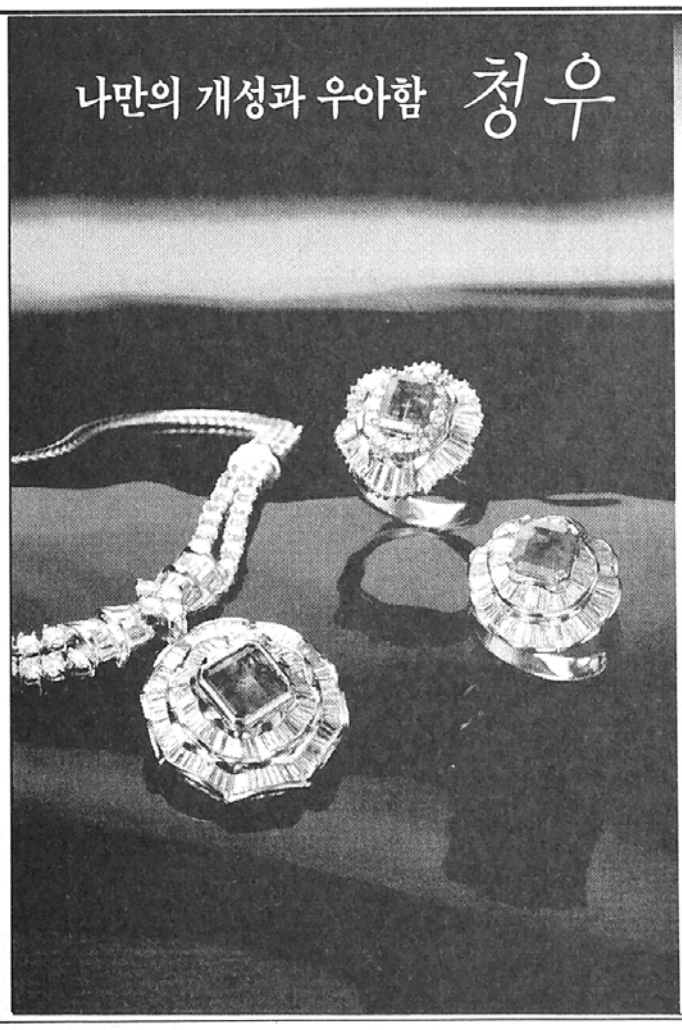
'정신적인 테러리스트', 라즈니쉬는 이 책에서 예리하고 투명한 선(禪)의 칼로 기독교계의 실상과 함께 기독교 믿음의 허구성과 기만성을 낱낱히 질타하고 있다.

편협한 기독교인들은 당신이 이 책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다. 하지만 참된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형식적인 기독교의 옷을 벗고 참된 그리스도가 되라!"는 라즈니쉬의 사랑어린 충고로 받아들일 것이다.

356면/값 7,000원

라즈니쉬 유머집의 총결정판
베스트셀러
지혜로운 자의 농담
탈이데올로기·탈종교·탈지역 유머적 극치! 삶을 아름다운 농담처럼! 값5,000원

정신문화사 Tel. 714-4273 Fax. 711-4715



JEWELRY
CHUNGWOO

섬세하고 정교한 제품,
서정적인 주제와 독특한 감성표현,
각개인의 개성을 소중히 하는
디자인.....
청우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만나십시오

혼수예물에서 다양한
보석장신구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제품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청우 유자야

전시경력
1971~1972 국전 서양화 부문 입선 20회 21회
1976 파리 니델재산 공모전 입상
1977 파리Cite International des arts 주최 전람회 출품
1978 불란서 전국 사진공모전 출품
1979 불란서 파리 미술대학 미술 석사학위 취득
1979 파리 프리마그 로지에 공모전 입상
1980 파리 화랑 전람회 출품
1977 불란서 예술원 공인 미술작가
1980.6 제 1회 개인전(신세계 백화점 화랑)
1982~1984 한국 공예가회 출품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65-1,2
한양타운 107호 / 우편번호 135-120
TEL 3442~4434~5

소쩍새마을 '일력' 중국 도피

후원금중 10억 챙겨…검찰, 1백억여원 가·차명계좌 추적

원주 소쩍새마을의 '아빠스님' 일력(본명 정승우·승적 없음)이 자신의 비위 사실들이 잇따라 폭로되자 후원금 10억원을 챙겨 지난달 14일 중국으로 밀반출, 연길시로 도주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시 불자들을 경악시켰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30일 일력이 후원금 10억원을 중국으로 밀반출, 연길시로 도피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조사결과 일력이 연길시 모 호텔에 투숙하면서 연길시의 실력자에게 "한국에서 반정부활동을 하다가 정부의 마음을 사 도망왔다"며 "수백억의 재산 가운데 30억원을 연길시 문화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며 이미 수억원을 건네주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일력의 도주사실은 일력의 돈을 받은 연길시의 실력자가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환전키 위해 이 돈을 상사 주재원 모씨에게 넘겨 환전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경찰은 환전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온 3억5천만원을 압수했다. 또 경찰은 일력이 국내에 가차명계좌로 감춰놓은 금액이 1백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 K은행 원주지점등 22개 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일력의 소재 파악, 신병인도 등을 인터폴에 신청하는등 본격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일력의 수용자 성추행, 후원금 밀반출 등과 관련 범행일체가 극명히 드러날 전망이다.

〈임연태 기자〉

해설 소쩍새마을 어디로…

치악산 '소쩍새'들의 둥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일력이 막대한 후원금을 챙겨 두었으며 그중 10억여원을 빼돌려 중국으로 도피한 사건이 밝혀지고 중앙승가대의 인수과정에서도 잡음이 생긴 때문이다.

일력이 자취를 감춘이후 지만큼 인수 과정에서의 세금문제와 운영의 주체 확립이 시급해 중앙승가대는 복지법인의 설립도 서두르고 있다. 또한 중앙승가대는 복지법인 설립 허가신청 서류 일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 둔 상태다.

현재 소쩍새마을은 중앙승가대에서 파견된 스님들이 살

승가대 운영참여…법인설립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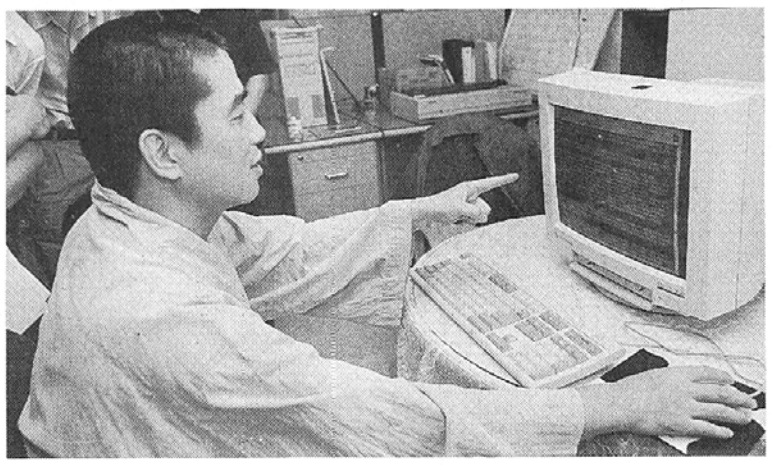
난 7월11일 마을의 '안주인' 격인 법신스님은 중앙승가대로 운영권 일체를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따라 중앙승가대는 소쩍새마을로부터 충주 진여원부지와 CD 예금증서등 36억원 규모의 자산을 공증을 통해 인수 받았다. 또 소쩍새마을이 복지시설이고 중앙승가대가 학교법인인 립을 돌보고 있다. 최근 드러난 잡음과 관련 조계종 총무원도 관련자를 조사하는등 소쩍새마을 정상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앙승가대가 복지법인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체계를 갖출 때 소쩍새마을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소쩍새마을' 승가대 인수과정 '잡음'

중앙승가대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소쩍새마을 인수과정을 전후해 L교수와 교직원 K스님이 소쩍새마을 법신스님으로부터 일력의 명예회복(변호사 선임비 등)을 위해 써달라는 명목으로 1억 5천만원과 1억원을 각각 받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K스님은 전액을 돌려주었으며 L교수는 6천만원을 돌려주었으나 나머지 9천만원은 이미 유용해 변재각서를 써주고 출국했으며 제출된 사퇴서도 수리됐다"고 밝혔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 불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미래사회를 향한 가르침' 편찬

대한불교 진흥원 20돌…22일 출간기념법회

이시대의 문제들에 대한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게 될 불교 결집이 완성됐다.

대한불교 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미래사회를 향한 불타의 가르침〉을 편찬, 오는 22일 서울가든호텔 연회장에서 기념법회를 갖는다. 〈관련인터뷰 7면〉

이번에 간행되는 〈미래사회를…〉은 총 3장20절로 구성,현사회의 모든 현상을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해 재해석하고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놓았다.

1장 '불교란 무엇인가'에서는 불교의 본질과 역사, 세계속의 불교를 정리했으며 2장 '불교와 현대사회'에서는 사회각 분야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장에서는 가정은 물론 교육 환경과 생명 노동 정보통신 미래사회등 14개 절로 세분화 하여 그동안 불교적 해답이 모아지지 않은 뇌사 장기기증 체외수정 등의 입장을 경전적 근거에 입각해 정리했다.

3장은 '불자와 신행'으로 불자의 자세는 무엇이며 무엇을 믿고 닦을 것인지를 설명하였다.

〈미래사회를…〉은 3년전 대중불교결사 전국대회에서 제안, 50여명의 필자가 동원되어 집필했다.

한편 진흥원은 이날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20년사〉를 함께 출간한다. 진흥원은 또한 출판기념법회에 앞서 19일 다보빌딩 3층법당에서 진흥원 설립자인 고 장경호거사 20주기 추모법회를 봉행한다.

동국대 '불교인간학과' 개설 추진

송총장 美방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 모금

종립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경주캠퍼스에 승려교육을 전담할 '불교인간학과'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송석구 총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불교대학 확대개편 △계열학군제도 △대학원 중심대학 △학과 특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 진척사항을 발표했다.

송총장은 내년 경주캠퍼스에서 해외교포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화 및 불교여름학교'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총장은 지난 7월25일~8월3일까지 미국 하와이대. 주립대등을 방문, 동문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으로 22만불(1억6천4백만원)을 기탁 받았다.

육군교도소 재소장병 위문

동국대 동림동문회

동국대 불교대학원 동림동문회(회장 성융스님)는 지난달 29일 육군교도소에 재소중인 장병들을 위한 위문공연을 펼쳤다.

육군교도소 개원이래 처음으로 교도소 연병장에서 펼쳐진 이번 위문공연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실천해온 동림동문회와 육군교도소 법당 지도법사인 운월스님(여래원 원장)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장병을 비롯 스님과 불자 7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는 여래원, 수국사를 비롯 8개 사찰에서 떡과 음료수 등 간식과 불서 2백여권을 장병들에게 전달했다.



◇동림동문회는 육군교도소를 방문, 재소장병 위문공연을 펼치고 불서 등을 전달했다.

인터넷 통해 '금강경' 세계에 개방

장경연구소 홈페이지 개설…해인사·학술자료도 소개

불교의 가장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이 인터넷(internet)을 통해 한글과 영문, 한문으로 전세계에 공급된다.

해인사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는 지난 8월31일부터 인터넷에 홈페이지(Home Page)를 개설, 인터넷을 통한 한국불교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장경연구소가 제공하는 홈페이지에는 해인사 소개, 장경연구소 소개, 학술자료, 경전열람, 해외불교 인터넷 접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터넷 접속장비만 갖추고 있으면 누구든지 장경연구소가 제공하는 불교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http://sol.nuri.net/~hederein/로 접속하면 된다.

해인사 소개는 한글과 영문으로 해인사 사진과 함께 제공되며, 학술자료는 그동안 장경연구소의 2차에 걸친 정기 세미나에 발표된 논문등 불교전산화 관련 논문들이 실려있다.

장경연구소는 한국불교의 법맥과 역사 고승행장을 한글과 영문으로 소개하는 란을 신설하고 경전열람과 학술논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인터넷상에서의 불교계의 활동이 전무한 현실에서 장경연구소의 홈페이지 개설은 불교계 최초의 시도로 최근의 정보화 추세에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성운 기자〉

제휴카드 회원접수 대불청 소속감 고취

대한불교청년회(중앙회장 이상번)는 지난 5일 만해교육관에서 국민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신용카드 조인식을 갖고 카드회원 확보에 나섰다.

이번에 대불청이 제휴한 신용카드는 국민마스타카드로 대불청의 명칭 및 로고가 새겨져 있으며 일반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다.

소년소녀가장 격려

양산불교청년회

경남 양산불교청년회(회장 서기복)는 지난달 20일 통도사 양산포교원 대강당에서 소년·소녀 가장 15명에게 격려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통도사 호명스님과 손유섭 양산군수, 김동극 전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진송남 남궁옥분 염수연씨 등 불자가수회원들의 공연도 있다.

"무차별 환경파괴 막아달라"

부산시민대책위, 대통령 청원서 채택

부산자연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광장호텔에서 발족,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청원서를 채택했다.

금정산 경동아파트 건립저지위원회, 선암사 고층아파트 건립저지위원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대책위는 취지문에서 자연을 수호하는 일은 부산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지난 2일 부산역 광장에서 3천여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제1차 범시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범어사 청년승가회는 범어사 경동아파트 건립과 관련, 지난 1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범어사와 금정산을 살리는 범청년 승가대회'를 개최했다.

실천승가회 낙산사 수련대회 취재기

'자체개혁 미흡' 반성 목소리 높아

실천승가회가 자체개혁을 통한 거듭나기의 진통을 시작했다.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양양 낙산사에서 열린 실천승가회 제2차 수련대회는 개혁종단의 진단과 승가회 자체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시종 열띤 분위기가 이어졌다.

첫날 지홍스님의 '개혁종단의 진단과 전망'에 대한 발제와 도법스님과 법타스님의 논평이 있고난 후 회원스님들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최근 민감한 사안으로 대접(?)받고 있는 전사법 개정, 선학원, 중앙승가대 이전 등과 관련된 문제는 물론 현종단의 무능력과 부도덕성을 꼬집는 질문이 잇따랐다.

그러나 토론도중 지선스님(공동의장)은 실천승가회가 현종단의 개혁의지나 업무수행능력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저변 인식을 표면화시켰다.

"우리가 불교운동단체입니까 아니면 이미 기득권층이 된 것입니까. 도무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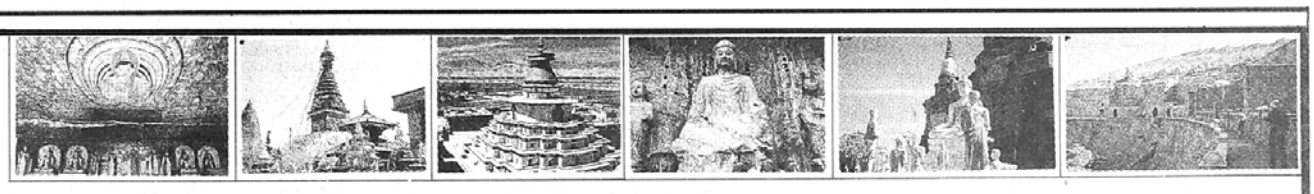
자탄섞인 반성이 잇따르고 급기야는 종단보다도 실천승가회를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대두됐다. 현종단의 인사, 재무등 전분야에 대한 비판이 곧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마저 없다는 자체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실천승가회 소속 재가실무자들도 자체내부에 대해 심도깊은 비판을 가했다. 조직체계나 의사결정방식, 사업내용에 있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스스로를 향한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분출된 토론회. 그러나 목소리만 높았을 뿐 별다른 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혁종단을 이끌어내는데 선봉에 섰던 실천승가회가 이제 자체개혁을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아내느냐 라는 연수회였다.

한명우 기자



불교 성지 순례

실크로드 대장정 23일
-중국 불교유적지와 간다라 불교유적-
· 출 발 : 9월 18일
· 동참금 : 295만원
· 일 정 : 서울-북경-서안-난주-가욕관-돈황-투르판-우룸치-카슈가르-쿤자랍고개-훈자-길기트-스왓-페샤와르-탁실라-이슬라마바드-라호르-방콕-서울

실크로드 불교유적지 11일
· 출 발 : 9월 22일
· 동참금 : 188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소주-항주-서안-난주(병령사 석굴)-돈황(천불동)-투르판-우룸치-북경-서울

티벳·네팔 9일
· 출 발 : 9월 30일
· 동참금 : 210만원
· 일 정 : 서울-상해-성도-라사-장체-시가체-라사-카트만두-방콕-서울

인도·네팔 성지 순례 10일
-불교 7대 성지와 네팔의 불교사원 순례-
· 출 발 : 9월 27일, 10월 26일
· 동참금 : 160만원
· 일 정 : 서울-델리-바라나시-사르나트(녹야원)-부다가야-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엠부넛 등)-서울

중국불교유적지 13일
· 출 발 : 9월 19일
· 동참금 : 195만원
· 일 정 : 서울-상해-계림-서안-낙양(용문석굴)-숭산 소림사-정주-태원-오대산(문수보살도량)-대동(운강석굴)-북경-서울

백두산 연길 북경 5일
· 출 발 : 9월 16일
· 동참금 : 100만원
· 일 정 : 서울-심양-연길-백두산-북경-서울

인도네시아 5일
-세계 최대의 불교기념비 보로부두르 사원-
· 출 발 : 9월 17일
· 동참금 : 95만원

대 만 5일
· 출 발 : 9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여행조건 ●호텔:특급 및 1급, 2인 1실 기준 ●전일정 식사제공 ●최소 출발인원: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544-1533(代)



인도의 어느 날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룸비니를 떠날때 비가 개이며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모두 푸근한 마음으로 고락푸르에서 1박을 했다. 다음날 바라나시로 향하던중 조그맣고 귀화로운 한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어느 한적한 곳에서 이젤을 펴고 캔버스를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동네 꼬마들이 어느새 경계심을 풀었는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의자에 앉아보니 때 일행 중 한분이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주니 모두 좋다고 "포토! 포토!"하며 가르르 웃는다. 한 녀석은 그 와중에 슬금슬금 이젤에 손대보고, 청바지도 만져보고 하더니 기어코 파레트에 짜 놓은 물감을 손에 찍었다.

원만큼 그림이 된것 같아서 현지 사진을 찍고 짐을 정리하서 있던 아저씨 아줌마가 그림에 등장하자 목소리들이 커지며 떠들기 시작했다. 그

호기심 많던 순박한 동심들 아련

많은 아이들이 나를 마주보고 서서 '가우릉' '껄박껄박'한다. '무엇을 하려나?'하는 눈치였다. '요 녀석들아 뭐가 보여야 그림을 그리지!'하고 중얼거리는데 지나가던 미스터 김이 "풋풋"하며 땅에 돌멩이로 금을 그었다. 그리고 모두 그 금뒤로 서게하고 조금 큰 아이를 보초로 세웠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아~"하고 이해가 되는 듯 하더니 저희끼리 늦게 뛰어나온 아이들을 통제했다.

나무를 그리고 집을 그리고 하니까 소곤소곤 거리다가 멀리서 아이들을 감시하는 듯 보고는데 제법 큰 아이가 이것저것 집어주며 거들어 주었다. "나마스테! 고맙다"하며 모두에게 가지고 있던 사탕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떤 어린아이는 계속 행님 뒤에 반쯤 숨은 채로 손만 내밀었다.

인도여행길에서 그린 그림에는 그 호기심 많던 순박한 눈동자들이 늘 함께 한다. 모란모란 속삭이던 목소리들과 솔직 모자를 건드려보던 손길도 함께 한다.

나중에 그때 찍은 사진을 받아보니 내 뒤에 늘어선 아이들은 31명이나 되었다.

승경희 〈서양화가〉

선재들의 합창 ③·〈끝〉

주부신행담

아무리 넉넉한 부자라도 알부민으로 언제까지나 치료를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알부민 대용으로 '말토제'란 약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러는 사이에 병식이는 자꾸만 야위어 갔다. 부처님의 보살핌으로 병식이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날도 병식이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세가지를 시내에서 사와 급한 일로 재활원으로 먼저 가게 되었다. 점심을 걸렀던지라 과자중 한가지를 우선 먹고 나머지 두가지를 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갔다. 이튿날 나는 간호사로부터 벌사탕이 가득 든 유리병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는 병식이의 죽음을 전해 들어야 했다. 저 세상 별나라로 갔다는…

고날 내가 어린아이처럼 먹어버린 병식이의 과자를 생각하면 큰 빚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다. 병식이와의 그런 인연이 있고 난 뒤 나는 언제일런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업'을 훨훨 벌쳐버릴 때까지 내가 선택한 길을 원심히 가려고 다짐하고 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간 세월과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아직은 물도 담도 없으며 큰 대문도 없다. 그러나 우리 천마의 아이들은 용하게도 함부로 집밖에 나가지도 않는다. 어쩌다 선생님들께 꾸중을 듣거나 자기들끼리 다툼이 있어서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나에게 온다. 왜냐하면 나가는 자신을 내가 필히 붙들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우리 천마재활원의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고 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는 불가의 관습대로라면 재활원의 식구는 이미도 몰쭉날쭉이 되었을 것이다.

백오십명 정도되는 천마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바닷가 커다란 바위에 서로가 굳게 뭉쳐서 살면서 심한 바람에도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힘을 모아 떠내려 가지 않는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엄마(천마의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가 나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못나가게 한다는 유래는 수년전의 어떤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중증요양 시설이 없었으므로 재활원에는 기저귀를 하고 누워있는 아기가 삼십명 남짓되었다. 선생님들도 무척이나 인내력의 한계선상까지 도달하였고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그 많은 기저귀를 씻어낼 사람이 없었다. 기저귀 세탁을 위해 대형 세탁기를 길상암 스님과 힘을 모아서 구입하고 매일 삼백오십장이나 되는 기저귀를 씻어냈다.

천마재활원에는 착하고 일 잘하는 행기라는 자금은 어엿한 청년이 된 아이가 있었다. 처음 70년대 초에 왔을 때는 정신분열현상이 있었고 한번 탈원하였다가 미침 충무동 로타리를 지나가는 나에게 발견되어 거지같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지금까지 여간 잘 있지를 않다.

그런데 그 기저귀를 세탁하는 일이 행기의 몫이 되었는데 어느날 나의 책상위에 편지 한장이 놓여있어 읽어보니 행기의 편지였다. '엄마 빨래 너무 많다. 나는 간다'라는 삐뚤삐뚤하게 쓰여진 행기의 편지였다. 그리고 주위에

백오십명 정도의 천마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닷가 커다란 바위에 뭉쳐 살면서 파도에도…



물어보니 행기는 정말로 가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몇번이고 읽고 또 읽고 아이들이 보는 줄도 모르고 울고 또 울었다. 어찌된 일인지 이틀이 지난후 행기는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엄마가 울어서 돌아왔다고 했다. 그후 동근이라는 아이가 너무도 선생님 말을 안듣고 애를 먹이니까 선생님이 조그만 보따리를 만들어 주면서 나가라고 하였더니 엄마를 봐야되고 엄마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면서 결국은 나가지 않은 일도 있었다.

우리 천마의 아이들은 울보 엄마가 자기들이 나가면 운다는 것이 뭔지 마음에 가서 닿는가 보다. 요즈음도 행기는 공사판에 잡역으로 가서 일하고 있지만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나의 책임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결혼을 시켜서 조그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벌써 몇년전부터 그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뾰족한 묘안이 있을 턱이 없는 나는 봉도사로 원하 종정스님을 찾아뵙고 스님들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발원했다. 큰스님은 친히 일년분 후원금도 주셨다. 그러나 그후 여는 스님께도 가보지 못하였다. 별로 잘 살지도 않는 살림살이에 이리저리 연연하다 보니 툭툭 털고 나서기가 그리 쉽지가 않았다.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지만 갈때기 울음소리 맘이 설레어 다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라는 한인한님의 '섬집아이' 2절 가사처럼 정말이지 이제는 갈매기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이지도 않고 다 못찬 굴바구니에 굴을 한껏 채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배짱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눈덮인 킬리만자로의 봉우리 가까이에 누가 에누가이라는 신의 집이 있다고 한다.

말라붙은 한마리 표범의 시체가 놓여 있다고도 한다. 불사의한 표범의 시체, 생활의 방향감각을 잃었는지 높고 빛나는 곳을 향한 야성적 죽음의 갈망은 지금처럼 공허한 내게 가슴깊이 와닿고 급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번씩 가슴으로 새기는 이야기로 삼고있다.

박근련 〈부산 천마재활원 원장〉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⑨

♦ Discontented are some pabbagitas(ascetics) also some gahatthas(householders) dwelling in houses ; let one, caring little about other people's children,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집을 떠난 수행자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지나치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남의 자녀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지 말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Removing the marks of a ghin(a householder) like a Kovilara tree whose leaves are fallen, let one, after cutting off heroically the ties of a ghin,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잎이 진 코발라라 나무처럼 세속의 속박을 미련없이 잘라 버리고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 If one acquires a clever companion, an associate righteous and wise, let him, overcoming all dangers, wander about with him glad and thoughtful.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난다면 이 모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편안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과 무리지어 함께 가거라.

♦ If one does not acquires a clever companion, an associate righteous and wise, then as a king abandoning his conquered kingdom, let him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ascetic 고행자, 수행자
'remove 제거하다
'abandon 포기하다

한명우 기자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화려했던 낮만큼이나 소중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편안한 휴식으로 다가서는 이름-그랜드
우아한 분위기, 세련된 디자인으로
더욱 편안하게 다가갑니다.
늘 사랑이 넘치는 공간! 그랜드로 오십시오.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듯 아름다운 꿈이 펼쳐집니다.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전문 회사 2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길만을 고집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제품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프 스프링 공법으로 제작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투 매트 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제로 전달 수 있으며, 수명이 2.5배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성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GRAND FANTASIA

꿈의 나래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경기 파주군 광탄면 마장2리 180-18
• 전화:0348-945-2233 / 팩스:0348-945-9607

생활속의 불교 ㊴

취미란에 '살생'이라고 적는 사람

남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살생할 일이 없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 같이 생각한다면 도둑질할 일이 없다.

생명은 다 같다. 물고기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차원이 다를 뿐이지 생명은 똑같다.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데도 재미 삼아 생명을 죽이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신상카드의 취미란에 '살생'(낚시, 사냥은 살생이다)이라고 적는 이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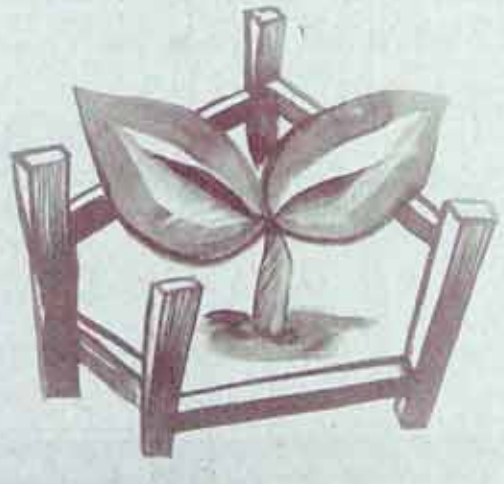
사람이면 누구나 고통을 싫어하듯 축생이나 미물도 고통을 싫어한다. 거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을 한다. 차원의 높낮이만 다를 뿐 생명이 겪는 아픔은 사람과 축생·미물이 다를 바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의 생명을 둘로 보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남·이웃은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나아가서는 무정물까지 나와 상대되는 만유(萬有) 일체를 말한다. 그러기에 대자대비인 것이다.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온연중에라도 대가를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자기식의 관념·집착·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조건붙은 사랑이다. 남·여의 사랑은 대체로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랑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자비,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비운 사랑, '나'를 비운 자비를 말한다.



꼬리표가 붙지 않은 자비·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 날 수 있다. '나'를 비우는 일이기에 자비·사랑은 '과거의 나'를 다시 인식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나'를 다시금 직시하게끔 해준다. 아니 해주고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절로 그렇게 된다. 나의 욕심·이해관계에서 사물을 바라보던 눈이 저절로 바뀌게 된다. 고로 자비와 사랑은 번뇌·욕심·고통·악 따위를 녹여주는 영묘한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고해를 건너게 하는 바라밀의 배인 것이다.

삶의 목적은 진화를 통한 자기완성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이 그 목적이라고 가르치신다. 해탈에 이르는 진화의 과정, 그것이 삶의 길이요, 삶의 목표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이 '자기 비움'에 있다고 하신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비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기 비움'을 실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무척 어렵다고 한다. 수억겁 쌓이고 쌓인 관념의 때[垢]가 그만큼 두껍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비움'의 비교적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생명사랑, 이웃사랑이다. 그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바로 실천할 수 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아끼는 일은 쉽다. 살생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천은 시작된다.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보라.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따짐은 관념이다) 이웃에 대한 헌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보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그 공덕의 큼을 말씀하셨다.

협찬:원 은 섬